

제 1 교시 나무아카데미 국어영역

[1~2] 다음은 강연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지금까지 ‘인간의 소비 성향’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내용의 주제는 ‘인간의 선택 행동’입니다. 경제학자들은 인간이 이기적이라고 합니다. 경제학에서는 사람들이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때 자기 자신의 물질적인 이득을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선택을 한다고 보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정작 사람들은 경제학자들의 설명대로 행동을 하지 않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먼저 이와 관련된 실험을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희주와 한나는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입니다. 그런데 제가 희주에게 10,000원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희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돈을 당신 마음대로 한나와 나눠 가지세요.”

이제 희주는 한나에게 얼마를 나눠 줄지 결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한나에게도 선택권이 주어집니다.

“당신은 희주가 제시하는 액수가 얼마가 됐든 그 돈을 받을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단, 당신이 희주가 주는 돈을 거부할 경우 희주는 저에게 10,000원을 다시 돌려줘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이야기가 어떤 상황인지 이해되시지요? (대답을 듣고)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희주는 한나에게 10,000원 중에서 얼마를 나눠 주겠다고 해야 할까요? 5,000원인가요? 1,000원인가요? 다양한 답이 나오네요. 예를 들어 희주가 1,000원을 나눠 주겠다고 제안했다면 한나는 이 제안을 수락해야 할까요, 거부해야 할까요? 희주가 적은 돈을 나눠 주더라도 한나는 어차피 공짜니까 기꺼이 수락하게 될 거라고요?

흥미롭게도 실제 실험의 결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희주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받은 돈을 다시 돌려줘야 할지도 모른다는 부담 때문에 대부분 받은 돈의 절반 정도를 내놓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한나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30% 이하의 금액이 제시될 경우 아예 거부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거부할 경우 한 푼도 받지 못한다는 규칙을 알면서도 말입니다. 참 재미있지요?

이처럼 경제학에서 규정한 대로 사람들이 자신의 물질적인 이득을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선택하지 않는 경우를 우리 주변에서도 더러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학에서는 이러한 사람들의 행동 패턴에 주목하여 이를 분석하는 연구를 시작하고 있지요. 이러한 경제학을 ‘행동 경제학’이라고 하는데, 다음 시간에 이에 대해 집중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연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1. 위 강연자의 말하기 전략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주제를 언급하며 화제를 전환하고 있어.
- ② 청중의 이해 여부를 확인하며 강연을 전개하고 있어.
- ③ 질문을 던지며 청중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어.
- ④ 속담을 활용해 강연 내용에 대한 청중의 이해를 돕고 있어.
- ⑤ 다음 시간에 다룰 내용을 언급하며 강연을 마무리하고 있어.

2. 다음은 위 강연을 들으며 작성한 메모이다. ㉠~㉣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 한나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희주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의 제안을 거부한 사람은, 제안을 거부할 경우 한 푼도 받지 못한다는 규칙을 알지 못했던 것은 아닐까? ... ㉠
- 강연에 인용된 실험은 출처가 어디지? 출처를 언급했다면 신뢰성이 더 높아졌을 텐데. ... ㉡
- 제시된 실험 결과에 따르면 사람들이 항상 자기 자신의 물질적인 이득을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행동한다고 보기는 어렵겠군. ... ㉢
- 사람들이 자신의 물질적인 이득을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선택을 하지 않는 실험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해 주어서 내용을 이해하기가 쉽군. ... ㉣
- ‘행동 경제학’과 관련된 실험을 소개한 뒤 ‘행동 경제학’의 개념을 제시해 주니 훨씬 정리가 잘 되는 걸. ... ㉤

- ①㉠ ②㉡ ③㉢
- ④㉣ ⑤㉤

3. <보기>에 제시된 담화 상황에 대한 탐구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ㄱ.
(재호와 민영이가 짐을 옮기고 있고, 승찬이는 그 옆에 서 있다.)
재 호: 승찬아, 거기에 가만히 서 있지 말고 이 짐을 옮겨.
민 영: 그래, 미안하지만 좀 도와줘. 이것만 옮기면 되거든. 부탁해, 승찬아.

ㄴ.
(경미와 민규가 교실에서 수업을 듣고 있다.)
경 미: 선생님, 목소리가 너무 작아요. 크게 말해 주세요. 하나도 안 들려요.
민 규: 죄송하지만 제가 귀가 안 좋아서 그러는데 크게 말씀해 주세요.

ㄷ.
(선생님이 학생의 발표에 대해 평가를 하고 있다.)
선생님: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었지만, 네가 지금까지 발표한 것 중에서 가장 좋았어. 내용 구성도 풍부했고 말하기 태도도 돋보였어.

학 생: 선생님께서 열심히 지도해 주신 덕분이에요.

ㄹ.

(밤 11시에 독서실에서 나온 아들을 보며 아빠가 칭찬하고 있다.)

아 빠: 우리 아들, 열심히 공부하는구나. 넌 꼭 꿈을 이룰 수 있을 거야.

아 들: 과찬이세요. 제가 2학년 때 많이 놀았잖아요. 밀린 공부를 하다 보니 해야 할 게 많아 이 시간까지 공부하는 거예요.

ㅁ.

(동생과 언니가 엄마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동 생: 엄마는 내 마음을 잘 몰라주는 것 같아. 아까 그 옷은 정말 사고 싶었는데 말이야.

언 니: 그 옷을 사고 싶은 네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돼. 하지만 이번에는 엄마의 주머니 사정이 좋지 않았던 것 같아. 엄마를 이해해 줘.

- ① ㄱ: 민영은 재호와 달리 승찬에게 부담을 적게 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군.
- ② ㄴ: 경미는 민규와 달리 부담을 자신에게 돌려 선생님의 부담을 덜어 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군.
- ③ ㄷ: 선생님은 학생의 발표에 대해 비판은 최소화하고 칭찬을 주로 하고 있군.
- ④ ㄹ: 아들은 자신에 대한 칭찬을 최소화하고 자신을 낮추고 있군.
- ⑤ ㅁ: 언니는 동생의 마음을 존중해 준 뒤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군.

[4~7] (가)는 동아리 홍보를 위해 동아리 나눔방에서 교환한 의견이고, (나)는 이를 반영하여 작성한 초고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정직이: ㉠ 난 우리 동아리의 성격이 잘 드러나도록 제목을 대구 표현으로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 우리 동아리가 초등학교 교실에서 다양한 봉사를 하는 거니까,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지 않을까?

놀래미: 맞아. ㉡ 토요 돌보미 교실의 봉사 대상은 누구인지와 동아리는 어떻게 조직되어 있는지도 알려 주어야지.

희장: 그래. 또 우리 동아리 활동으로 얻을 수 있는 장점을 소개해야 할 텐데....., ㉢ 다양한 전공의 대학생과 함께 재능을 기부하기 때문에 자신의 진로 탐색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홍보해야 하지 않을까?

그래비티: 그래 그것도 좋네. 그런데 2학기 행사가 좀 약한 거 같지 않아? 지난번에 만났던 국토 기행 동아리 연합회 담당자와 연락해서 ㉣ 2학기 행사를 위한 새로운 계획을 넣으면 글의 내용과 활동이 풍부해 보일 것 같아.

놀래미: 난 지난번 국토 기행 동아리 연합회와 명소 체험 행사를 했을 때 초등학교 아이들과 함께 활동하던 모습이 담긴 사진을 실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짱짱: ㉤ 활동 장소나 시간 등 세부 내용도 포함되어야 할 것 같아. 그리고 동아리 가입을 권유하는 내용으로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아.

희장: 좋아. 이러한 의견을 모아서 초안을 작성한 다음 자료실에 올릴게. 읽어 보고 고쳐야 될 점이 있으면 다시 좋은 의견 줘.

(나)

아이들과 더불어 나누는 즐거움,
형들과 더불어 키우는 재능



㉠

‘토요 돌보미 교실’은 대학생들의 재능 기부와 연계되어 이루어지는 우리 ○○ 고등학교 학생들의 봉사 활동 동아리입니다. 우리 동아리의 돌보미들은 토요일에 집에 홀로 있는 맞벌이 가정이나 저소득층 가정의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습 지도 활동, 독서 활동, 예체능 ㉡ 활동입니다. 또한 방학 중에는 대학생들과 연계하여 다양한 체험 활동을 합니다. 우리 동아리는 학업, 봉사, 체험 활동 등 모든 것을 해야 하는 입시생들에게도 꼭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 줍니다. 우선 정기적으로 봉사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도 좋지만, 무엇보다 가장 큰 장점은 돌봄 학생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진로 관련 능력도 커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점에서 그럴까요?

㉢ 그런데 우리 토요 돌보미 교실의 특징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첫째, 우리 동아리는 돌보미 학생들이 자신들의 진로나 흥미와 관련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소모임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즉 독서 지도반, 영어 회화반, 체육 활동반, 음악반, 미술반의 소모임으로 분화되어 있어 각자의 흥미와 적성에 맞는 활동을 합니다. 둘째, 대학생 재능 기부 프로그램과 연계되어 있어 자신의 진로와 관련 있는 소모임 분야를 선택하고, 그것과 관련된 전공 대학생들

에게 도움을 받도록 체계화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진로가 음악 계열이라면 음악반에서 음악 전공 대학생들과 함께 돌보미 활동을 하면서 관심 분야에 대한 것도 배우게 되는 거지요. ㉔ 마치 예전의 대가족 체제처럼 큰형 같은 대학생, 작은형 같은 우리 동아리 고등학생, 그리고 막냇동생 같은 초등학생으로 소모임이 조직되어 있습니다. 셋째, 우리 동아리는 가족처럼 서로의 정을 느끼며 정서적 교감을 할 수 있도록 소모임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㉕ 여러분, 토요일 돌보미 교실의 도우미 학생이 되어 정서적 교감과 보람은 물론 봉사 시간도 얻고 자신의 진로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아리의 학기 중 활동 시간은 토요일 오전 9시부터 1시까지이며, 활동 장소는 ○○ 초등학교입니다. 그리고 여름 방학 때에는 ○○ 대학교 국토 기행 동아리와 연합하여 명소 체험 학습을 해 왔습니다.

4. (가)의 ㉔~㉕중 (나)의 '초고'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 ① ㉔ ② ㉕ ③ ㉔
- ④ ㉕ ⑤ ㉕

5. ㉑~㉕을 고쳐 쓰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㉑: (가)의 내용을 고려하여 활동 모습이 담긴 사진으로 교체해야겠어.
- ② ㉒: 주어와 서술어가 일치하지 않으므로 '활동을 하기 때문입니다.'로 수정해야겠어.
- ③ ㉓: 앞 문장의 내용과 연결이 자연스럽지 않으므로 '그 이유는'으로 수정해야겠어.
- ④ ㉔: 문장 간의 연결 관계를 고려하여 바로 뒤의 문장과 순서를 바꾸는 게 좋겠어.
- ⑤ ㉕: (가)와 글의 흐름을 고려하여 바로 뒤의 문단과 순서를 바꾸는 것이 좋겠어.

6. '토요일 돌보미 교실'을 이해한 독자의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지: '토요일 돌보미 교실'은 대학생들의 봉사 활동 동아리군.
- ② 신혜: '토요일 돌보미 교실'은 저소득층 가정의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이군.
- ③ 정수: '토요일 돌보미 교실'은 입시 위주의 활동을 통해 입시생들에게 꼭 필요한 입시정보를 제공해 주는군.
- ④ 연우: '토요일 돌보미 교실'을 통해 관심 분야에 대해 학습할 수 있겠군.
- ⑤ 성찬: '토요일 돌보미 교실'은 세 개의 소모임으로 분화되어 있어 각자의 흥미와 적성에 맞는 활동을 하는군.

7.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문답법을 사용하여 독자의 사전지식을 점검하고 있다.
- ② 비유법을 사용하여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 ③ 열거법을 사용하여 대상의 장·단점을 설명하고 있다.
- ④ 역설법을 사용하여 주장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 ⑤ 관용 표현을 사용하여 말하고자 하는 바를 강조하고 있다.

- ① ㉠: 어법에 맞지 않으므로 '뉴스거리'로 고친다.
- ② ㉡: 앞뒤 문장을 자연스럽게 연결하지 못하므로 '이에 따라'로 고친다.
- ③ ㉢: 조사의 사용이 부적절하므로 '다수의 사람들이'로 고친다.
- ④ ㉣: 주어와 부사어의 논리적 관계를 고려하여 '당한'으로 고친다.
- ⑤ ㉤: 글의 통일성을 고려하여 삭제한다.

11. <보기>의 품사 분류 기준에 따라 예문의 단어를 분류해 보았다. 적용한 기준에 따른 분류로 알맞은 것은? [3점]

<보기>

품사 분류 기준

- 형태에 따라: 가변어, 불변어
- 기능에 따라: 체언, 용언, 관계언, 수식언, 독립언
- 의미에 따라: 명사, 대명사, 수사, 동사, 형용사, 관형사, 부사, 감탄사, 조사

예문

- 호수가 깊다.
- 강의 깊이는 누구도 모른다.

기준	분류 (※ 는 분류의 경계를 표시함.)
① 형태	깊다, 깊이 호수, 가, 강, 의, 는, 누구, 도, 모르다
② 기능	깊다, 모르다 호수, 강, 깊이 누구 가, 의 는, 도
③ 기능	깊다, 모르다 호수, 강, 깊이, 누구 가, 의, 는, 도
④ 의미	깊다, 깊이 모르다 호수, 강 누구 가, 의, 는, 도
⑤ 의미	깊다 깊이 모르다 호수 강 누구 가 의 는 도

12. 다음은 문법 수업의 일부이다. 이를 바탕으로 <보기>의 밑줄 친 부분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지난 시간에 공부한 내용

* 자음 동화

자음 동화에는, 자음 'ㄱ, ㄷ, ㅂ'이 비음 'ㄴ, ㄹ' 앞에서 비음의 영향을 받아 각각 'ㅇ, ㄴ, ㄹ'으로 발음되는 '비음화'와 자음 'ㄴ'이 유음 'ㄹ'의 앞이나 뒤에서 유음의 영향을 받아 'ㄹ'로 발음되는 '유음화'가 있다. '국물[궁물]'은 'ㄱ'이 'ㄹ' 앞에서 'ㅇ'으로 발음되는 비음화의 사례이며, '난리[날리]'는 'ㄴ'이 'ㄹ' 앞에서 'ㄹ'로 발음되는 유음화의 사례이다.

선생님의 설명

'음운의 첨가'란 원래는 없던 소리가 첨가되어 발음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맨입으로는 알려 줄 수 없다.'에서 '맨입'은 '[맨닙]'으로 발음됩니다. 합성어나 파생어에서 앞말의 끝이 자음이고 뒷말이 '이, 야, 여, 요, 유'로 시작하는 경우에는 뒷말의 첫 소리에 'ㄴ' 소리가 첨가되기 때문이지요. 또 합성어에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고 뒷말이 'ㄴ, ㄹ'으로 시작되는 경우에도 앞말의 끝소리에 'ㄴ' 소리가 첨가됩니다. 이때에는 '뒷문[뉘문]'의 경우처럼 앞말에 사이시옷('ㅅ')을 넣어서 이를 표시해 줍니다.

<보기>

ㄱ. 그는 날렵한 ㉠ 콧날[콘날]이 매우 인상적이다.

ㄴ. 나는 아끼던 ㉡ 색연필[생년필]을 잃어버려 속이 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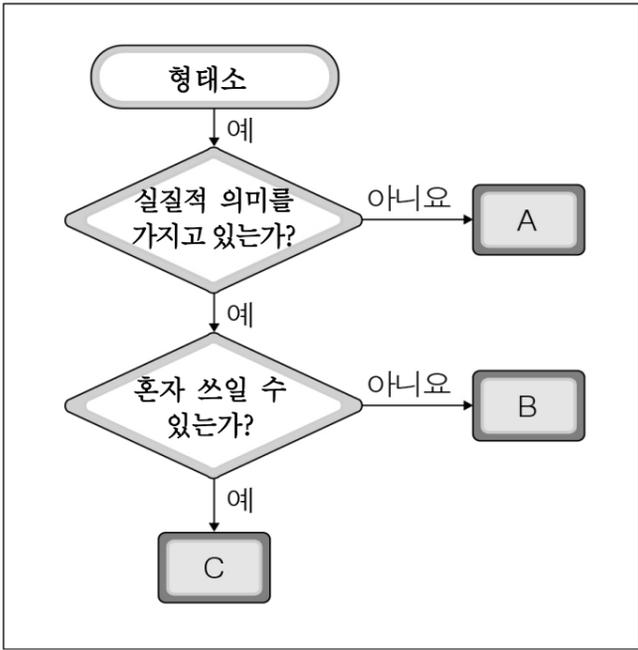
ㄷ. 그 사람은 회사의 ㉢ 막일[망닐]을 도맡아 하고 있었다.

ㄹ. 아이가 아직 알약을 먹지 못해서 ㉣ 물약[물략]을 지어갔다.

ㅁ. 그녀는 ㉤ 잇몸[인몸]이 약해져서 정기적으로 치료를 받았다.

- ① ㉠은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고 뒷말이 'ㄴ'으로 시작되는 합성어이므로 앞말의 끝소리에 'ㄴ' 소리가 첨가된 경우라고 할 수 있군.
- ② ㉡에서 'ㄴ' 소리가 첨가된 이유는 앞말의 끝이 자음이고 뒷말이 '여'로 시작하는 합성어이기 때문이군.
- ③ ㉢은 'ㄴ' 소리가 첨가된 후, 'ㄹ'의 영향으로 'ㄱ'이 비음화 된 경우라고 할 수 있군.
- ④ ㉣은 'ㄴ' 소리가 첨가되어 '[물낙]'으로 바뀐 후, 'ㄹ'의 영향으로 유음화가 일어난 경우라고 할 수 있군.
- ⑤ ㉤은 사이시옷을 넣어서 'ㄴ' 소리가 첨가됨을 표시한 경우라고 할 수 있군.

13. 다음의 탐구 과정에 따라 <보기>의 ㉠ ~ ㉣을 분류하고자 한다. A ~ C에 해당하는 사례를 올바르게 짝지은 것은?



<보기>
 북두칠성은 ㉠ 어느 계절에나 북쪽 밤하늘을 보면 쉽게 찾을 수 ㉡ 있다. 북두칠성을 흔히 국자㉢ 에 비유하는데, 그것이 국자라면 국을 쏟을 때 국이 흐를 마지막 두 별을 잇㉣ 는 직선상에 있는 별 중 가장 밝고, 두 별의 간격의 다섯 배쯤에 있는 별을 발견할 것이다. 그 ㉢ 자리에 보이는 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밤하늘의 북극성이다.

	A	B	C
①	㉠, ㉡	㉢	㉣, ㉡
②	㉣, ㉢	㉠, ㉡	㉢
③	㉢, ㉣	㉠, ㉣	㉡
④	㉢, ㉣	㉣	㉠, ㉡
⑤	㉣	㉢, ㉡	㉠, ㉣

14. <보기>의 자료를 바탕으로 '주어'에 대해 탐구했을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ㄱ. 새가 날아간다.
 ㄴ. 어디 갔니, 영희는?
 ㄷ. 우리 지금부터 조용히 하자.
 ㄹ. 우리 반이 승리했음이 분명하다.
 ㅁ. 어서 빨리 밥 먹고 학교에 가거라.

- ① 'ㄱ'과 'ㄷ'을 보면, 주격 조사는 생략될 수도 있어.
- ② 'ㄱ'과 'ㄹ'을 보면, 주격 조사의 형태는 앞말과 관계가 없어.
- ③ 'ㄱ'과 'ㅁ'을 보면, 상황에 따라 주어가 생략될 수도 있어.
- ④ 'ㄴ'과 'ㄷ'을 보면, 주어의 위치는 이동할 수 있어.
- ⑤ 'ㄷ'과 'ㄹ'을 보면, 주어는 한 단어뿐 아니라 절이 될 수도 있어.

15. <보기 1>을 참고하여 <보기 2>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1>
 실제 발화의 의미는 말하는 이, 듣는 이, 장면 등 담화를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해야만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발화에서의 지시 표현은 시간적, 공간적 장면이 있어야 그 의미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고, 높임 표현도 구체적인 발화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인물들 사이의 상하 관계나 친소 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또한 확신이나 추정 등 말하는 이의 심리적 태도나 의도, 생략된 내용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려면 담화 맥락과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보기 2>
 영화: 여기 있던 빵 누가 치웠어? (철수를 쳐다보며) ㉠ 네가 먹었지?
 철수: 아니, 내가 먹은 건 아니고 아까 회수가 배고프다고 해서 줬어.
 영화: 아이고, ㉡ 참 잘하셨네요.
 철수: 그 빵이 네 빵이었어? 미안해. ㉢ 대신 이 과자라도 먹을래?
 영화: 그거? 그래, ㉣ 먹을래. (과자를 먹다가 건네며) 근데 넌 배 안 고파?
 철수: ㉤ 난 점심 먹었어.

- ① ㉠: 영화의 행위를 고려할 때 '먹었지?'라는 표현은 어떤 사실에 대해 의심하면서 이를 확인하려는 심리를 전달한다.
- ② ㉡: 발화 상황을 고려할 때 '참 잘하셨네요.'는 표현된 진술과 발화의 의도가 일치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 ③ ㉢: 이어지는 영화의 반응을 고려할 때 '이'라는 지시 표현은 '과자'가 철수보다는 영화에게 가까운 위치에 있음을 나타낸다.
- ④ ㉣: 철수의 직전 발화 내용을 고려할 때 행위의 주체와 대상이 생략되었음을 알 수 있다.
- ⑤ ㉤: 과자를 건네는 영화의 행위와 마지막 물음에 담긴 의도를 고려할 때 제안을 거절하려는 철수의 심리가 담겨 있다.

고 3

[16~1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조선 건국 무렵 태조는 전국을 330여 개의 군현으로 ㉠ 편제하고 중앙에서 직접 수령을 파견하면서 그 직급을 6품 참서관으로 높여 자질과 권위를 확보하려 하였다. 이는 근무 연한을 채우면 7~9품의 관직에 진출할 수 있었던 서울의 이전(史典)들이 지방 수령으로 진출하는 것을 봉쇄하는 ㉡ 조치였다. 이에 따라 부족한 수령 자원은 6품 이상의 관원에게 천거하게 하였고 관찰사에게는 지방관 평가뿐 아니라 지방 사족 출신자들을 대상으로 한 적임자 ㉢ 발탁 권한을 주었다. 이렇게 하여 30개월 임기로 공명(公明), 엄근(廉謹) 등 덕행 항목에 우선권을 두어 평가하는 지방 수령 평가·임용 제도가 시행되었다.

태종이 즉위한 이후 수령의 업무가 표준화되었다. 이때 수령 7사가 제정되어 인구 증가와 농업 생산성 향상, 공정한 조세 부과, 학교 발전, 아전 농간 차단 등의 업무가 규정되었다. 일 년에 두 번 정기 평가가 실시되었고, 5회의 평가에서 2회 ‘중’ 평가를 받으면 파면되는 원칙도 마련되었다. 수령의 업무는 수치화된 결과와 실적만으로 평가되었고, 이후 이러한 원칙은 「경국대전」에 ㉣ 명문화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강화되었다.

한편 수령들의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 덕행에 의한 평가와 관찰사에 의한 현지 발탁은 폐지되었다. 그 대신 근무 기한을 채운 서울의 이전 중 10% 정도의 인원을 선발하여 잡직에 임명될 수 있게 하고, 그 임기가 만료되면 종6품의 수령직 대기자가 되도록 하였다. 이전 출신의 수령 진출을 통제하는 장치였지만, 한편으로 행정 능력을 갖춘 이전 출신자에게 수령 진출 기회를 부여한 것이었다.

세종에 이르러서는 수령의 지방 실정 파악을 어렵게 한다는 점에서 수령의 잦은 교체가 문제로 대두되었다. 그에 따라 수령의 임기가 60개월로 늘었으며 현지민의 수령 고소도 금지되었다. 임기 전 사임한 수령이 남은 임기 동안 다른 관직에 ㉤ 서용될 수 없게 하는 조치도 시행되었다. 자질 있는 수령의 확보를 위해 수령직 대기자인 이전 및 잡직자를 대상으로 수령취재법이 시행되어 사서와 삼경, 법전을 시험 보게 하였다. 또한 무관이 배정되었던 약 80여 곳의 수령 자리 중 국방상 중요한 50여 곳을 제외한 지역에는 행정 능력과 인품을 고려하도록 하였다.

평가 방식도 보완되었는데, 10회로 늘어난 평가 중 3~5회 ‘상’을 받으면 등급을 올려 주고, 5회 ‘중’을 받더라도 관품을 유지하게 하였으며, 연속으로 ‘중’을 받은 경우라도 10회의 평가를 받게 하여 임기를 채우도록 조치하였다. 이는 평가 방식을 포상 위주로 변경하여 수령의 업무 의욕을 고취하고 부정을 방지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지방 수령의 장기 근무로 인하여 지방 수령의 자질 저하와 경·외관(京外官)의 분화라는 부작용이 나타났다. 이는 조정이 원하는 방향은 아니었기 때문에, 공신 및 대신의 자제를 수령으로 파견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령직이 과거를 통해 문반직에 진출하지 못한 세력가 자제의 관직 진출로 활용되면서 수령직의 열등화는 오히려 더욱 분명해졌다. ㉦ 문과 출신의 우수한 인재를 수령으로 파견하는 조치가 단행된 것은 경·외관의 분화를 보완하기 위한 또 다른 방안이었다. 분화 현상 자체를 막을 수는 없지만, 우수한 자원을 일정 기간 외직으로 파견함으로써 중요 거점에라도 유능한 수령을 확보하려는 의도였다. 이들은 수령직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을 뿐 아니라, 통상적

으로 대간을 역임하기도 하였기에 주변의 수령들에 대한 비리 예방 효과가 있었다. 재판과 같은 전문적 업무나 대규모 토목 공사 등이 발생할 때, 이들은 관찰사가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자원이 되었다.

지방 수령의 장기 근무는 심각한 적체 현상을 낳기도 했다. 이에 따라 세조는 이전의 제도를 계승하면서도 수령의 임기는 30개월로 단축하였다. 그와 함께 우수한 평가를 받은 수령을 파격적으로 승진시키는 한편, 불법 행위를 한 수령은 즉각 징계하는 정책을 시행하였다. 이러한 평가 방식은 일시적인 효과는 기대할 수 있어도 안정적인 관직 운영 방식으로 정착되지 못했다.

성종 때 「경국대전」이 편찬되면서 관련 사항들이 명확히 정비되었다. 수령 7사가 규정으로 자리 잡고, 근무 기간도 60개월로 환원되었다. 평가에서 10회 ‘상’이면 품계를 올려 주고, 3회 ‘중’이면 파직, 2회 ‘중’은 녹봉이 없는 관직으로 임명하도록 명시하였다. 또한 4품의 관직에 승진하려면 외관직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여 서울과 지방 관원의 교류 원칙도 분명히 하였다. 이들 규정은 지방 세력가를 억제하면서 백성을 안집(安集)시키고 중앙의 덕화(德化)를 관철하고자 한 오랜 노력의 산물이었다.

16. 수령에 대한 각 시기별 평가 방식을 정리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태조: 지역 출신 수령을 대상으로 한 실적 위주의 평가
- ② 태종: 현지 파견 관리에 의한 덕성과 전문성 평가
- ③ 세종: 상대적 기준에 따른 지방 수령들 간의 상호 평가
- ④ 세조: 관례와 연공서열에 따른 연도별 평가
- ⑤ 성종: 표준화된 고과 시행을 토대로 한 절대적 평가

17.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임기 연장의 후속 조치로 시행되었다.
- ② 중요 거점의 효율적 통치를 의도하였다.
- ③ 관찰사가 책임지는 주요 업무에 유용하였다.
- ④ 인근 수령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유도하였다.
- ⑤ 서울과 지방 관원의 차별화 현상을 해소하였다.

18. 위 글을 통해 알 수 있는 지방관 제도의 변화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지방 수령의 출신 배경별 구성이 다양화되었다.
- ② 중앙 이전의 지방관 진출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었다.
- ③ 고위직 자제의 수령 진출로 수령직의 위상이 높아졌다.
- ④ 중앙과 지방의 관리에 대한 인사 제도가 이원화되었다.
- ⑤ 문·무 관원의 지방관 임명 비율이 균형을 이루게 되었다.

19. 이 글의 문맥상 ㉠~㉢의 사전적 정의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어떤 조직이나 기구를 편성하여 체제를 조직함. 또는 그 기구나 체제.
- ② ㉡: 제기된 문제나 일을 잘 정돈하여 처리함. 또는 그러한 방식.
- ③ ㉢: 여러 사람 가운데서 쓸 사람을 뽑음.
- ④ ㉣: 세상에 나 있는 좋은 소문.
- ⑤ ㉤: 죄를 지어 면관(免官)되었던 사람을 다시 벼슬자리에 등용함.

[20~2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초현실주의 예술 운동은 1924년 앙드레 브르통의 ‘초현실주의 선언’을 계기로 하여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초현실주의 선언에서 앙드레 브르통은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한 종래의 세계관이 지닌 허구성을 직시하고, 이를 통해 예술이 추구해야 할 비전으로 이성과 논리의 울타리 밖에 존재하는 무의식 세계를 제시하였다.

브르통은 삶과 예술을 이성적으로 바라보는 사실주의적 태도를 비판하였다. 그는 사실보다는 그 이면에 내재하고 있는 무의식 속의 환상과 경이, 그리고 그것을 표현하기 위한 자유로운 상상력을 강조하였다. 지금까지의 예술이 표방해 왔던 심미적이고 윤리적인 의식에 방해 받지 않는 자유로운 상상력이야말로 무의식 세계가 지닌 신비로운 이미지에 접근해 갈 수 있는 중요한 힘이라고 믿었다. 이러한 무의식 세계에 대한 초현실주의의 관심은 프로이트의 정신 분석학에 힘입은 것이었다. 정신 분석학에서 무의식은 꿈이라는 특정한 통로를 통해 은밀하게 그 모습을 암시해 준다고 보았고, 이에 따라 초현실주의 미술에서는 불가사의한 무의식 세계를 엿볼 수 있는 꿈을 형상화하는 데 주력하게 되었다.

브르통은 메시지의 전달이라는 관습에서의 해방과 예술의 절대적 자유를 보증하는 초현실주의의 핵심적인 방법론으로 자동기술법을 주장하였다. 자동기술법은 그때그때 우연하게 생겨난 이미지들을 자유로운 상상력으로 표출해 나가는 방법으로, 브르통은 이 자동기술법을 통해 현실에 의해 가려져 있던 삶의 심연과 무의식 세계를 드러낼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초현실주의 작가들은 자동기술법이라는 새로운 창작 이론을 근거로 하여 독창적인 여러 가지 표현 기법을 창안해 냈다. 프로타주, 데페이즈망, 콜라주 등이 그것인데, 프로타주는 나뭇결이나 거친 물체면 위에 종이를 대고 연필로 문질렀을 때 우연히 나타나는 이미지를 회화에 적용하는 기법이고, 데페이즈망은 각기 다른 이미지의 엉뚱한 결합을 통해 일상의 관념이나 시각적 질서 체제를 뒤집어 꿈에서와 같은 환상적 이미지를 창조하는 기법이다. 콜라주는 화면에 인쇄물, 천, 쇠붙이, 모래 등의 이질적인 물질을 아무 관련성 없이 재배치하여 무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는 환상적인 이미지 세계를 창조하는 기법이다. 이러한 다양한 표현 기법들은 무의식 세계를 표현하는 데 필요한 우연적 이미지와 자유로운 상상력을 중시하여 창안된 것으로, 초현실주의 회화를 더욱 풍성하게 해 주는 데 기여하였다.

초현실주의는 합리적, 이성적 사유에 얽매어 있던 근대 서구의 세계관을 비판하면서 무의식의 세계라는 새로운 예술의 지평을 열어 가고자 했던 혁신적인 운동이었다. 틀에 박히지 않은 자유로운 상상력을 중시하는 현대 미술의 개방적인 예술관이 ㉠ 초현실주의가 개척하고 제시한 비전에 그 근간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초현실주의가 20세기 현대 미술에 끼친 영향력을 짐작할 수 있다.

20.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초현실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계기를 소개하고 있다.
- ② 초현실주의가 현대 미술에 끼친 영향력을 평가하고 있다.
- ③ 초현실주의의 탄생에 기여한 학문적 배경을 언급하고 있다.
- ④ 초현실주의가 중시한 핵심적인 창작 방법론을 설명하고 있다.
- ⑤ 초현실주의가 미술 이외의 영역으로 확산된 과정을 서술하고 있다.

21.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에른스트, 「탈주자」

초현실주의 화가인 막스 에른스트는 비가 내리던 날 저녁에 한참 동안 마룻바닥의 나뭇결무늬를 바라보았다. 그러다가 아무 생각 없이 마룻바닥에 종이를 대고 연필로 문질러 보았다. 그 결과 종이에 는 참으로 신기한 환각적 영상이 새겨졌다. 에른스트는 이때 나

타난 우연적인 이미지에 자신의 상상력을 가미하여, 무의식의 세계에서나 볼 수 있는 불가사의한 이미지를 형상화하게 되었다.

- ① 마룻바닥에 종이를 대고 연필로 문지른 영상을 작품화한 것으로 보아 프로타주 기법을 사용한 것이군.
- ② 일상적인 관념에서 벗어난 불가사의한 모습을 그렸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합리적인 사유 방식에 근거한 작품은 아니군.
- ③ 기존 예술이 표방했던 심미적 의식에 얽매이지 않고 꿈속에서나 볼 수 있을 법한 무의식 세계를 그린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④ 작품이 환기하는 이미지보다는 근대 서구의 합리적 이성에 대한 비판이라는 메시지의 전달에 초점을 둔 작품이라고 할 수 있군.
- ⑤ 우연히 발견한 이미지에 자신의 상상력을 가미하여 그렸다는 점에서 예술의 절대적 자유를 중시한 초현실주의의 경향을 엿볼 수 있군.

22. ㉠을 가장 잘 이해한 것은?

- ① 기존 회화가 표방한 예술적 가치를 창의적인 방법으로 계승하는 것
- ② 시대 의식을 사실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참신한 기법을 개발하는 것
- ③ 이성 너머의 세계에 대한 인간의 관심을 예술의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것
- ④ 근대의 합리적인 세계관이 추구한 긍정적 가치를 예술 작품에 담아내는 것
- ⑤ 현실 세계의 문제를 외면하지 않는 비판 정신을 예술 작품으로 형상화하는 것

[23~2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깨끗한 절개를 지닌 원자허(元子虛)가 야(野)에 묻혀 살아가던 어느 날 밤, 책을 뒤적거리다가 밤이 이슬해지자 책상에 기대어 잠이 든다. 꿈속에서 어느 강 언덕에 이르렀는데 달빛은 낮처럼 밝고 물빛은 비단을 편 듯 아름다웠다. 그는 홀연히 눈을 들어 긴 휘파람 소리를 내며 시를 낭랑히 읊는다.

시 읊기를 끝내고 주위를 서성이고 있을 무렵, 별안간 저 쪽 먼 곳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 왔다. 그리고는 얼마 안 돼 갈꽃 깊은 곳에서 아름다운 사내 하나가 나타났다. 그는 야복(野服)1)에 복건을 썼으며, 정신이 맑고 눈썹이 빼어나 옛날 수양의 모습을 지닌 듯하였다. 그는 자허의 앞에 나와 고개 숙여 인사를 하며,

“어찌 이렇게 늦게 오셨습니까? 전하께서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였다. 자허는 그가 산귀신이나 물귀신이 아닌가 하고는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다. 그러나 그의 얼굴이 준수하고 행동이 단아한 것을 보고는 자허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속으로 그를 칭찬하였다.

자허는 그의 뒤를 따라 걸어갔다. 그 곳에는 정자 한 채가 우뚝 솟아 강을 굽어보고 있었다. 그 위에 임금이 난간에 의지하여 앉아 있고 그 곁에는 벼슬아치의 옷을 입은 다섯 사람이 임금을 모시고 있었다. 그들은 이 세상의 호걸로 용모가 당당하고 풍채가 늠름하였다. 또한 가슴에는 고마 도해(叩馬蹈海)2)의 의리와, 경천 봉일(擎天捧日)3)의 충성을 간직하고 있어, 참으로 육 척의 고아(孤兒)도 부탁할 만한 사람이었다.

그들은 자허가 오는 것을 보고 일제히 마중을 나왔다. 자허는 먼저 왕에게 나아가 문안을 여쭙고 되돌아 와서 각자 자리에 앉기를 기다렸다가 맨 끝에 앉았다. 자허는 어떻게 된 까닭인지 알 수 없어서 마음속으로 몹시 불안해하고 있었다. 그때 임금이 말하였다.

“내 항상 경의 꽃다운 지조를 그리워하였소. 오늘 이 아름다운 밤에 우연히 만났으니 조금도 이상하게 생각 마오.”

자허는 그제야 의심을 거두고 일어서서 은혜에 감사하였다.

그 후 자리가 정해지자 그들은 고금(古今) 국가의 흥망을 흥미진진하게 논하였다. 복건 쓴 이는 탄식하면서

“옛날 요·순·우·탕은 만고의 죄인입니다. 그들 때문에 뒷세상에 여우처럼 아양 부려 임금의 자리를 뺏은 자가, 선위(禪位)4)를 빙자하여 신하로서 임금을 치고서도 정의를 외쳤습니다. 그러니 네 임금이야말로 도둑의 시초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라고 말했다.

그러자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왕은 ㉠ 얼굴빛을 바로잡고,

“아니오. 경은 이게 대체 무슨 말이오? 네 임금이 무슨 허물이 있겠소? 다만 그들을 빙자하는 놈들이 도적이 아니겠소?”

하고 말했다. 그러자 복건 쓴 이는 머리를 조아리고 절하며,

“마음속에 불평이 쌓여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지나치게 분개했습니다.”

하며 사과했다.

그러자 임금은 “그렇게 미안해할 필요는 없소. 오늘은 귀한 손님이 이 자리에 오셨는데 다른 이야기가 무슨 필요 있겠소. 다만 달은 밝고 바람이 맑으니, 이렇게 아름다운 밤을 어찌 그냥 보내겠소?”

하고 마을에 사람을 보내 술을 사 오게 했다. 술이 몇 잔 돌아 왕은 흐느껴 울며 말했다.

“경들은 각기 자기의 뜻을 말하여 남몰래 품은 원한을 풀어 봄이 어떠할꼬?”(중략)

얼마 되지 않아서 어떤 기이한 사내 하나가 뛰어들었는데, 그는 썩썩한 무인(武人)이었다. 키가 크고, 용맹이 뛰어났으며, 얼굴은 포갠 대추와 같고, 눈은 샛별처럼 번쩍였다. 그는 옛날 문천상5)의 정의와 진중자6)의 맑음을 모두 가지고 있어, 그 늙름한 모습은 사람들에게 공경심을 일으키게 했다. 그는 왕 앞에 나아가 인사를 드린 뒤 다섯 사람들을 돌아보며,

“애닭다. 썩은 선비들아. 그대들과 무슨 대사(大事)를 꾸렸단 말인가?”

하고, 곧 칼을 뽑아 일어서서 춤을 추며 슬피 노래를 부르는데 그 마음은 강개하고, 그 소리는 큰 종을 울리는 듯 싶었다.

바람이 쓸쓸하여 잎 지고 물결 찬데
칼 안고 휘파람 길게 부니 북두성은 기울었네.
살아서 충성하고 죽어서는 굳센 혼을 마음에 품으니
어찌 강에 비친 한 조각 둥근 달과 같겠는가.

노래가 끝나기 전에 달은 검고 구름은 슬픈 듯, 비바람은 트림하듯 큰 소리로 우는데, 갑자기 벼락치는 소리가 크게 나 그들은 모두 깜짝 놀라 흩어졌다. 자허도 역시 놀라 깨어 보니 모두 한바탕 꿈이었다.

자허의 벗 해월 거사는 이 꿈 이야기를 듣고 원통하고 분해하며,

“예로부터 임금과 신하가 모두 어둡고 흐려 끝내 나라를 잃은 일이 많았네. 그런데 임금도 현명하고 여섯 신하도 또한 모두 충성스러운 선비였구려. 어찌 이처럼 임금이 나올 수 있으며, 이처럼 충성스러운 신하들이 있을 수 있겠는가? 그런데도 멸망의 화가 닥쳤으니 정말로 참혹할 뿐이네. 아아, 슬프고 슬프니, 이것이 정말 하늘의 뜻이란 말인가. 하늘의 뜻이라면 착한 이에게 복을 주며, 악한 놈에게 재앙을 주어야 하는 게 아닌가. 그러나 만일 이것이 하늘의 뜻이라면 어둡고 막연하여 그 이치를 자세히 알기 어려울 것일세. 그러니 이 세상에 한갓 지사(志士)의 한(恨)만 더할 뿐이구려.”

하고 말하였다.
- 작자 미상, ‘원생몽유록’

[어휘 풀이]
1) 야복(野服) : 벼슬아치가 아닌 일반인의 옷
2) 고마 도해(叩馬蹈海) : 고마란 ‘말 앞에서 머리를 조아린다.’는 뜻이고, 도해는 ‘바다에 몸을 던진다.’는 뜻임. 고마는 주나라 무왕이 은나라 주임금을 치러 갈 때, 백이와 숙제가 말고삐를 잡고 막았다는 고사에서 유래한 말이고, 도해는 춘추 전국 시대 노중련이라는 의로운 선비가 신원연이 진나라를 제국으로 높이겠다고 한 말을 듣고 바다에 몸을 던져 죽으려 했다는 고사에서 나온 말임.

- 3) 경천 봉일(擎天捧日) : 하늘을 높이 받들고, 해를 받들므로 여기서는 임금을 높이 받들.
- 4) 선위(禪位) : 임금이 살아 있는 동안 다음 임금에 왕위를 물려줌.
- 5) 문천상 : 중국 남송의 충신
- 6) 진중자(陳仲子) : 중국 제나라에 살았던 청렴한 선비

23. <보기>는 학교 도서관 게시판에 이 글에 대한 감상을 올린 것이다. 감상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제목 : ① 부조리한 인간사에 대한 비판 의식을 우회적으로 담아.....
ID : 충환이

이 작품은 주인공 원자허가 꿈속에서 단종과 사육신(死六臣)을 만나 ② 국가의 흥망과 관련된 그들의 토론과 마음속 원한을 듣고 돌아오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작품이 흥미를 끄는 것은 특이하게도 ‘몽유(夢遊)’라는 허구적인 수법을 통해 사건을 전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③ 인물의 대화와 함께 서술자의 논평이 가미되어 있어서 작중 상황을 쉽게 파악할 수 있고, ④ 운문을 삽입해서 작품의 처연하고 애상적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는 것도 색다른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작품의 결말에서는 ⑤ 해월 거사가 등장하여 세상사는 하늘의 이치를 따르는 것이라며 이를 근거로 부조리한 현실을 비판하면서 주제 의식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24. 수업 시간에 선생님께서 <보기>와 같은 과제를 제시하였다. 과제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학생은? [3점]

<보기>
선생님 : 몽유록 소설의 효시인 이 글과 몽자류 소설의 효시인 ‘구운몽’의 줄거리를 보고 두 글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분석해 보도록 합시다.

[구운몽의 줄거리] 육관 대사의 제자 성진은 용궁에 다녀오는 길에 팔 선녀와 만나 수작을 한다. 성진은 팔 선녀의 아름다움과 세속의 부귀 공명으로 번뇌하다가 육관 대사의 명으로 팔 선녀와 함께 인간 세계로 추방된다. 양 처사의 아들 소유로 환생한 성진은 입신양명하는 과정에서 팔 선녀를 만나 처첩으로 삼고 부귀 영화를 누린다. 은퇴한 그가 인생의 덧없음을 한탄할 때, 한 호승이 나타나 그의 꿈을 깨운다. 이 모든 것이 꿈이었음을 깨달은 성진은 팔 선녀와 함께 불도에 정진해 극락으로 간다.

- ① 영미: 이 글과 달리 <보기>의 주인공은 입몽(入夢)과 각몽(覺夢)의 과정이 다른 인물에 의해 주도되는 피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 ② 민정: 이 글에서의 꿈은 현실의 불만을 표출하는 공간으로, <보기>에서의 꿈은 인생무상을 깨닫게 되는 공간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고 3

- ③ 철민: <보기>와 달리 이 글의 주인공은 꿈꾸기 이전의 자신과 동일한 의식을 유지한 채 꿈속에서 일련의 일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 ④ 태현: 이 글과 <보기> 모두 ‘현실 → 꿈 → 현실’로 이어지는 액자식 구성을 통해 이원화된 서사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 ⑤ 현주: 이 글과 <보기> 모두 이질적인 두 세계의 대립 구도를 바탕으로 주인공의 내적 갈등이 해소되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25. [A]와 <보기>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화자의 심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새와 짐승들도 슬피 울고 강산도 찡그리니,
 무궁화 온 세상이 이젠 망해 버렸어라.
 가을 등불 아래 책 덮고 지난날 생각하니,
 인간 세상에 글 아는 사람 노릇, 어렵기도 하구나.
 - 황현, ‘절명시(絶命詩)’

- ① 자연물과의 정서적 일체감
- ② 지난날에 대한 회고의 정
- ③ 부당한 시대 현실에 대한 비통함
- ④ 지식인으로서 겪는 현실적인 고뇌
- ⑤ 소중한 대상을 잃은 것에 대한 절망감

26. 이 글을 영화화하려고 할 때, ㉠을 나타내는 지시문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생색을 내며
- ② 반색을 하며
- ③ 정색을 하며
- ④ 사색이 되어
- ⑤ 화색을 띠며

[27~3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고갯길에 다다랐다. 이 고개는 해방 전전 해 성삼이가 삼팔 이남 천대 부근으로 이사 가기까지 덕재와 더불어 늘 꼴 베러 넘나들던 고개다.

성삼이는 와락 저도 모를 화가 치밀어 고함을 질렀다.

㉠“이 자식아, 그 동안 사람을 몇이나 죽였냐?”

그제야 덕재가 힐끗 이쪽을 바라다보더니 다시 고개를 거둔다.

“이 자식아, 사람 몇이나 죽였어?”

덕재가 다시 고개를 이리로 돌린다. 그리고는 성삼이를 쏘아본다. 그 눈이 점점 빛을 더해 가며 제법 수염발 잡힌 입 언저리가 실룩거리더니,

“그래 너는 사람을 그렇게 죽여 봤니?”

㉡ 이 자식아! 그러면서도 성삼이의 가슴 한복판이 환해짐을 느낀다. 막혔던 무엇이 풀려 내리는 것만 같은.

그러나,

“농민동맹 부위원장쯤 지낸 놈이 왜 피하지 았구 있었어? 필시 무슨 사명을 띠구 잠복해 있는 거지?”

덕재는 말이 없다.

“바른 대루 말해라. 무슨 사명을 띠구 숨어 있었냐?”

그냥 덕재는 잠잠히 걸기만 한다. 역시 이 자식 속이 풀리는 모양이구나. 이런 때 한번 낯짝을 봤으면 좋겠는데 외면한 채 다시는 고개를 돌리지 않는다.

성삼이는 허리에 찬 권총을 잡으며,

“변명은 소용없다. 영락없이 넌 총살감이니까. 그저 여기서 바른 대루 말이나 해봐라.”

덕재는 그냥 외면한 채,

“변명은 할려구두 았는다. 내가 제일 빈농의 자식인 데다가 근농꾼이라구 해서 농민동맹 부위원장 됐든 게 죽을죄라 하면 하는 수 없는 거구, 나는 예나 이제나 땅 파먹는 제주밖에 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잠시 사이를 두어,

㉢ “지금 집에 아버지가 았아 누웠다. 벌써 한 반년 된다.”

덕재 아버지는 홀아버로 덕재 하나만 데리고 늙어 오는 빈농꾼이었다. 칠 년 전에 벌써 허리가 굽고 검버섯이 돋은 얼굴이었다.

(중략)

그러나 이런 때 그런 일로 웃거나 농담을 할 처지가 아니라는 걸 깨달으며,

“하여튼 네가 피하지 았구 남아 있는 건 수상하지 았어?”

“나두 피하려구 했었어. 이번에 이남서 쳐들어오른 사내란 사넨 모주리 잡아 죽인다고 열일곱에서 마흔 살까지의 남자는 강제루 북으로 이동하게 됐었어. 할 수 없이 나두 아버질 업구라두 피난 갈까 했지. 그랬드니 아버지가 안 된다는 거야. 농사꾼이 다 지어 놓은 농살 내버려두구 어딜 간단 말이나구. 그래 나만 믿구 농사일루 늙으신 아버지의 마지막 눈이나 내 손으루 감겨 드려야겠구, 사실 우리같 이 땅이나 파먹는 것이 피난 간됐자 별수 있는 것두 아니구…….”

지난 유월달에는 성삼이 편에서 피난을 갔었다. 밤에 몰래 아버

지더러 피난 갈 이야기를 했다. 그때 성삼이 아버지도 같은 말을 했다. 농사꾼이 농사일을 늘어놓구 어디루 피난 간단 말이나. 성삼이 혼자서 피난을 갔다. 남쪽 어느 낫설은 거리와 촌락을 헤매 다니면서 언제나 머리에서 떠나지 않는 건 늙은 부모와 어린 처자에게 맡기고 나온 농사일이었다. 다행히 그때나 이제나 자기네 식구들은 몸 성히들 있다.

㉠ 고갯마루를 넘었다. 어느새 이번에는 성삼이 편에서 외면을 하고 걷고 있었다. 가을 햇볕이 자꾸 이마에 따가웠다. 참 오늘 같은 날은 타작하기에 꼭 알맞은 날씨라고 생각했다.

고개를 다 내려온 곳에서 성삼이는 주춤 발걸음을 멈추었다. 저쪽 별 한가운데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이 허리를 굽히고 섰는 것 같은 것은 틀림없는 학때였다. 소위 삼팔선 완충 지대가 되었던 이곳.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은 그동안에도 이들 학들만은 전대로 살고 있는 것이었다.

지난날 성삼이와 덕재가 아직 열두어 살쯤 났을 때 일이었다. 어른들 몰래 둘이서 울가미를 놓아 여기 학 한 마리를 잡은 일이 있었다. 단정학이었다. 새끼로 날개까지 엮어매 놓고는 매일같이 둘이서 나와 학의 목을 쓸어안는다, 등에 올라탄다, 야단을 했다. 그러한 어느 날이었다. 동네 어른들의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서울서 누가 학을 쏘러 왔다는 것이다. 무슨 표본인가를 만들기 위해서 총독부의 허가까지 맡아 가지고 왔다는 것이다. 그 길로 둘이는 별로 내달렸다. 이제는 어른들한테 들켜 꾸지람 듣는 것 같은 건 문제가 아니었다. 그저 자기네의 학이 죽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뿐이었다. 숨 돌릴 겨를도 없이 잡풀 새를 기어 학 발목의 울가미를 풀고 날개의 새끼를 끝렸다. 그런데 학은 잘 걷지도 못하는 것이다. 그 동안 엮매여 시달린 탓이리라. 둘이서 학을 마주 안아 공중에 투쳤다. 별안간 총소리가 들렸다. 학이 두서너 번 날갯짓을 하다가 그대로 내려왔다. 맞았구나. 그러나 다음 순간, 바로 옆 풀숲에서 필력 단정학 한 마리가 날개를 퍼자 땅에 내려앉았던 자기네 학도 긴 목을 뽑아 한번 울음을 울더니 그대로 공중에 날아올라, 두 소년의 머리 위에 둥그러미를 그리며 저쪽 멀리로 날아가 버리는 것이었다. 두 소년은 언제까지나 자기네 학이 사라진 푸른 하늘에서 눈을 땀 줄을 몰랐다.....

“애, 우리 학 사냥이나 한번 하구 가자.”
 성삼이가 불쑥 이런 말을 했다.
 덕재는 무슨 영문인지 몰라 어리둥절해 있는데,
 “내 이걸루 울가미 만들어 놀게 너 학을 몰아오너라.”
 포승줄을 풀어 쥐더니, 어느새 성삼이는 잡풀 새로 기는 걸음을 쳤다.

㉡ 대번 덕재의 얼굴에서 핏기가 걸렸다. 좀 전에, 너는 총살감이라던 말이 퍼뜩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이제 성삼이가 기어가는 쪽 어디서 총알이 날아오리라.

저만치서 성삼이가 핵 고개를 돌렸다.
 ㉢ “어이, 왜 멍추같이 게 섰는 게야? 어서 학이나 몰아오너라!”
 그제서야 덕재도 무엇을 깨달은 듯 잡풀 새를 기기 시작했다.
 때마침 단정학 두세 마리가 높푸른 가을 하늘에 큰 날개를 펴고 유유히 날고 있었다.

- 황순원, '학'

27.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서술자가 인물과 사건에 대해 직접적으로 개입하여 논평하고 있다.
 - ② 인물의 행동과 대화에 의한 극적 제시 방법으로 사건 서술을 일관하고 있다.
 - ③ 서술자가 주관을 배제하고 객관적인 태도로 외부적인 사실만을 묘사하고 있다.
 - ④ 서술자가 각 인물의 심리 상태를 서술하되 주로 특정 인물의 심리에 초점을 두고 있다.
 - ⑤ 부수적인 인물이 서술자가 되어 자신의 눈에 비친 대로 주요 인물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28.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에 나오는 '학'에 대해 토의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황순원의 소설 「학」은 전쟁과 이념을 넘어선 따뜻한 우정을 그린 작품이다. 이 작품에서 우리 민족을 상징하는 '학'은 우정의 회복뿐 아니라 전쟁의 상처 극복이라는 주제를 구현하는 데 효과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 ① 학들이 '삼팔선 완충 지대'에서 살고 있다는 설정으로 볼 때, 학은 당시 사람들이 바라던 평화를 상징한다고 할 수 있어.
- ② 과거 학이 울가미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하늘을 날던 장면과 비슷한 장면이 현재에도 펼쳐지는 것으로 볼 때, 현재의 학은 자유를 찾게 된 '덕재'를 의미해.
- ③ 성삼이 학을 통해 덕재와 보냈던 순박했던 어린 시절을 생각하는 것으로 볼 때, 학은 성삼에게 두 사람의 따뜻한 우정을 떠올리게 하는 매개체야.
- ④ 어린 성삼과 덕재가 쳐 놓은 울가미에 걸려 괴롭힘을 당하는 학은 앞으로 전쟁 중에 성삼과 덕재가 극한 대립을 하게 될 것임을 암시하고 있어.
- ⑤ 총격을 당해 죽었으리라 생각했던 학이 다시 하늘로 날아오른 것은 전쟁의 고통을 겪은 우리 민족이 그 상처를 딛고 일어날 것이라는 걸 상징한다고 할 수 있어.

29.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성삼’은 친구였던 ‘덕재’가 지금은 적이 된 사실에 화를 내고 있다.
- ② ㉡: ‘성삼’은 ‘덕재’가 사람을 죽이지 않았으리라는 생각에 안심하고 있다.
- ③ ㉢: ‘덕재’는 ‘아버지’때문에 고향을 떠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다.
- ④ ㉣: ‘덕재’는 ‘성삼’이 자신을 죽이기 위해 풀어 준 것이라고 여기고 있다.
- ⑤ ㉤: ‘성삼’은 어린 시절 놓쳤던 학을 다시 잡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30. 윗글의 흐름으로 볼 때, ㉡의 서사적 기능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 ① 극적 긴장감을 유발시키는 기능을 하고 있구나.
- ② 인물 간의 갈등이 해소될 것을 암시하고 있구나.
- ③ 새로운 인물의 등장을 예고하는 역할을 하는구나.
- ④ 인물들에게 일어날 불행한 사건의 복선 역할을 하는구나.
- ⑤ 사건이 파국으로 향해 가고 있음을 알리는 역할을 하는구나.

[31~32]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이윽고 술이 끝났다. 모가지 째까지 벌정도록 취해서 나서는 간평원들! 금테 안경을 쓴 진수 아내가 사립 밖까지 나와서 배웅을 하자, 그들은 인도하는 진수의 뒤를 따라서 단장과 함께 비틀거렸다. 그러한 그들의 뒤에는, 얼굴이 노랗고 여윈 소작인들이 ㉠ 마치 유형수(流刑囚)처럼 묵묵히 따랐다.

술 취한 양반들에게 옳은 간평이 될 리 없었다. 그저 작인들의 말은 마이동풍 격으로, 논두렁에도 바투이 들어서 보는 법도 없이 다만 진수하고만 알아듣지도 못할 왜말을 주절거리면서, 그야말로 ㉡ 처삼촌 산소 벌초하듯이 흐지부지 지나갈 뿐이었다. 그러면서도 짐짓 성실한 듯이 이따금 단장을 쳐들어 여기저기를 가리키기도 하고, 혹은 수첩에 무엇인가를 적어 넣으면서, 그렇게 허수아비처럼 흐느적거리며 들개의 눈 곁을 지날 때였다.

“왜 메밀을 갈았소?”

시봉은 들개의 수인사 대답으로 이렇게 물었다.

“헐 수 있어야죠. 마른 모포기 기다렸댔자 열음 앓을 게고…….”

들개는 한 손에는 콩대, 한 손에는 낫을 든 채 열적게 대답했다.

“메밀은 잘 됐구먼.”

㉢ “뭘요, 이것도 늦게 뿌려서…….”

들개는 시봉의 다음 말을 두려워하는 태도였다.

다른 사람들은 슬금슬금 앞 두렁으로 걸어갔다. 거기서는 아기를 등에 업은 들개의 아내와 누이동생이 바쁘게 두렁콩을 베고 있었다. 덕아는 열일곱의 처녀로서는 놀랄 만큼 어깻죽지가 벌어지고, 돌아앉은 뒷모습이 한결 탐스러웠다. 자기 뒤에 가까이 낫선 사내들이 와 선 것을 깨닫자, 폭 눌러 쓴 수건 밑으로 엿보이는 두 불이 적이 붙어진 듯은 하나, 낫을 든 손은 여전히 쉼 새가 없었다.

“오빠! 왜 암말도 못 했소?”

간평꾼들이 물러가자, 덕아는 시무룩해 가지고 돌아오는 들개를 안타까운 듯이 쳐다보았다.

“말은 무슨 말을 해?”

“세 좀 매지 말라구…….”

“그놈들 제멋대로 매는 걸 어떻게.”

“그럼 오빠는 이까짓 메밀 간 세도 바치려네?”

덕아는 자못 서글퍼하는 말씨였다.

“글쎄, 먹고 남으면 바치지!”

들개는 픽 웃었다. 그는 최근에 와서 갑자기 무던히 배짱이 커졌다.

덕아는 오빠의 말에 확실히 일종의 미더움을 느꼈다. 그러나 허리에 낫을 여전히 꽂은 채 담배만 뽀뽀 피우고 앉은 오빠의 마음속은 결코 그리 후련한 것은 아니었다. ㉣ 그렇다고 해서 메밀밭위를 바빠 나는 고추잠자리처럼 조급하지도 않았지만.

이튿날 저녁, 동네 사람들은 진수의 집 사랑에 불러 가서, 진수의 입으로부터 제각기 소작료를 들어 알았다. 그리고 그 무서운 결정에 다들 놀랐다.

그러나 가장 현대적 마름인 소위 평의원 앞에서, 버릇없이 덤뽀 불평을 늘어놓다가는 어느 수작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형편이라,

작인들은 내남없이,
 “허 참! 툭툭 다 떨어 봐두 그렇게 될 등 말 등한데.....?”
 ㉠ 따위의 떡심 풀린 걱정 말이나 중얼거릴 뿐 모두 맥없이 돌아
 갔다.

들깨와 철한이들 — 이 동네 교풍 회장인 쇠다리 주사의 말
 을 빌리면 동네서 제일 콧등이 세고 어긋한 놈들은, 벌써 버
 린이 되어서, 미리 의논이라도 한 듯이, 그날 밤에도 진수의
 집에서 나오자 슬슬 야학당으로 모여들었다. 어느새 왔는지
 [A 곰보 고 서방도 작은 방 한쪽 구석에 다른 때보다 한풀 더
] 힘 없이 쭈그리고 앉아 있었다. 이윽고 불강아지* 새끼 같은
 야학생들을 죄 돌려보내고는, 까만 딱지 또쭤이가 큰 방으로
 부터 돌아왔다. 더필더필 자란 머리털 위에 분필 가루를 허
 영게 쓰고. —서른세 살로서는 엄청나게 늙어 보이는 얼굴이
 었다.

이렇게 소위 콧등이 센 놈들은 저녁마다 야학당에 모여서, 그날
 그날의 피로를 잊어 가며 잡담도 하고 농담들도 하다가는, 또쭤이
 로부터 일본의 탄광 이야기도 듣고, 또 이곳저곳에서 일어나는 소
 작 쟁의 얘기도 들었다. 더구나 소작 쟁의에 관한 이야기는 마치
 자기들의 일같이 눈을 깜벅거리며, 혹은 입을 다물고 들었다.

그날 밤에도 그들은 이속도록 거기 모여서 놀았다. 그러다가 마
 침내, 나을 곳 없는 그해 소작료를 어떻게 할까 하는 말이 누구의
 입에선지 나오게 되었다.

- 김정환, ‘사하촌’

(나)

김정환의 「사하촌」은 가뭄이라는 자연재해로 인해 소작 제도의
 모순이 극에 달한 상황을 제시하면서 일제 치하의 모순된 농촌
 현실을 사실적으로 그려 낸 작품이다. 일제 수탈의 앞잡이인 순
 사, 군청 주사, 농사 조합 평의원, 보광사 중들로 이루어진 지주
 계층은 온갖 방법으로 농민을 수탈한다. 농민들은 이들의 횡포에
 당하기만 하다가 결말에 가서는 결국 생존을 위해 저항을 택하게
 된다.

*불강아지: 몸이 바짝 여윈 강아지.

31. ㉠~㉣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간평원들이 자신들의 목숨줄을 쥐고 있음을 알고 주눅 들
 어 있는 소작인들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 ② ㉡: 농사의 잘되고 못됨을 따지고 평가하는 것에 별반 관심이
 없는 간평원들의 태도를 그리고 있다.
 - ③ ㉢: 소작을 부치고 있는 들깨가 지주 및 간평원들에게 잘 보이
 려고 찢찢매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 ④ ㉣: 메밀밭 위를 날고 있는 고추잠자리와의 비유를 통해 상황
 에 대한 들깨의 심리를 나타내고 있다.
 - ⑤ ㉣: 앞으로의 일에 대한 염려 때문에 자신들의 속마음을 드러
 내지 못하는 소작인들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다.

32. (나)를 참고하여 (가)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은? [3점]
- ① ‘진수’는 현대적 마름인 농사 조합 평의원으로, 농민을 수탈하
 는 계층에 속한다고 할 수 있군.
 - ② ‘떡아’는 지주 계층의 횡포에 대해 아무 말도 못하고 당하기만
 하는 상황에 대해 안타까워하는군.
 - ③ ‘시봉’은 ‘들깨’와 같은 처지의 농민으로 모순된 농촌 현실로 인
 한 농민들의 고충을 ‘간평원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군.
 - ④ ‘또쭤이’는 동네 사람들에게 다른 공간에서 벌어진 모순된 현실
 과 관련한 사건들에 대해 알려 주는 역할을 하고 있군.
 - ⑤ 가뭄으로 인해 모내기를 포기하고 메밀을 대신 경작한 ‘들깨’의
 상황으로 볼 때, 지주 계층이 매긴 지나치게 높은 소작료는 농민
 들의 저항을 불러올 수밖에 없겠군.

고 3

[33~37]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前腔) 내 님플 그리스와 유니다니
 (中腔) ㉠ 山(산) 접동새 난 이숫흐요이다1).
 (後腔) 아니시며 거즈르신 들2) 아으
 (附葉) ㉡ 殘月曉星(잔월효성)이 아르시리이다.
 (大葉) 녀시라도 님은 혼딤 녀져라3) 아으
 (附葉) 버기더시니4) 뉘러시니잇가.
 (二葉) 過(과)도 허믈도 千萬(천만) 업소이다.
 (三葉) 뉘릿마리신더5)
 (四葉) 슬웃븐더6) 아으
 (附葉) 니미 나를 흐마 니즈시니잇가.
 (五葉) 아소 님하, 도람 드르샤 괴오쇼셔.

- 정서, '정과정'

[어휘 풀이]

- 1) 이숫흐요이다 : 비슷합니다.
- 2) 거즈르신 달 : 거짓인(허황된) 줄을.
- 3) 혼딤 녀져라 : 함께 살아가고 싶습니다.
- 4) 버기더시니 : 우기시던 이. 험뜯던 이.
- 5) 뉘릿마리신더 : 못 사람들의 참언(讖言)입니다.
- 6) 슬웃븐더 : 슬픕니다.
- 7) 도람 : 돌이켜

[나]

나는 ㉠ 나룻배
당신은 행인.

당신은 ㉡ 흙밭로 나를 짓밟습니다.
 나는 당신을 안고 물을 건너갑니다.
 나는 당신을 안으면 깊으나 얕으나 급한 여울이나 건너갑니다.

만일 당신이 아니 오시면 나는 바람을 쐬고 ㉢ 눈비를 맞으며 밤
에서 낮까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은 물만 건너면 나를 돌아보지도 않고 가십니다그러.
 그러나 당신이 언제든지 오실 줄만은 알아요.
 나는 당신을 기다리면서 날마다 날마다 낡아 갑니다.

나는 나룻배
당신은 행인.

- 한용운, '나룻배와 행인'

[다]

이른 새벽

[A] 강으로 나가는 내 발걸음에는
아직도 달콤한 잠의 향기가 묻어 있습니다.

그럴 때면 나는
 [B] 산자락을 타고 내려온 바람 중
 눈빛 초롱하고 허리통 굽은 몇 울을 끌어다
 눈에 ㉢ 생채기가 날만큼 부벼댁니다.

지난밤,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C] 내 낡은 ㉣ 나룻배는 강둑에 매인 채 출렁이고
 작은 물새 두 마리가 해 뜨는 쪽을 향하여
 힘차게 날아갑니다.

사랑하는 이여
 [D] 설령 당신이 이 나루터를
 영원히 찾아오지 않는다 해도
 내 기다림은 끝나지 않습니다.

설레이는 물살처럼 내 마음
 [E] 설레이고 또 설레입니다.

- 광재구, '기다림'

33.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 [나]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화자의 심리 변화를 제시하고 있다.
- ② [가], [다]의 화자는 자신이 처한 현재 상황에 만족하고 있다.
- ③ [가]~[다]의 화자는 부정적 현실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 ④ [나], [다]에는 상황을 호전시키려는 화자의 적극적인 노력이 드러나 있다.
- ⑤ [가]~[다]에서 화자는 긍정적인 미래가 도래하기를 바라고 있다.

34. [가]와 [나]의 표현상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의인화를 통해 대상의 면모를 생생하게 드러내고 있다.
- ② 경어체의 독백조로 대상을 향한 정서를 심화하고 있다.
- ③ 과거와 현재를 병치시켜 정서의 변화를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 ④ 도입부와 결말부를 호응시켜 시상 전개에 단정함을 추구하고 있다.
- ⑤ 특정 사물에 대한 세밀한 묘사로 대상에 대한 정서를 표현하고 있다.

35. ㉠~㉣ 중, <보기>의 밑줄 친 부분의 사례로 제시할 수 있는 시어로 알맞은 것은?

<보기>

내면의 미묘한 정서 변화를 다루는 서정시에서, 시적 화자는 대상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이게 마련이다. 그리고 그 반응을 표현하기 위해 화자는 외적 대상을 끌어와 자신의 정서를 그 대상의 정서로 전이시키는 방법을 사용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36. <보기>를 참고하여 [가]를 감상한다고 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정서는 자신의 동서인 인종의 총애를 받았는데, 의종이 즉위한 후 권신들의 정쟁(政爭)으로 참소되어 의종 5년(1151) 고향인 동래로 유배되었다. 그 때 정서는 “지금은 조정의 의론에 의해 부득이 보내나 오래지 않아 부르리라.” 하는 의종의 언약을 받았는데, 10여 년이 지나도록 소명(召命)이 없어, 지난날의 결백과 연군(戀君)의 정을 거문고에 실어 노래로 애소(哀訴)하기에 이르렀다. 작자인 정서가 귀양에서 풀려난 것은 무신의 난이 일어나 명종이 즉위한 1170년이였다.

- ① ‘님’은 정서를 유배 보내면서 오래지 않아 부르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던 의종을 지칭(指稱)하겠군.
 ② 이 작품은 거문고에 실어 노래한 것이므로 왼쪽의 한자(漢字)들은 곡조에, 오른쪽의 우리말은 노랫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군.
 ③ 3~4행은 권신(權臣)들의 참소를 비난하면서 정서 자신의 결백을 토로하는 구절이군.
 ④ 5행은 의종에 대한 연군의 정을 절실한 표현을 사용하여 효과적으로 제시하고 있군.
 ⑤ 마지막 11행은 의종이 다시 조정으로 부르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원망을 드러내는 표현이군.

37. <보기>에서 ㉠과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골라 바르게 묶은 것은?

<보기>

㉠. ㉠, ㉡ 모두 화자를 비유적으로 제시한 시어이다.
 ㉡. ㉠, ㉡ 모두 기다림의 정서를 환기하는 이미지이다.
 ㉢. ㉡은 ㉠에 비해 대상과 긴밀한 연계성을 지니고 있다.
 ㉣. ㉠은 현실에 구속받는, ㉡은 현실의 구속을 극복한 존재이다.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38~41]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근로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한다. 직장은 개인에게 소득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해 주기 때문에, 직장을 잃으면 삶의 질이 저하될 수밖에 없다. 이는 실업 문제가 매우 중요한 사회 문제임을 나타낸다. 실업은 경제학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일할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상태를 말한다. 그리고 실업률은 흔히 어떤 시점에서 경제 활동 인구 중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실업 중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는 것은 ‘구조적 실업’과 ‘경기적 실업’이다. 구조적 실업은 노동 시장에 공급되는 일자리의 수가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의 수에 비해 부족하여 ㉠ 나타나며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경우가 많다. 구조적 실업은 어떤 이유로 임금이 노동의 수요와 공급이 같아지는 균형 임금보다 높아 취업을 하지 못하는 것과 과거의 기술을 가진 사람이 다시 취직하려 하지만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지 못해 취업을 하지 못하는 것을 일컫는다. 경기적 실업은 경기의 순환 과정에서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수요의 부족으로 노동 수요가 감소되어 나타나는 실업이다. 구조적 실업이나 경기적 실업에 반해, 사람들이 한 직장을 떠나 자신의 적성, 기술, 자질 등에 적합한 새로운 직장을 찾기까지의 실업인 ‘마찰적 실업’은 주로 단기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이들 실업 외에 계절에 따라 나타나는 ‘계절적 실업’도 있다.

실업은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사람이 일을 하지 못하는 상태이므로 경제적으로 실업이 증가한다는 것은 그 경제 사회가 생산할 수 있는 재화와 용역의 양이 생산되지 못함을 의미한다. 즉 생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생산하지 못하는 재화와 용역의 양이 바로 실업의 경제적 손실이다. 다시 말해 노동의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루는 완전 고용 상태에서의 국내 총생산을 ‘완전 고용 GDP’라 하고 실제의 고용 수준 아래서의 GDP를 ‘실제 GDP’라고 하면, 실제 GDP와 완전 고용 GDP의 차이가 바로 실업의 경제적 비용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완전 고용은 흔히 마찰적 실업만 있고, 구조적 실업이나 경기적 실업이 거의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대체로 실업률이 2%~5% 정도면 완전 고용이라고 본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1%의 실업 증가가 약 3%의 실질 GDP의 감소를 가져온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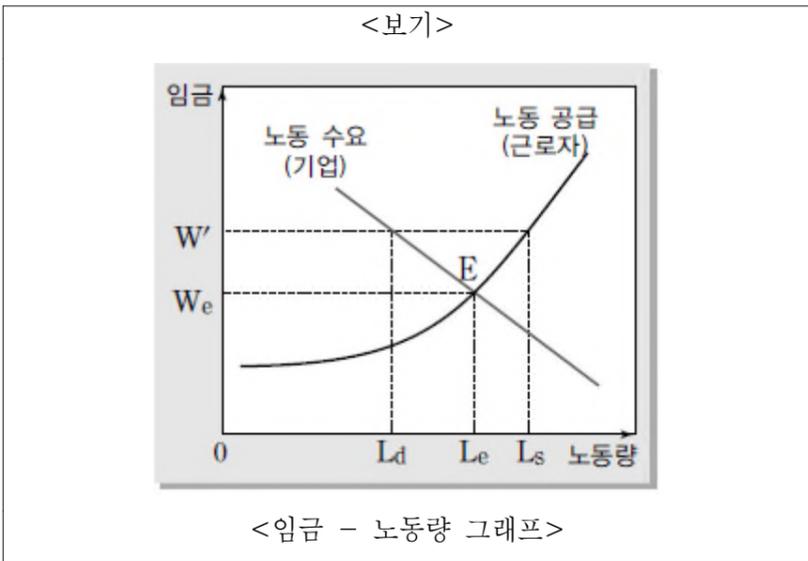
실업을 줄이기 위해서 정부는 공공 취로 사업을 늘리고, 고용을 늘리는 기업에는 세금을 감면해 주거나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의 제도를 시행한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정책은 국가 전체적인 실업 대책이라기보다는 특정 집단이나 산업 또는 계층과 관련 있는 미시적인 구제 대책이라 할 수 있다. 이들 대책 외에 정부는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거시 정책 수단을 사용해 실업을 감축시키려는 노력도 기울여야 한다. 가령 어떤 요인에 의해 실질 임금*이 올라 노동의 초과 공급, 즉 실업이 발생했다고 하자. 이때 임금은 내려가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시장의 힘만으로는 실업을 해소할 수 없다. 이 경우 정부는 물가가 지나치게 상승하지 않도록 인플레이션에 유의하면서 확대 재정 정책이나 금융 정책을 실시해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켜야 한다. 그러면 물가가 상승해 실질 임금이 하락하면서 노동에 대한 수요가 증가해 노동의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루는 상태를 회복할 수 있다.

*실질 임금: 임금의 실질적인 가치를 나타내는 금액으로, 임금의 가격을 단순히 화폐액으로 나타낸 명목 임금을 물가 지수로 나눈 값으로 나타냄.

38. 밑글을 토대로 답할 수 있는 질문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실업의 증가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
- ② 경제학적으로 실업이 의미하는 개념은 무엇일까?
- ③ 실업은 그 원인에 따라 어떻게 구분될 수 있을까?
- ④ 실업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
- ⑤ 인플레이션과 실업의 관계는 어떻게 변화되어 왔을까?

39. 밑글의 내용과 <보기>를 관련지어 설명했을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임금이 W_e 에서 W' 로 상승하면 노동 시장에서 노동의 공급이 증가해 실업률이 높아지게 된다.
- ② 임금이 W_e 일 때 경기가 안 좋아져 재화나 서비스의 수요가 감소하면 기업이 필요로 하는 노동량이 L_e 보다 감소하게 된다.
- ③ E는 노동의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루는 지점이므로 L_e 는 완전 고용 상태를 이룰 수 있는 노동량을 나타낸다.
- ④ L_s 에서 L_d 의 차이만큼 노동이 초과 공급될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확대 재정 정책이나 금융 정책을 사용할 수 있다.
- ⑤ 물가가 상승해 실질 임금이 W_e 아래로 하락하게 되면 노동 수요량이 감소하여 실업률이 증가함으로써 국내 총생산이 줄어들게 된다.

40. 밑글을 읽고 <보기>를 접했을 때, 보일 수 있는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기>

사람들이 경제 활동 인구에 속했다 안 했다 하는 현상은 흔하다. 경제 활동 인구 중 1/3 이상은 최근에 경제 활동 인구에 가서 한 사람들이다. 이들 중에는 최근에 대학교를 졸업하고 첫 직장을 찾고 있는 젊은이들도 있다. 그러나 한 번 경제 활동 인구에서 떠났다가 다시 직장을 찾고 있는 사람들의 수가 더 많다. 더구나 실업자라고 보고된 사람들 중에는 열심히 직장을 찾고 있지 않은 사람도 있다. 이들은 정부의 실업자 지원 혜택을 받기 위해 자신을 실업자로 부를 뿐이다. 그런가 하면 경제 활동 인구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분류되는 사람들 중에는 일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들은 열심히 직장을 찾다가 구직 활동을 포기한 사람들이다.

- ① 실업은 개인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그에 따라 질병의 발생 비율을 높일 수밖에 없겠어.
- ② 경제 활동 인구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의 수는 경제 상황에 상관없이 크게 변화하지 않는다.
- ③ 실업자와 경제 활동 인구를 정확하게 통계 내기가 힘들어 실업률은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겠어.
- ④ '구조적 실업'이나 '경기적 실업'이 '마찰적 실업'이나 '계절적 실업'보다 많이 나타나 사회 문제가 될 수밖에 없겠어.
- ⑤ 기업에 세금 감면 혜택을 주거나 기술 훈련을 지원해 주는 등의 미시적 정책은 오히려 실업률을 높이는 수단이 될 수밖에 없겠어.

41. ㉠의 문맥적 의미를 나타낼 수 있는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발달(發達)하며
- ② 발동(發動)하며
- ③ 발산(發散)하며
- ④ 발생(發生)하며
- ⑤ 발현(發現)하며

[42~45]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고체, 액체, 기체 상태의 여러 물질은 물이나 다른 액체에 녹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렇게 물질이 액체에 녹는 현상을 용해라 하고, 어떤 액체에 물질을 녹여서 용액을 만들 때 그 액체를 용매, 용액에 녹아 있는 물질을 용질이라 한다. 용액은 용질이 녹아 있는 정도에 따라 포화 용액, 불포화 용액, 과포화 용액으로 ㉠ 구분할 수 있다.

포화 용액은 일정량의 용매에 용질이 최대량으로 녹아 있는 용액을 말하고, 불포화 용액은 포화 상태보다 용질이 더 적게 녹아 있는 용액을, 과포화 용액은 포화 상태보다 용질이 더 많이 녹아 있는 용액을 말한다. 용액 속에 녹아 있던 용질이 결정화되어 침전되는 현상을 석출이라고 하는데, 포화 용액은 용해의 속도와 석출의 속도가 같은 동적 평형 상태에 있게 된다. ㉡ 하지만 불포화 용액에서는 용해의 속도가 석출의 속도보다 빠르고, 과포화 용액에서는 이와 반대가 된다. 바닷물을 염전에 가두면 물이 증발하면서 소금이 생기게 되는데, 이는 물의 증발로 바닷물이 지속적으로 과포화 용액이 되면서 소금이 석출되는 것이다.

용해는 용질 입자 간의 인력보다 용질 입자와 용매 입자 간의 인력이 크기 때문에 발생하고, 용해가 되더라도 질량을 결정하는 용매와 용질의 입자 수에는 변함이 없다. ㉢ 즉 용해되기 전과 용해된 후의 용질과 용매의 총질량은 변하지 않는다. 그리고 일정한 온도에서 일정량의 용매에 녹는 용질의 양에는 한도가 있다. 용질이 용매에 용해되는 한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용해도라는 개념을 사용하는데, 이는 100g의 용매에 용해되는 물질의 최대량을 g으로 표시한 것이다. 예를 들어 소금은 20℃의 물 100g에 최대 35.82g이 녹을 수 있으므로 20℃에서 물에 대한 소금의 용해도는 35.82가 된다. 용해될 때 흡열 반응을 보이는 물질은 용매의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용해도가 증가하고, 반대로 발열 반응을 보이는 물질은 용매의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용해도가 감소하는데, 이러한 용해도의 변화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을 용해도 곡선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고체의 용해도는 압력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고, 용매의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증가한다. ㉣ 예를 들어 어떤 고체 A의 용해도가 10℃에서 2, 20℃에서 5, 30℃에서 7이라고 생각해보자. 20℃의 포화 용액 105g을 온도를 높여 30℃에 이르게 하면 A를 2g 더 녹일 수 있는 불포화 용액이 된다. 반대로 10℃로 온도를 낮추게 되면 과포화 용액이 되어 3g의 A가 석출된다.

고체와 달리 기체의 용해도는 일정한 온도에서 압력에 비례하고, 일정한 압력에서 용매의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감소한다. 예를 들어 0℃의 물 100g에 녹는 산소의 용해도는 1기압에서 6.8×10^{-3} , 2기압에서 $2 \times 6.8 \times 10^{-3}$ 이고, 1기압에서 물 100g에 녹는 이산화탄소의 용해도는 0℃에서 3.6, 20℃에서 1.7이 된다. 물이 끓기 시작하기 직전에 냄비의 [A] 벽면에 작은 기포가 생기게 되는데 ㉤ 이는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물에 녹아 있던 기체가 용해되기 전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압력과 온도에 따른 기체의 용해도 변화는 물속에 녹아 있는 산소량인 용존 산소량을 비교해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기압이 낮은 고지대에 있는 물보다 기압이 높은 저지대에 있는 물의 용존 산소량이 많고, 같은 지역 내의 바닷물이라도 한류보다 난류의 용존 산소량이 적다.

42.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용해 전과 후에 용질이 갖고 있는 입자 수는 동일하다.
- ② 포화 용액에서는 용질의 용해 속도와 석출 속도가 같다.
- ③ 고체의 용해도는 일정한 온도에서 압력에 비례하여 변화한다.
- ④ 고체가 용해된 포화 용액의 온도를 높이면 불포화 용액이 된다.
- ⑤ 압력이 동일한 상황일 때 한류는 난류보다 산소의 용해도가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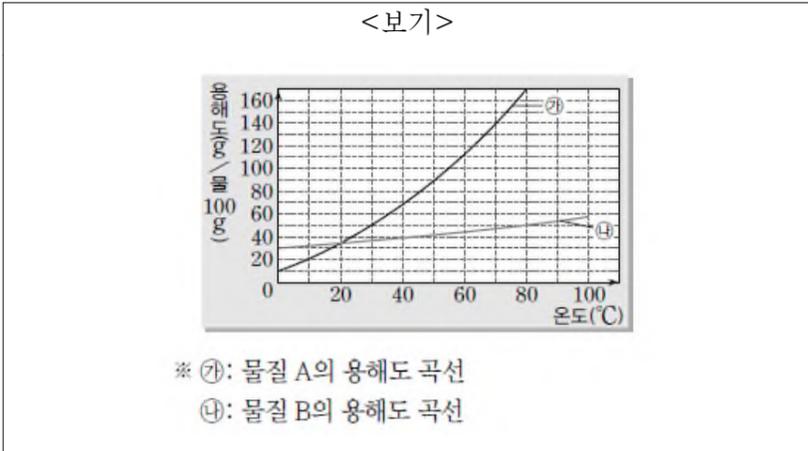
43. [A]를 참고하여 <보기>의 빈칸에 들어갈 말을 추론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설탕물에 이산화탄소를 녹여 만든 탄산계 청량음료는 병마개를 한 번 열게 되면 탄산의 특 쏘는 맛이 점차 사라지게 된다. 그 이유는 마개를 여는 순간부터 () 때문이다.

- ① 병 안의 온도가 높아지면서 용해도가 증가한 만큼 이산화탄소가 음료 안으로 녹아들기
- ② 병 안의 온도가 낮아지면서 용해도가 감소한 만큼 이산화탄소가 음료 밖으로 날아가기
- ③ 병 안의 압력이 높아지면서 용해도가 증가한 만큼 이산화탄소가 음료 안으로 녹아들기
- ④ 병 안의 압력이 낮아지면서 용해도가 감소한 만큼 이산화탄소가 음료 밖으로 날아가기
- ⑤ 병 안의 온도와 압력이 낮아지면서 용해도가 감소한 만큼 이산화탄소가 음료 밖으로 날아가기

44. 윗글을 바탕으로 1기압 하에서 얻은 <보기>의 용해도 곡선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과 ㉡의 곡선 상에 있는 점들은 모두 포화 용액 상태를 나타내겠군.
- ② 20°C의 온도에서 물 100g에 녹을 수 있는 물질 A, B의 양은 똑같겠군.
- ③ 물질 A, B는 모두 물에 용해될 때 흡열 반응을 보이는 용질이라고 할 수 있겠군.
- ④ 60°C의 물 100g에 물질 A, B를 20g씩 녹인 후, 물의 온도를 0°C로 낮추면 B만 10g이 석출되겠군.
- ⑤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물질 A, B의 용해도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 ㉡는 고체의 용해도 곡선이겠군.

45. 글의 특성과 문맥을 고려할 때, ㉠~㉣을 활용한 독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일정한 기준에 따라 대상을 나눌 때 쓰는 말이므로, 대상을 구분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잘 파악해야겠어.
- ② ㉡은 상반된 두 내용을 함께 제시할 때 쓰는 말이므로, 이어진 앞뒤 내용이 어떤 점에서 다른지 찾아봐야겠어.
- ③ ㉢은 인과 관계를 언급할 때 쓰는 말이므로, 앞부분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해야겠어.
- ④ ㉣은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할 때 쓰는 말이므로, 뒤에 이어진 내용을 바탕으로 앞의 설명에서 이해가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해야겠어.
- ⑤ ㉤은 앞에서 나온 내용을 가리킬 때 쓰는 말이므로, 지시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살펴봐야겠어.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십시오.

정답 및 해설

1	④	2	①	3	②	4	④	5	②
6	④	7	②	8	⑤	9	⑤	10	③
11	③	12	③	13	④	14	②	15	③
16	⑤	17	⑤	18	①	19	④	20	⑤
21	④	22	③	23	⑤	24	⑤	25	①
26	③	27	④	28	④	29	⑤	30	②
31	③	32	③	33	⑤	34	②	35	①
36	⑤	37	①	38	⑤	39	⑤	40	③
41	④	42	③	43	④	44	④	45	③

[1~2] 화법

[지문 분석]

지금까지 ‘인간의 소비 성향’(이전 강의 내용)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내용의 주제어는 ‘인간의 선택 행동’(주제어 제시)입니다. 경제학자들은 인간이 이기적이라고 합니다. 경제학에서는 사람들이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때 자기 자신의 물질적인 이득을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선택을 한다고 보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정작 사람들은 경제학자들의 설명대로 행동을 하지 않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먼저 **이와 관련된 실험(인간의 선택 행동에 대한 강연을 하기 전 실험을 먼저 제시함)**을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희주와 한나는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입니다. 그런데 제가 희주에게 10,000원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희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돈을 당신 마음대로 한나와 나눠 가지세요.”

이제 희주는 한나에게 얼마를 나눠 줄지 결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한나에게도 선택권이 주어집니다.

“당신은 희주가 제시하는 액수가 얼마가 됐든 그 돈을 받을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단, 당신이 희주가 주는 돈을 거부할 경우 희주는 저에게 10,000원을 다시 돌려줘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이야기가 어떤 상황인지 이해되시지요?** (청중의 이해 여부를 확인하며 강연을 전개) (대답을 듣고) 네, 좋습니다.(청중과 상호작용)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희주는 한나에게 10,000원 중에서 얼마를 나눠 주겠다고 해야 할까요? 5,000원 이요? 1,000원이요? 다양한 답이 나오네요. 예를 들어 희주가 1,000원을 나눠 주겠다고 제안했다면 한나는 **이 제안을 수락해야 할까요, 거부해야 할까요?**(청중의 적극적인 참여, 능동적 듣기 유도) 희주가 적은 돈을 나눠 주더라도 한나는 어차피 공짜니까 기꺼이 수락하게 될 거라고요?

흥미롭게도 실제 실험의 결과는 그렇지 않았습니니다. 희주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받은 돈을 다시 돌려줘야 할지도 모른다는 부담 때문에 대부분 받은 돈의 절반 정도를 내놓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한나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30% 이하의 금액이 제시될 경우 아예 거부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거부할 경우 한

푼도 받지 못한다는 규칙을 알면서도 말입니다. 참 재미있지요?

이처럼 경제학에서 규정한 대로 사람들이 자신의 물질적인 이득을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선택하지 않는 경우를 우리 주변에서도 더러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학에서는 이러한 사람들의 행동 패턴에 주목하여 이를 분석하는 연구를 시작하고 있지요. 이러한 경제학을 ‘**행동 경제학**’(다음 강연의 주제 제시)이라고 하는데요, 다음 시간에 이에 대해 집중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연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문 확인]

- *갈래: 강연
- *성격: 설명적, 예시적
- *특징: ① 청중과 상호작용하며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함.
② 예를 들어 청중의 이해를 도움.

1. <답> ④

④ 속담을 활용해 강연 내용에 대한 청중의 이해를 돕고 있는 부분은 찾아볼 수 없다.

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내용의 주제어는 ‘인간의 선택 행동’입니다.”와 같이 강연의 주제어를 언급하며 화제를 전환하고 있다.

②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이야기가 어떤 상황인지 이해되시지요?”와 같이 청중의 이해 여부를 확인하며 강연을 전개하고 있다.

③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희주는 한나에게 10,000원 중에서 얼마를 나눠 주겠다고 해야 할까요?”, “예를 들어 희주가 1,000 원을 나눠 주겠다고 제안했다면 한나는 이 제안을 수락해야 할까요, 거부해야 할까요?”와 같이 질문을 던지며 청중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⑤ “이러한 경제학을 ‘행동 경제학’이라고 하는데요, 다음 시간에 이에 대해 집중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와 같이 다음 시간에 다룰 내용을 언급하며 강연을 마무리하고 있다.

2. <답> ①

① ㉠: “거부할 경우 한 푼도 받지 못한다는 규칙을 알면서도 말입니다.”라는 내용을 통해 메모의 내용이 적절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즉, 한나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희주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의 제안을 거부한 사람은, 제안을 거부할 경우 한 푼도 받지 못한다는 규칙을 알면서도 제안을 거부했음을 알 수 있다.

② ㉡: “먼저 이와 관련된 실험을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라고만 제시되어 있을 뿐 인용의 출처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③ ㉢: 제시된 실험은 사람들이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때 경제학자들의 설명대로 자기 자신의 물질적인 이득을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선택하지 않는다는 것을 뒷받침하고 있다.

④ ㉣: 경제학자들의 설명대로 행동을 하지 않는 경우를 관련된 실험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⑤ ㉤: 강연에서 행동 경제학과 관련된 실험을 소개한 뒤, “그래서 경제학에서는 이러한 사람들의 행동 패턴에 주목하여 이를 분석하는 연구를 시작하고 있지요. 이러한 경제학을 ‘행동 경제학’이라고 하는데요”와 같이 ‘행동 경제학’의 개념을 제시해 주고 있다.

3. <답> ②

② 경미는 부담을 자신에게 돌려 선생님의 부담을 덜어 주는 표현

고 3

을 사용하고 있지 않다.

- ① 민영은 “그래, 미안하지만 좀 도와줘. 이것만 옮기면 되거든. 부탁해, 승찬아.”라고 말하며 재호와 달리 승찬에게 부담을 적게 주고 있다.
- ③ 선생님은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었지만, 네가 지금까지 발표한 것 중에서 가장 좋았어. 내용 구성도 풍부했고 말하기 태도도 돋보였어.”와 같이 학생의 발표에 대해 비판은 최소화하고 칭찬을 주로 하고 있다.
- ④ 아들은 “과찬이세요. 제가 2학년 때 많이 놀았잖아요. 밀린 공부를 하다 보니 해야 할 게 많아 이 시간까지 공부하는 거예요.”와 같이 말하며 자신에 대한 칭찬을 최소화하고 자신을 낮추고 있다.
- ⑤ 언니는 “그 옷을 사고 싶은 네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돼.”와 같이 말하며 먼저 동생의 심정을 이해함을 나타낸 뒤 “하지만 이번에는 엄마의 주머니 사정이 좋지 않았던 것 같아. 엄마를 이해해줘.”와 같이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4~7] 화법과 작문

[지문 분석]

(가)

정직이: 난 우리 동아리의 성격이 잘 드러나도록 제목을 대구 표현으로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 우리 동아리가 초등학교 돌봄 교실에서 다양한 봉사를 하는 거니까,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지 않을까?

놀래미: 맞아. 토요 돌봄 교실의 봉사 대상은 누구인지와 동아리는 어떻게 조직되어 있는지도 알려 주어야지.

회장: 그래. 또 우리 동아리 활동으로 얻을 수 있는 장점을 소개해야 할 텐데....., 다양한 전공의 대학생과 함께 재능을 기부하기 때문에 자신의 진로 탐색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동아리 활동으로 얻을 수 있는 장점)을 홍보해야 하지 않을까?

그래비티: 그래 그것도 좋네. 그런데 2학기 행사가 좀 약한 거 같지 않아? 지난번에 만났던 국토 기행 동아리 연합회 담당자와 연락해서 2학기 행사를 위한 새로운 계획을 넣으면 글의 내용과 활동이 풍부해 보일 것 같아.

놀래미: 난 지난번 국토 기행 동아리 연합회와 명소 체험 행사를 했을 때 초등학교 아이들과 함께 활동하던 모습이 담긴 사진을 신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짱짱: 활동 장소나 시간 등 세부 내용도 포함되어야 할 것 같아. 그리고 동아리 가입을 권유하는 내용으로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아.

회장: 좋아. 이러한 의견을 모아서 초안을 작성한 다음 자료실에 올릴게. 읽어 보고 고쳐야 될 점이 있으면 다시 좋은 의견 줘.

(나)

아이들과 더불어 나누는 즐거움.
형들과 더불어 키우는 재능(동아리의 성격이 드러나는 대구 표현을 사용함)

‘토요 돌봄 교실’은 대학생들의 재능 기부와 연계되어 이루어지는 우리 ○○ 고등학교 학생들의 봉사 활동 동아리입니다. 우리 동아리의 돌봄이들은 토요일에 집에 홀로 있는 맞벌이 가정이나 저소득층 가정의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습 지도 활동, 독



서 활동, 예체능 활동입니다(주어와 서술어의 호응을 고려하여 ‘활동을 합니다’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함). 또한 방학 중에는 대학생들과 연계하여 다양한 체험 활동을 합니다. 우리 동아리는 학업, 봉사, 체험 활동 등 모든 것을 해야 하는 입시생들에게도 꼭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 줍니다. 우선 정기적으로 봉사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도 좋지만, 무엇보다 가장 큰 장점은 돌봄 학생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진로 관련 능력도 커진다는 것(‘회장’이 언급한 동아리 활동으로 얻을 수 있는 장점)입니다. 어떤 점에서 그럴까요?

그런데 우리 토요 돌봄 교실의 특징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첫째, 우리 동아리는 돌봄 학생들의 자신들의 진로나 흥미와 관련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소모임으로 조직(동아리의 특징①)되어 있습니다. 즉 독서 지도반, 영어 회화반, 체육 활동반, 음악반, 미술반(소모임의 종류)의 소모임으로 분화되어 있어 각자의 흥미와 적성에 맞는 활동을 합니다. 둘째, 대학생 재능 기부 프로그램과 연계되어 있어 자신의 진로와 관련 있는 소모임 분야를 선택하고, 그것과 관련된 전공 대학생들에게 도움을 받도록 체계화(동아리의 특징②)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진로가 음악 계열이라면 음악반에서 음악 전공 대학생들과 함께 돌봄 활동을 하면서 관심 분야에 대한 것도 배우게 되는 거지요. 마치 예전의 대가족 체제처럼(직유법) 큰형 같은 대학생, 작은형 같은 우리 동아리 고등학생, 그리고 막냇동생 같은(직유법) 초등학교 소모임이 조직되어 있습니다. 셋째, 우리 동아리는 가족처럼(직유법) 서로의 정을 느끼며 정서적 교감을 할 수 있도록 소모임이 구성(동아리의 특징③)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토요 돌봄 교실의 도우미 학생이 되어 정서적 교감과 보람은 물론 봉사 시간도 얻고 자신의 진로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동아리 가입 권유)

우리 동아리의 학기 중 활동 시간은 토요일 오전 9시부터 1시까지이며, 활동 장소는 ○○ 초등학교입니다.(활동 장소나 시간 등 세부 내용) 그리고 여름 방학 때에는 ○○ 대학교 국토 기행 동아리와 연합하여 명소 체험 학습을 해 왔습니다.

[지문 확인]

(가): 동아리 홍보문 작성을 위한 토의

- *정직이: ‘동아리의 성격이 드러나도록 제목을 대구 표현으로 시작하자.’
- *놀래미: ‘봉사 대상과 동아리의 조직(구성)을 알려 주자.’, ‘활동 모습이 담긴 사진을 넣자.’
- *회장: ‘자신의 진로 탐색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홍보하자.’
- *그래비티: ‘2학기 행사를 위한 새로운 계획을 넣자.’
- *짱짱: ‘활동 장소나 시간 등 세부 내용을 넣자.’

(나): 동아리 홍보문

- *토요 돌봄 교실: 대학생들의 재능 기부와 연계되어 이루어지는 ○○고등학교 학생들의 봉사 활동 동아리

- ③ 이 글의 예상 독자는 ‘또래의 청소년’이므로 범국민을 대상으로 한 캠페인 운동의 제안은 예상 독자와는 다소 거리가 멀다.
- ④ ‘수집한 자료’에서 이미 본인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개인 정보 공개의 위법성을 주장했으므로 이를 또 다시 논의하는 것은 올바른 서술 방향이 아니다.

9. <답> ⑤

- ⑤ 관용적 표현을 활용하여 개인 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을 뿐 아니라, 개인 정보 보호 요령을 지켜 개인 정보의 유출을 예방하자는 문제의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 ① 관용적 표현을 활용하여 개인 정보 유출의 심각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을 뿐, 조건에서 요구하는 ‘해결 방안’이 드러나게 기술하지 않았다.
- ② 비유법과 직유법을 활용하여 개인 정보의 가치를 역설하여 문제의 심각성과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관용적 표현은 사용되지 않았다.
- ③ 도치법을 활용하여 타인의 개인 정보 유출에 대해 자기반성을 요구하면서 ‘무심코 타인의 개인 정보를 올리지 않았는지’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제시하고, ‘타인의 정보, 내 정보만큼이나 소중한입니다.’에서 해결 방법을 제시하였으나, 관용적 표현은 사용되지 않았다.
- ④ ‘개인 정보 보호 요령을 지키지 않으면, 소중한 개인 정보가 지구 반대편에서 유통될 수 있습니다.’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드러내고 있고 ‘개인 정보 보호 요령이 소중한 개인 정보를 지켜 줍니다.’에서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관용적 표현이 보이지 않는다.

10. <답> ③

- 주어진 문맥에서 ㉔의 ‘다수의 사람들’은 자기 표절로 인한 피해가 미치는 대상이다. 피동문에서 행위의 결과가 미치는 대상에게는 조사 ‘에게’가 연결되는 것이 자연스럽다. 따라서 조사를 ‘이’로 교체하면 오히려 어색하게 된다.
- ① ㉔: ‘거리’는 명사 뒤에 붙어서 ‘내용이 될 만한 재료’를 나타내는 말이므로 ‘꺼리’로 적어서는 안 된다.
 - ② ㉔: 앞 문장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경향에 대해 언급한 후 뒤 문장에서 구체적인 예를 제시하였으므로, ‘이에 따라’가 적절하다.
 - ④ ㉔: 독자는 저작자로부터 피해를 당한 대상이므로 ‘당한’이 적절하다.
 - ⑤ ㉔: 이 글은 전반적으로 자기 표절을 출판문화 윤리의 관점에서 비판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표절로 인한 손해 배상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글의 전체 주제와 어울리지 않는다.

11번 문법 이론: 품사 분류 기준

분류 기준	기능	문장에서 단어의 구실(문장 성분)에 따라
	형태	단어의 형태가 변하는가, 안 변하는가에 따라
	의미	단어들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의미에 따라

단어		자립어				의존어
분류기	기능	체언	용언	수식언	독립언	관계언
	형태	불변어	가변어	불변어	불변어	불변어

준	의미	명사	대명사	수사	동사	형용사	관형사	부사	감탄사	조사
---	----	----	-----	----	----	-----	-----	----	-----	----

11. <답> ③

품사 분류 기준 중 ‘형태’는 형태의 변화 여부를 말하므로 ‘깊다’와 ‘모르다’는 가변어, 나머지는 불변어이다. ‘기능’은 문장 내에서 하는 역할이므로 ‘호수’, ‘강’, ‘누구’, ‘깊이’는 주어가 될 수 있는 체언이며, ‘깊다’와 ‘모르다’는 주로 서술어 역할을 하는 용언이며, ‘가, 의, 는, 도’는 조사이므로 관계언이다. ‘의미’는 개별 단어가 갖는 의미가 아니라 품사 전체가 갖는 의미로서 명사는 ‘사물의 이름을 나타내는 말’, 형용사는 ‘사물의 상태를 나타내는 말’과 같은 것이다. 이에 따르면, ‘깊다’는 형용사, ‘모르다’는 동사, ‘호수, 강, 깊이’는 명사, ‘누구’ 대명사, ‘가, 의, 는, 도’는 조사로 분류된다.

12번 문법 이론: 자음 동화, 음운의 첨가

- 음운의 동화: 한 음운이 다른 음운의 특질을 닮아 가는 현상
 - 자음 동화 : 음절의 끝 자음이 그 뒤에 오는 자음과 만날 때, 어느 한 쪽이 다른 쪽 자음을 닮아서 그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자음이나 같은 소리로 바뀌기도 하고, 양쪽이 서로 닮아서 두 소리가 바뀌기도 한다.

(예) 비음화 : 밥물→[밤물], 유음화 : 신라→[실라]

• 음운의 첨가(‘ㄴ’ 첨가)

- 앞의 말이 모음으로 끝나고 뒤의 말이 ‘ㄱ, ㄴ’으로 시작되면 ‘ㄴ’이 덧생긴다.

이+몸(잇몸)[인몸], 코+날(콧날)[곤날], 멧나물, 아랫니, 텃마당, 아랫마을, 텃머리, 깻묵, 냇물, 빗물, 깻날, 제삿날, 훗날, 텃마루, 양칫물
--

- 뒤의 말이 ‘ㅣ’나 반모음 ‘ㅣ’로 시작될 때 ‘ㄴ’이 하나 혹은 둘이 덧나는 경우

논일[논닐], 물약[물낙→물략], 아래+이(아랫니)[아렌니] 뒷웃, 두렛일, 댓잎, 베갯잇, 가윗일, 사삿일, 예삿일
--

12. <답> ③

- ㉔ ‘막일’은 앞말의 끝이 자음이고, 뒷말이 ‘이’로 시작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ㄴ’ 소리가 첨가되는데, [막닐]이 아닌 [망닐]로 발음한다. 그 이유는 앞말의 받침인 ‘ㄱ’이 뒷말의 첫소리에 첨가된 ‘ㄴ’의 영향을 받아 ‘ㅇ’으로 비음화 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ㄱ’의 영향으로 ‘ㄱ’이 비음화 되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 ① ㉔는 앞말인 ‘코’가 모음으로 끝나고 뒷말인 ‘날’이 ‘ㄴ’으로 시작되므로 앞말의 끝소리에 ‘ㄴ’이 첨가된 경우이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 ② ㉔는 앞말인 ‘색’이 자음 ‘ㄱ’으로 끝나고 뒷말이 ‘여’로 시작되므로 뒷말의 첫소리에 ‘ㄴ’ 소리가 첨가된 경우이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 ④ ㉔는 앞말 ‘물’의 끝이 자음이고 뒷말이 ‘야’로 시작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ㄴ’ 소리가 첨가되는데, [물낙]이 아닌 [물략]으로 발음한다. 그 이유는 뒷말의 첫소리에 첨가된 ‘ㄴ’이 앞말의 받침인 ‘ㄱ’의 영향을 받아 ‘ㄴ’으로 유음화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적절한

진술이다.

⑤ ㉔는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고 뒷말이 ‘ㄱ’으로 시작되므로 앞말의 끝소리에 ‘ㄴ’이 첨가된 경우인데, 사이시옷을 추가하여 ‘잇몸’이라고 표기한 것이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13번 문법이론: 형태소의 분류 기준

- 형태소 : 뜻(의미)을 가진 가장 작은 말의 단위
(예문) 철수/가/ 이야기/책/을 /읽/었/다.
어머니/는/ 저녁/을/ 가지/고/ 들/어/ 오/시/었/다.

1) 자립성 유무(有無)에 따른 종류

자립 형태소	자립성을 지닌 홀로 설 수 있는 형태소 (예) 철수, 이야기, 책, 어머니, 저녁
의존 형태소	자립성이 없어, 홀로 서기가 어려워 다른 말에 의존하여 쓰이는 형태소 (예) 가, 을, 읽-, -었-, -다, 는, 가지-, -고, 들-, -어, 오-, -시-, -었-, -다.

2) 의미의 유무(有無)에 따른 종류

실질 형태소	실질적인 의미를 지닌 형태소 (예) 철수, 이야기, 책, 읽-, 어머니, 저녁, 가지-, 들-, 오-
형식 형태소	자립성이 없어, 홀로 서기가 어려워 다른 말에 의존하여 쓰이는 형태소 (예) 가, 을, -었-, -다, 는, -고, -어, -시-, -었-, -다.

3) 형태소의 종류와 문법 요소

자립 형태소	명사, 대명사, 수사, 관형사, 부사, 감탄사
의존 형태소	조사, 용언의 어간, 어미, 접사
실질 형태소	명사, 대명사, 수사, 관형사, 부사, 감탄사, 용언의 어간
형식 형태소	조사, 용언의 어미, 접사

13. <답> ㉔

<보기>에서 A에는 실질적인 의미를 갖지 못한 형식형태소가 속한다. 따라서 조사 ‘에’와 어미 ‘-는’은 A에 해당한다. B에는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형태소 중, 혼자 쓰일 수 없는 의존형태소가 속한다. 따라서 어간 ‘있-’은 B에 해당한다. C에는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실질형태소이자, 혼자 쓰일 수 있는 자립형태소가 속한다. 따라서 ‘자리’와 ‘어느’는 C에 해당한다.

14번 문법 이론: 주어

- 문장 성분의 갈래

주성분 (필수 성분)	주어	‘무엇이’에 해당하는 말
	서어	‘어찌한다, 어떠한다, 무엇이다’에 해당하는

	술어	말
	목적어	‘무엇을’에 해당하는 말
	보어	주어가 아닌 것으로 ‘되다, 아니다’ 앞의 ‘무엇이’에 해당하는 말
부속 성분 (수의 성분)	관형어	체언을 수식하는 말
	부사어	용언을 한정하는 말
독립 성분	독립어	문장의 어느 성분과도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말

• 주어

1) 주어의 정의

문장의 골격에서 ‘무엇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어찌한다, 어떠한다, 무엇이다’의 주체를 나타내는 말

2) 주어의 성립 : 주어는 체언이나 체언의 기능을 하는 말에 주격 조사가 붙어서 된다.

형태	세부 형태	예
체언 + 주격 조사	명사 + 주격 조사	산이 높다.
	대명사 + 주격 조사	그가 이겼다.
	수사 + 주격 조사	셋이 둘보다 많다.
체언 상당어 + 주격 조사	구(句) + 주격 조사	저 두 사람이 우리를 도와 주었다.
	명사절 + 주격 조사	우리 편이 승리했음의 분명하다. 지구가 둥글기가 공과 같다. 그가 천재라는 것이 사실인가?
체언이 아닌 품사 • 문장 + 주격 조사	단어 + 주격 조사	‘밝다’가 동사인가?
	문장 + 주격 조사	네가 어떻게 사느냐가 문제다.
주격 조사 생략	구어체에서 격 관계가 분명할 때	넌 어디 가니?
	보조사가 주격 조사 자리에 쓰일 때	세상은 넓다.
체언 + 보조사 + 주격 조사		나만이 그대를 사랑하오. 지금부터가 중요하다.

3) 주어의 통사상의 특징

고 3

특징	예
주어가 높임 명사이면 서술어에 선어말 어미 ‘-시-’가 쓰인다.	할아버지께서 시조를 읊으시었다.
주어가 3인칭이고 그것이 반복되면 재귀 대명사가 쓰인다.	철수는 <u>자기가</u> 천재라고 생각한다.
정상적인 주어의 위치는 문장의 첫머리다.	<u>저 사람</u> 순이 안 만날거야.(주어는 ‘저 사람’)

4) 주어의 생략 : 주어에 대한 정보가 주어졌을 때

주어의 생략 형태	예
묻고 대답할 때	아이들이 어디 갔니? 도서관에 갔지.
명령문인 경우	열심히 공부해라.(주어 : 2인칭)
성상 형용사가 서술어일 때	슬프다. 추워요.(주어 : 1인칭)

14. <답> ②

‘ㄱ’의 주어는 ‘새가’이며, ‘ㄴ’에서 안은문장의 주어는 ‘우리 반이 승리했음’이고 안긴문장의 주어는 ‘우리 반’이다. 주격 조사는 앞말에 받침이 없으면 ‘가’, 앞말에 받침이 있으면 ‘이’가 쓰인다. 따라서 주격 조사의 형태가 앞말과 관계가 없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① ‘ㄱ’에는 주격 조사 ‘가’가 사용되었으나, ‘ㄷ’에는 주격 조사가 생략되어 있다.

- ③ ‘ㄱ’에는 주어인 ‘새가’가 사용되었으나, ‘ㄷ’에는 주어 생략되었다. 명령문에는 주어 생략된다.
- ④ ‘ㄴ’의 주어인 ‘영희’는 문장의 제일 뒤에, ‘ㄷ’의 주어인 ‘우리’는 문장의 제일 앞에 위치해 있다.
- ⑤ ‘ㄷ’의 주어인 ‘우리’는 한 단어이지만, ‘ㄴ’의 주어인 ‘우리 반이 승리했음’은 절의 형식이다.

15번 문법 이론: 담화

• 담화의 개념과 구성요소

개념	구체적인 맥락 속에서 이루어지는 발화(문장)나 발화(문장)의 연속체
구성요소	담화 참여자[말하는 이(글쓴이), 듣는 이(읽는 이)], 전달하려는 내용, 맥락(상황 맥락, 사회·문화적 맥락)

→ 담화는 구성 요소에 따라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난다. 그러므로 원활하게 의사소통하려면 말이나 글이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 담화의 상황 맥락

시간	담화가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시간
공간	담화가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공간

→ 담화가 언제, 어디에서 이루어지는냐에 따라 담화의 뜻, 표현 등이 달라지기도 한다. 예를 들어 “잘 봐라.”라는 말은 말이 이루어지는 시간과 공간에 따라 “집을 잘 지켜라.”라는 뜻으로 쓰일 수도 있고, “시험을 잘 쳐라.”라는 뜻으로 쓰일 수도 있다.

• 담화의 사회·문화적 맥락

지역	같은 언어를 사용하더라도 지역에 따라 말이 달라지기도 하는데, 이를 ‘지역방언’이라고 함.
세대	세대에 따라 사용하는 언어가 달라지기도 함.

문화	문화권에 따라 그 나라만의 관습적인 언어 표현을 사용하기도 함
역사적 상황	특정한 역사를 배경으로 한 담화는 말하는 이와 듣는 이가 그 역사적 상황과 정서를 같이 공유하고 있을 때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음.

15. <답> ③

같은 대상을 철수는 ‘이 과자’라고 표현하고 영희는 ‘그거?’라고 표현한 것은 ‘과자’가 영희보다 철수에게 가까운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② 발화 상황을 고려할 때, ‘참 잘하셨습니다.’라는 진술에서 높임 표현이 사용된 것은 말하는 이와 듣는 이의 상하 관계를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철수의 행위에 대해 영희가 자신의 불만 또는 언짢음을 반어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다.

④ ‘대신 이 과자라도 먹을래?’라는 철수의 발화 내용을 고려할 때 ‘먹을래’라는 영희의 발화에는 주체인 ‘나’와 대상인 ‘과자’가 생략되어 있다.

⑤ 과자를 건네는 행위와 ‘배 안 고파?’라는 물음에 담긴 의도를 고려할 때 점심을 먹었다는 철수의 진술은 과자를 먹으라는 영희의 제안에 대한 거절의 의미를 담고 있다.

[16~19]독서-인문

[지문 분석]

조선 건국 무렵 **태조(수령에 대한 시기별 평가①)**는 전국을 330여 개의 군현으로 편제하고 중앙에서 직접 수령을 파견하면서 그 직급을 6품 참서관으로 높여 자질과 권위를 확보하려 하였다. 이는 근무 연한을 채우면 7~9품의 관직에 진출할 수 있었던 **서울의 이진(吏典)들이 지방 수령으로 진출하는 것을 봉쇄(지방 수령의 출신에 제한을 둬)**하는 조치였다. 이에 따라 부족한 수령 자원은 6품 이상의 관원에게 천거하게 하였고 관찰사에게는 지방관 평가뿐 아니라 지방 사족 출신자들을 대상으로 한 책임자 발탁 권한을 주었다. 이렇게 하여 **30개월 임기**로 공명(公明), 염근(廉謹) 등 **덕행 항목**에 우선권을 두어 평가하는 지방 수령 평가·임용 제도가 시행되었다.

1문단: 태조 때의 수령 평가 방식

태종(수령에 대한 시기별 평가②)이 즉위한 이후 **수령의 업무가 표준화**되었다. 이때 수령 7사가 제정되어 인구 증가와 농업 생산성 향상, 공정한 조세 부과, 학교 발전, 아전 농간 차단 등의 업무가 규정되었다. **일 년에 두 번 정기 평가**가 실시되었고, 5회의 평가에서 2회 ‘중’ 평가를 받으면 파면되는 원칙도 마련되었다. 수령의 업무는 **수치화된 결과와 실적만으로 평가**되었고, 이후 이러한 원칙은 **「경국대전」(정기적으로 평가하는 원칙, 수치화된 결과와 실적만으로 평가되는 원칙 등이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경국대전에 실림)**에 명문화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강화되었다.

한편 수령들의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 덕행에 의한 평가와 관찰사에 의한 현지 발탁은 폐지되었다. 그 대신 근무 기한을 채운 서울의 이전 중 10% 정도의 인원을 선발하여 잡직에 임명될 수 있게 하고, 그 임기가 만료되면 중6품의 수령직 대기자가

되도록 하였다. 이전 출신의 수령 진출을 통제하는 장치였지만, 한편으로 행정 능력을 갖춘 이전 출신자에게 수령 진출 기회를 부여한 것이었다.

2~3문단: 태종 때의 수령 평가 방식

세종(수령에 대한 시기별 평가③)에 이르러서는 수령의 지방 실정 파악을 어렵게 한다는 점에서 수령의 잦은 교체가 문제로 대두되었다. 그에 따라 수령의 임기가 60개월로 늘었으며 현지민의 수령 고소도 금지되었다. 임기 전 사임한 수령이 남은 임기 동안 다른 관직에 서용될 수 없게 하는 조치도 시행되었다. 자질 있는 수령의 확보를 위해 수령직 대기자인 이전 및 잡직자를 대상으로 수령취재법(취재: 재주를 시험하여 사람을 뽑음)이 시행(이전 및 잡직자 출신인 수령이 있었음)되어 사서와 삼경, 법전을 시험 보게 하였다. 또한 무관이 배정되었던 약 80여 곳의 수령 자리 중 국방상 중요한 50여 곳을 제외한 지역에는 행정 능력과 인품을 고려하도록 하였다.

평가 방식도 보완되었는데, 10회로 늘어난 평가 중 3~5회 '상'을 받으면 등급을 올려 주고, 5회 '중'을 받더라도 관품을 유지하게 하였으며, 연속으로 '중'을 받은 경우라도 10회의 평가를 받게 하여 임기를 채우도록 조치하였다. 이는 평가 방식을 포상 위주로 변경하여 수령의 업무 의욕을 고취하고 부정을 방지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지방 수령의 장기 근무(수령의 임기를 60개월로 늘림, 임기 연장)로 인하여 지방 수령의 자질 저하와 경·외관(京外官)의 분화(임기 연장의 부작용)라는 부작용이 나타났다. 이는 조정이 원하는 방향은 아니었기 때문에, 공신 및 대신의 자제를 수령으로 파견(공신 및 대신의 자제 출신인 수령이 있었음)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령직이 과거를 통해 문반직에 진출하지 못한 세력가 자제의 관직 진출로 활용되면서 수령직의 열등화는 오히려 더욱 분명해졌다. 문과 출신의 우수한 인재를 수령으로 파견(문과 출신인 수령이 있었음)하는 조치가 단행된 것은 경·외관의 분화를 보완하기 위한 또 다른 방안이었다. 분화 현상 자체를 막을 수는 없지만, 우수한 자원을 일정 기간 외직으로 파견함으로써 중요 거점에라도 유능한 수령을 확보하려는 의도(문과 출신의 우수한 인재를 수령으로 파견한 목적)였다. 이들은 수령직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을 뿐 아니라, 통상적으로 대간을 역임하기도 하였기에 주변의 수령들에 대한 비리 예방 효과(문과 출신의 우수한 인재를 수령으로 파견함으로써 얻은 효과)가 있었다. 재판과 같은 전문적 업무나 대규모 토목 공사 등이 발생할 때, 이들(문과 출신의 우수한 인재들)은 관찰사가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자원이 되었다.

4~6문단: 세종 때의 수령 평가 방식

지방 수령의 장기 근무는 심각한 적체 현상을 낳기도 했다. 이에 따라 세조(수령에 대한 시기별 평가④)는 이전의 제도를 계승하면서도 수령의 임기는 30개월로 단축하였다. 그와 함께 우수한 평가를 받은 수령을 파격적으로 승진시키는 한편, 불법 행위를 한 수령은 즉각 징계하는 정책을 시행하였다. 이러한 평가 방식은 일

시적인 효과는 기대할 수 있어도 안정적인 관직 운영 방식으로 정착되지 못했다.(세조 때의 평가 방식의 한계)

6문단: 세조 때의 수령 평가 방식

성종(수령에 대한 시기별 평가⑤) 때 「경국대전」이 편찬되면서 관련 사항들이 명확히 정비되었다. 수령 7사가 규정으로 자리 잡고, 근무 기간도 60개월로 환원되었다. 평가에서 10회 '상'이면 품계를 올려 주고, 3회 '중'이면 파직, 2회 '중'은 녹봉이 없는 관직으로 임명하도록 명시하였다. 또한 4품의 관직에 승진하려면 외관직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여 서울과 지방 관원의 교류 원칙도 분명히 하였다. 이들 규정은 지방 세력가를 억제하면서 백성을 안집(安集)시키고 중앙의 덕화(德化)를 관철하고자 한 오랜 노력의 산물이었다.

7문단: 성종 때의 수령 평가 방식

• 주제: 조선 시대의 수령에 대한 평가 방식

[지문 확인]

1문단: 태조 때의 수령에 대한 평가 방식

- *중앙에서 직접 수령을 파견함
- *서울의 이전들이 지방 수령으로 진출하는 것을 봉쇄함
- *덕행 항목에 우선권을 둠

2~3문단: 태종 때의 수령에 대한 평가 방식

- *수령의 업무가 표준화됨
- *일 년에 두 번 정기 평가가 실시됨
- *수령의 업무는 수치화된 결과와 실적만으로 평가됨
- *수령들의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 덕행에 의한 평가는 폐지됨
- *서울의 이전 중 10% 정도의 인원을 선발하여 잡직에 임명될 수 있게 함

4~6문단: 세종 때의 수령에 대한 평가 방식

- *수령의 임기를 60개월로 늘림
- *수령직 대기자인 이전 및 잡직자를 대상으로 수령취재법을 시행함
- *일부 지역에는 행정 능력과 인품을 고려하도록 함
- *평가를 10회로 늘리고, 수령의 업무 의욕을 고취하고 부정을 방지하기 위해 포상 위주의 평가 방식으로 변경함
- *지방 수령의 장기 근무로 인해 지방 수령의 자질 저하와 경·외관의 분화라는 부작용이 나타남
- *공신 및 대신의 자제를 수령으로 파견함
- *문과 출신의 우수한 인재를 수령으로 파견함
 - 분화 현상 자체를 막을 수는 없지만, 중요 거점에라도 유능한 수령을 확보하려는 의도였음
 - 주변의 수령들에 대한 비리 예방 효과가 있었음
 - 관찰사가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자원이 되었음

7문단: 세조 때의 수령에 대한 평가 방식

고 3

*이전의 제도를 계승하면서 임기를 30개월로 단축함
 *우수한 평가를 받은 수령을 파격적으로 승진시키고 불법 행위를 한 수령은 즉각 징계함
 *일시적인 효과는 기대할 수 있어도 안정적인 관직 운영 방식으로 정착되지 못함

8문단: 성종 때의 수령에 대한 평가 방식

*경국대전을 통해 관련 사항들이 명확히 정비됨
 *근무 기관을 60개월로 환원함
 *서울과 지방 관원의 교류 원칙을 분명히 함

16. <답> ⑤

‘수령의 업무는 수치화된 결과와 실적만으로 평가되었고, 이후 이러한 원칙은 「경국대전」에 명문화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강화되었다.’, ‘「경국대전」이 편찬되면서 관련 사항들이 명확히 정비되었다.’를 통해 성종 때에는 표준화된 고과 시행을 토대로 한 절대적인 평가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고과(考課) : 고려·조선 시대에, 관리의 근무 성적을 평가하여 결정하던 일. 승진과 좌천, 포상과 처벌에 반영하였다.

- ① 태조 때에는 중앙에서 직접 수령을 파견하여 덕행 항목을 우선으로 지방 수령을 평가하였다.
- ② 태종 때에는 수치화된 결과와 실적을 정기적으로 평가하였다.
- ③ 세종 때에는 수령의 임기를 늘어났으며, 포상 위주로 평가하였다.
- ④ 세조 때에는 수령의 임무를 단축했으며, 파격적이고 즉각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을 취했다.

17. <답> ⑤

㉠은 세종의 평가 방식과 관련한 내용이다. 세종의 평가 방식에서 ‘서울과 지방 관원의 차별화 현상’이 나타났다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 ① 세종은 수령의 임기를 60개월로 늘렸다. ㉠은 지방 수령의 장기 근무(임기 연장)로 인한 지방 수령의 자질 저하와 경·외관의 분화라는 부작용으로 인한 조치에 해당한다.
- ② ‘우수한 자원을 일정 기간 외직으로 파견함으로써 중요 거점에 라도 유능한 수령을 확보하려는 의도였다.’에서 ㉠이 중요 거점의 효율적 통치를 의도하였음을 알 수 있다.
- ③ ‘재판과 같은 전문적 업무나 대규모 토목 공사 등이 발생할 때, 이들은 관찰사가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자원이 되었다.’에서 ㉠이 관찰사가 책임지는 주요 업무에 유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 ④ ‘주변의 수령들에 대한 비리 예방 효과가 있었다.’를 통해서 ㉠이 인근 수령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유도하였음을 알 수 있다.

18. <답> ①

태조 때에는 중앙에서 직접 수령을 파견했으며, 태종 때에는 이전 출신의 수령 진출을 통제하였다. 또한, 세종 때에는 수령직 대기자인 이전 및 잡직자를 대상으로 수령취재법이 시행되었고, 공신 및 대신의 자제를 수령으로 파견하고, 문과 출신의 우수한 인재를 수령으로 파견하였다. 이를 통해 지방 수령의 출신 배경별 구성이 다양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19. <답> ④

이 글에서 ‘명문(明文)’은 ‘글로 명백히 기록된 문구. 또는 그런 조문’, ‘사리가 명백하고 뜻이 분명한 글’을 뜻한다. ‘세상에 나 있는 좋은 소문’은 ‘명문(名聞)’의 사전적 정의이다.

[20~22] 독서-예술

[지문 분석]

초현실주의 예술 운동은 1924년 앙드레 브르통의 ‘초현실주의 선언’(초현실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계기)을 계기로 하여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초현실주의 선언에서 앙드레 브르통은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한 종래의 세계관이 지닌 허구성(브르통이 부정적으로 본 것)을 직시하고, 이를 통해 예술이 추구해야 할 비전으로 이성과 논리의 울타리 밖에 존재하는 무의식 세계(브르통이 긍정적으로 본 것)를 제시하였다.

1문단: 초현실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계기

브르통은 삶과 예술을 이성적으로 바라보는 사실주의적 태도(브르통이 비판한 것)를 비판하였다. 그는 사실보다는 그 이면에 내재하고 있는 무의식 속의 환상과 경이, 그리고 그것을 표현하기 위한 자유로운 상상력(브르통이 강조한 것)을 강조하였다. 지금까지의 예술이 표방해 왔던 심미적이고 윤리적인 의식에 방해 받지 않는 자유로운 상상력이야말로 무의식 세계가 지닌 신비로운 이미지에 접근해 갈 수 있는 중요한 힘이라고 믿었다. 이러한 무의식 세계에 대한 초현실주의의 관심은 프로이트의 정신 분석학(초현실주의의 탄생에 기여한 학문적 배경)에 힘입은 것이었다. 정신 분석학에서 무의식은 꿈이라는 특정한 통로를 통해 은밀하게 그 모습을 암시해 준다고 보았고, 이에 따라 초현실주의 미술에서는 불가사의한 무의식 세계를 엿볼 수 있는 꿈을 형상화하는 데 주력하게 되었다.

2문단: 초현실주의가 무의식 세계를 중시하게 된 학문적 배경

브르통은 메시지의 전달이라는 관습에서의 해방과 예술의 절대적 자유를 보증하는 초현실주의의 핵심적인 방법론으로 자동기술법을 주장하였다. 자동기술법은 그때그때 우연하게 생겨난 이미지들을 자유로운 상상력으로 표출해 나가는 방법(자동기술법의 개념)으로, 브르통은 이 자동기술법을 통해 현실에 의해 가려져 있던 삶의 심연과 무의식 세계를 드러낼 수 있다(자동기술법의 효과)고 생각하였다.

3문단: 초현실주의의 핵심적인 방법론으로서의 자동기술법

초현실주의 작가들은 자동기술법이라는 새로운 창작 이론을 근거로 하여 독창적인 여러 가지 표현 기법을 창안해 냈다. 프로타주, 데페이즈망, 콜라주(자동기술법을 근거로 한 독창적인 표현 기법의 종류) 등이 그것인데, 프로타주는 나뭇결이나 거친 물체면 위에 종이를 대고 연필로 문질렀을 때 우연히 나타나는 이미지를 회화에 적용하는 기법(프로타주의 개념)이고, 데페이즈망은 각기 다른 이미지의 엉뚱한 결합을 통해 일상의 관념이나 시각적 질서 체제를 뒤집어 꿈에서와 같은 환상적 이미지를 창조하는 기법(데

페이즈망의 개념)이다. 콜라주는 화면에 인쇄물, 천, 쇠붙이, 모래 등의 이질적인 물질을 아무 관련성 없이 재배치하여 무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는 환상적인 이미지 세계를 창조하는 기법(콜라주의 개념)이다. 이러한 다양한 표현 기법들은 무의식 세계를 표현하는데 필요한 우연적 이미지와 자유로운 상상력을 중시하여 창안된 것으로, 초현실주의 회화를 더욱 풍성하게 해 주는 데 기여(프로타주, 데페이즈망, 콜라주의 효과)하였다.

4문단: 초현실주의 작가들이 창안한 표현 기법

초현실주의는 합리적, 이성적 사유에 얽매어 있던 근대 서구의 세계관을 비판하면서 무의식의 세계라는 새로운 예술의 지평을 열어 가고자 했던 혁신적인 운동이었다. 틀에 박히지 않은 자유로운 상상력을 중시하는 현대 미술의 개방적인 예술관이 초현실주의가 개척하고 제시한 비전에 그 근간을 두고 있다는 점(초현실주의가 현대 미술에 끼친 영향력)에서 초현실주의가 20세기 현대 미술에 끼친 영향력을 짐작할 수 있다.

5문단: 초현실주의가 현대 미술에 미친 영향

- 주제: 초현실주의가 지향한 예술 세계와 창작 기법
- 해제: 초현실주의가 표방한 예술 세계와 그것을 구현하기 위해 사용한 표현 기법을 소개하고 있는 글이다. 초현실주의는 이성과 논리의 밖에 존재하는 무의식 세계를 지향해야 한다고 강조한 브르통의 ‘초현실주의 선언’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초현실주의는 프로이트의 정신 분석학에 영향을 받아 무의식 속의 환상과 경이의 표현에 필요한 우연적 이미지와 자유로운 상상력을 중시하였고, 자동기술법이라는 새로운 창작 이론을 근거로 하여 프로타주, 데페이즈망, 콜라주 등의 표현 기법을 창안해 내었다. 무의식 세계를 표현하기 위해 자유로운 상상력을 강조한 초현실주의의 작품 경향은 개방적인 예술관을 중시하는 현대 미술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지문 확인]

1문단

*초현실주의 예술 운동은 브르통의 초현실주의 선언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시작됨
 *브르통은 예술이 추구해야 할 비전으로 이성과 논리의 울타리 밖에 존재하는 무의식 세계를 제시함

2문단

*브르통은 삶과 예술을 이성적으로 바라보는 사실주의적 태도를 비판함
 *브르통은 사실보다는 그 이면에 내재하고 있는 무의식 속의 환상과 경이, 그리고 그것을 표현하기 위한 자유로운 상상력을 강조함
 *프로이트의 정신 분석학이 초현실주의의 탄생에 기여함
 *초현실주의 미술에서는 불가사의한 무의식 세계를 엿볼 수 있는 꿈을 형상화하는 데 주력하게 됨

3문단

*브르통은 초현실주의의 핵심적인 방법론으로 자동기술법을 주장함
 *자동기술법: 그때그때 우연하게 생겨난 이미지들을 자유로운 상상력으로 표출해 나가는 방법

4문단

*자동기술법을 근거로 하여 창안된 독창적인 여러 가지 표현 기법: 프로타주, 데페이즈망, 콜라주
 *프로타주: 나무결이나 거친 물체면 위에 종이를 대고 연필로 문질렀을 때 우연히 나타나는 이미지를 회화에 적용하는 기법
 *데페이즈망: 각기 다른 이미지의 엉뚱한 결합을 통해 일상의 관념이나 시각적 질서 체계를 뒤집어 꿈에서와 같은 환상적 이미지를 창조하는 기법
 *콜라주: 화면에 인쇄물, 천, 쇠붙이, 모래 등의 이질적인 물질을 아무 관련성 없이 재배치하여 무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는 환상적인 이미지 세계를 창조하는 기법

5문단

*현대 미술은 이성 너머의 세계에 대한 인간의 관심을 예술의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초현실주의의 영향을 받음

20. <답> ⑤

초현실주의의 작품 경향과 창작 기법에 초점을 둔 글로, 초현실주의가 미술 이외의 영역으로 확산되었다는 내용이나 그 과정에 대해 서술한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

- ① 1문단에서 브르통의 ‘초현실주의 선언’이 계기가 되어 초현실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 ② 마지막 문단에서 틀에 박히지 않은 자유로운 상상력을 중시하는 현대 미술의 개방적인 예술관이 초현실주의가 개척하고 제시한 비전에 근간을 두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 ③ 2문단에서 초현실주의가 프로이트의 정신 분석학에 영향을 받아서 무의식 세계를 표현하는 데 필요한 자유로운 상상력을 중시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 ④ 3문단에서 우연하게 생겨난 이미지들을 자유로운 상상력으로 표출해 나가는 자동기술법을 초현실주의의 핵심적인 방법론으로 설명하고 있다.

21. <답> ④

3문단에서 초현실주의는 메시지의 전달이라는 관습에서의 해방을 추구했고, 4문단에서 초현실주의의 표현 기법이 이미지를 창조하는 기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보기>에서는 에른스트가 무의식의 세계에서나 볼 수 있는 불가사의한 이미지를 형상화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를 고려할 때, 에른스트의 작품이 이미지보다 메시지의 전달에 초점을 둔 작품이라고 감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① 프로타주 기법이 나뭇결이나 거친 물체면 위에 종이를 대고 문질렀을 때 우연히 나타나는 이미지를 회화에 적용하는 기법이라는 점에서 적절한 감상이다.
- ② 초현실주의가 합리적, 이성적 사유에 얽매어 있던 근대 서구의 세계관을 비판하면서 무의식 세계를 중시했다는 점에서 적절한 감상이다.

- ③ 초현실주의가 지금까지의 예술이 표방해 왔던 심미적이고 윤리적인 의식에 방해 받지 않았다는 점에서 적절한 감상이다.
- ⑤ 초현실주의가 예술의 절대적 자유를 보증하는 자동기술법을 핵심적인 방법론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적절한 감상이다.

22. <답> ③

1문단에서 초현실주의의 선구자인 브르통이 예술이 추구해야 할 비전으로 이성과 논리의 울타리 밖에 존재하는 무의식의 세계를 제시하였다고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 문단에서 초현실주의가 합리적, 이성적 사유에 얽매어 그 동안 등한시되었던 무의식의 세계라는 새로운 예술 세계의 지평을 열어 가고자 했던 혁신적인 운동이었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초현실주의가 개척하고 제시한 비전은 이성 너머의 세계에 대한 인간의 관심을 예술의 영역으로 끌어들이야 한다는 것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 ① 초현실주의가 개척하고 제시한 비전은 기존 회화가 표방한 가치를 창의적으로 계승하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과 자유로운 상상력을 중심으로 새로운 예술적 지평을 여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② 초현실주의는 삶과 예술을 이성적으로 바라보는 사실주의적 태도를 비판하였다.
- ④ 초현실주의는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한 종래의 합리적인 세계관을 부정하였다.
- ⑤ 초현실주의가 현실 세계의 문제를 외면하지 않는 참여 정신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은 아니다.

[23~26] 문학-고전 소설

[지문 분석]

[앞부분의 줄거리]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깨끗한 절개를 지닌 **원자허**(元子虛)(생육신의 하나인 원호, 올바른 역사를 판단할 수 있는 정의로운 인물이며, 글쓴이의 대변인임)가 야(野)에 묻혀 살아가던 어느 날 밤, 책을 뒤적거리다가 밤이 이슬해지자 책상에 기대어 **잠이 든다**.(입몽) 꿈속에서 어느 강 언덕에 이르렀는데 달빛은 낮처럼 밝고 물빛은 비단을 편 듯 아름다웠다. 그는 홀연히 눈을 들어 긴 휘파람 소리를 내며 시를 낭랑히 읊는다.

시 읊기를 끝내고 주위를 서성이고 있을 무렵, 별안간 저 쪽 먼 곳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 왔다. 그리고는 얼마 안 돼 갈꽃 깊은 곳에서 아름다운 사내 하나가 나타났다. 그는 야복(野服)에 복건을 썼으며, 정신이 맑고 눈썹이 빼어나 옛날 수양의 모습을 지닌 듯하였다. 그는 자허의 앞에 나와 고개 숙여 인사를 하며,

“어찌 이렇게 늦게 오셨습니까? 전하께서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였다. 자허는 그가 산귀신이나 물귀신이 아닌가 하고는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다. 그러나 그의 얼굴이 준수하고 행동이 단아한 것을 보고는 자허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속으로 그를 칭찬하였다.

자허는 그의 뒤를 따라 걸어갔다. 그 곳에는 정자 한 채가 우뚝 솟아 강을 굽어보고 있었다. 그 위에 **임금**(단종)이 난간에 의지하여 앉아 있고 그 곁에는 벼슬아치의 옷을 입은 다섯 사람이 임금을 모시고 있었다. 그들은 이 세상의 호걸로 용모가 당당하고 풍채가 늙름하였다. 또한 가슴에는 고마 도해(叩馬蹈海)의 의리와,

경천 봉일(擎天捧日)의 충성을 간직하고 있어, 참으로 육 척의 고아(孤兒)도 부탁할 만한 사람이었다.

그들은 자허가 오는 것을 보고 일제히 마중을 나왔다. 자허는 먼저 왕에게 나아가 문안을 여쭙고 되돌아 와서 각자 자리에 앉기를 기다렸다가 맨 끝에 앉았다. 자허는 어떻게 된 까닭인지 알 수 없어서 마음속으로 몹시 불안해하고 있었다. 그때 임금이 말하였다.

“내 항상 경의 꽃다운 지조를 그리워하였소. 오늘 이 아름다운 밤에 우연히 만났으니 조금도 이상하게 생각 마오.”

자허는 그제야 의심을 거두고 일어서서 은혜에 감사하였다.

그 후 자리가 정해지자 그들은 고금(古今) 국가의 흥망을 흥미진진하게 논하였다. 복건 쓴 이는 탄식하면서

“옛날 **요·순·우·탕**(중국 고대의 임금들로 왕위를 자식에게 물리지 않고 동시대의 가장 뛰어난 자에게 물려주었음)은 만고의 죄인입니다. 그들 때문에 뒷세상에 여우처럼 아양 부려 임금의 자리를 뺏은 자가, 선위(禪位)를 빙자하여 신하로서 임금을 치고서도 정의를 외쳤습니다. 그러니 이 네 임금이야말로 도둑의 시초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라고 말했다.

그러자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왕은 얼굴빛을 바로잡고,

“아니오. 경은 이게 대체 무슨 말이오? 네 임금이 무슨 허물이 있겠소? 다만 **그들을 빙자하는 놈**(수양대군을 의미)들이 도적이 아니겠소?”

하고 말했다. 그러자 복건 쓴 이는 머리를 조아리고 절하며,

“마음속에 불평이 쌓여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지나치게 분개했습니다.”

하며 사과했다.

그러자 임금은 “그렇게 미안해 할 필요는 없소. 오늘은 **귀한 손님**(원자허)이 이 자리에 오셨는데 다른 이야기가 무슨 필요 있겠소. 다만 달은 밝고 바람이 맑으니, 이렇게 아름다운 밤을 어찌 그냥 보내겠소?”

하고 마을에 사람을 보내 술을 사 오게 했다. **술이 몇 잔 돌아 왕은 흐느껴 울며 말했다**.(감상과 애상의 정서 고조)

“**경들은 각기 자기의 뜻을 말하여 남몰래 품은 원한을 풀어 분이 어떠할꼬?**”(시를 짓게 되는 이유, 단종 자신이 말하지 못한 원한이 있음을 암시)(중략)

얼마 되지 않아서 어떤 기이한 사내 하나가 뛰어 들었는데, 그는 썩썩한 무인(武人)이었다. 키가 크고, 용맹이 뛰어났으며, 얼굴은 포갠 대추와 같고, 눈은 샛별처럼 번쩍었다. 그는 옛날 문천상의 정의와 진중자의 맑음을 모두 가지고 있어, 그 늙름한 모습은 사람들에게 공경심을 일으키게 했다. 그는 왕 앞에 나아가 인사를 드린 뒤 다섯 사람들을 돌아보며,

“**애답다. 썩은 선비들아. 그대들과 무슨 대사(大事)를 꾸렸단 말인가?**”(지조를 외치나 실천력이 없는 문인들에 대한 비판, 사육신 중 유응부를 제외한 다섯은 문인이었음)

하고, 곧 **칼**(무인의 기개 상징)을 뽑아 일어서서 춤을 추며 슬피 노래를 부르는데 그 마음은 강개하고, 그 소리는 큰 종을 울리는 듯 싶었다.

바람(운명)이 쓸쓸하여 앞 지고(하강의 이미지) 물결 찬데(시대상의 인식)

칼 안고 휘파람(칼, 휘파람: 무인의 기개) 길게 부니 복두성(단종)은 기울었네.

살아서 충성하고 죽어서는 굳센 혼을 마음에 품으니 (살아서는 단종 복위를 위해 노력하고, 목숨을 버려 충성함)

어찌 강에 비친 한 조각 동근 달(처세에 익숙한 선비)과 같겠는가.

노래가 끝나기 전에 달은 검고 구름은 슬픈 듯, 비바람은 트립하듯 큰 소리로 우는데(달, 구름, 비바람: 감정 이입의 대상), 갑자기 벼락치는 소리가 크게 나 그들은 모두 깜짝 놀라 흩어졌다. 자허도 역시 놀라 깨어 보니 모두 한바탕 꿈이었다.(각몽)

자허의 벗 해월 거사(황여일, 임제와 같은 시기의 문인으로 현실에 대한 회의적 시각을 대신 전하는 글쓴이의 분식 혹은 대변자)는 이 꿈 이야기를 듣고 원통하고 분해하며,

“예로부터 임금과 신하가 모두 어둡고 흐려 끝내 나라를 얻은 일이 많았네. 그런데 임금도 현명하고 여섯 신하도 또한 모두 충성스러운 선비였구려.(다섯 신하를 ‘씩은 선비’로 표현했으나 이는 유응부의 충성심을 강조하는 것일 뿐, 다섯 신하를 비하하는 것은 아님) 어찌 이처럼 임금이 나올 수 있으며, 이처럼 충성스러운 신하들이 있을 수 있겠는가? 그런데도 멸망의 화가 닥쳤으니 정말로 참혹할 뿐이네. 아아, 슬프고 슬프니, 이것이 정말 하늘(인간과 세계를 주관하는 초월적 존재)의 뜻이란 말인가. 하늘의 뜻이라면 착한 이에게 복을 주며, 악한 놈에게 재앙을 주어야 하는 게 (권선징악) 아닌가. 그러나 만일 이것이 하늘의 뜻이라면 어둡고 막연하여 그 이치를 자세히 알기 어려울 것일세. 그러니 이 세상에 한갓 지사(志士)의 한(恨)만 더할 뿐이구려.”(해월 거사는 현명한 임금과 충성스러운 신하의 죽음을 원통해하며 하늘을 원망하고 있음)

하고 말하였다.

- 작자 미상, ‘원생몽유록’

▣ 핵심 정리

- 연대 : 선조 때(16세기)
- 갈래 : 한문 소설, 몽유록계 소설
- 성격 : 애상적, 저항적, 비판적
- 시점 : 전지적 작가 시점
- 특징
 - 몽유에 의한 전개 방식을 택하였다.
 - 환상적이고 낭만적인 가공의 세계에 사회 현실을 투사했다.
 - 등장 인물들은 실존 인물이면서 작가의 감정이나 의도로 개성적인 인물로 성격화되었다.
- 제재 : 꿈속에서의 단종과 사육신(死六臣)과의 만남
- 주제
 - 인간사의 부조리에 대한 회의
 - 모순된 정치 권력의 비판
- 의의 : ‘몽유록’의 전형을 확립한 작품
- 출전 : 《백호집》
- 인물

현실 세계 - 원자허, 해월거사

꿈의 세계 - 여섯 명의 신하, 야복에 복건을 쓴 사나이. 육 척의 고마(임금)

■ 원자허(원생) : 깨끗한 절개를 가진 선배이지만 과거에 여러 번 낙방하고 주경야독을 하는 가난한 선비로, 꿈속에서 왕과 신하들(단종과 사육신)을 만나 대화를 나누게 된다. 나라의 위급한 상황을 구할 수 없다는 비분강개하는 마음과 품고 있으며, 이 작품의 외부 해설자이자 관찰자이다.

■ 해월 거사 : 작중 관찰자에게 꿈속의 일을 전해 듣는 인물로서 작품의 끝머리에 논평을 함으로써 인간사에 대한 일종의 체념, 비극적이면서 암울한 역사에 대한 작가의 의식을 대변해 주고 있다.

■ 내용의 구성(사건) : 액자 구성 (몽유록의 일반적인 서사 구조인 '입몽 이전 - 몽유 과정 - 각몽 이후'로 이루어져 있고, 몽유 과정은 '배회 - 만남 - 토론 - 시연(詩宴)'의 순차적인 서술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몽 이후에는 해월 거사라는 원자허의 친구가 전체적인 꿈 내용에 관하여 논평을 하고 있다.)

■ 입몽 이전 : 원자허는 강개한 선비로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며, 고금의 흥망에 유달리 관심을 지니고 있는 인물임. 원자허가 책을 읽다 잠이 들

■ 몽유 과정 : 꿈속에서 단종과 사육신을 만남(원자허가 장사 언덕에서 시를 읊으며 배회함. 원자허가 ‘복건 쓴 이’의 안내를 받아 정자에서 임금과 다섯 신하를 만남. 왕과 ‘복건 쓴 이’가 토론을 벌임. 왕과 여섯 신하, ‘복건 쓴 이’, 원자허가 각기 비분강개한 시를 읊음)

■ 각몽 이후 : 해월 거사가 원자허의 꿈에 대해서 논평하고 시를 읊음

▣ 줄거리

과거에 여러 번 낙방한 원자허(원생)는 가난하지만 정의로운 선비로, 역사책을 읽다가 나라가 멸망하는 부분이 나오면 언제나 비분강개하여 흐느껴 우는 선비였다. 8월의 어느 날 저녁, 달빛을 이용하여 독서를 하다가 밤이 깊고 정신이 어지러워 책상에 기대어 문득 잠이 든다. 꿈속에서 원생의 몸이 공중으로 날아오르더니 어느 강 언덕 위에 이르게 되었다.

원생이 몽중에 신선이 된 기분으로 휘파람을 불면서 시 한 수를 읊고 있었는데, 문득 복건을 쓴 사람이 나타나 원생에게 함께 동행하기를 요청했다. 그 선비를 따라 정자가 한 채 우뚝 솟은 곳으로 가보니, 정자에는 어떤 이가 난간을 의지하고 있었는데 옷차림으로 보아 왕이 틀림없었다. 그 옆에는 대부의 의관을 한 다섯 사람이 그를 호위하고 앉아 있었다. 그들은 원생을 일제히 마중하였으며, 원생은 바로 정자로 올라가 왕에게 문안을 드리고 맨 끝자리에 가서 앉았다.

자리를 잡자 그들은 고금의 흥망사(興亡史)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먼저 복건을 쓴 사람이 중국 고대의 성왕인 요순·탕·무의 네 성군들이 왕위 선양을 이유로 왕군을 빼앗았음을 비판하였다. 그러나 왕은 그를 타이르며 네 성왕은 죄가 없고 다만 그들의 양위를 빙자한 자가 도적이라고 말한다.

이윽고 왕은 일행들과 함께 술잔을 주고받으며 지나간 일들에 대한 후회와 한탄의 마음을 읊었다. 그러자 신하들이 시로 화답하고 마지막에 원생이 시를 읊었다. 원생이 감정에 북받쳐 눈물을 흘리자 모두 슬픔에 잠겼다.

이때 갑자기 뒤늦게 참석한 한 장부가 자리로 뛰어 들어와 왕에

고 3

게 인사한 다음, 썩은 선비들과 큰일을 이룰 수 없다는 강개한 심정을 노래로 슬피 표현하며 칼을 뽑아 춤을 추었다. 노래가 미처 끝나기도 전에 갑자기 날이 어두워지며 비바람이 치고 우레가 한 번 울리자 모두 놀라 흩어졌다. 원생도 놀라 깨어 보니 한바탕의 꿈이었다. 원생의 꿈 이야기를 들은 해월 거사는 현명한 임금과 충성스러운 신하들이 화를 당한 것에 대하여 하늘을 원망한다.

▣ 이해와 감상

몽유록계의 작품으로서, 생육신의 한 사람인 원호를 주인공으로 하여 사육신 및 단종의 사후 생활을 그린 것이다. 즉, 주인공 원생이 어느 가을 밤에 꿈속에서 단종과 사육신에 비유된 인물들을 만나 술을 마시고 노래를 지어 부르며 비분강개하다가 깨었다는 이야기이다. 세조의 왕위 찬탈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소재로 하여 정치 권력의 모순을 폭로한 이 작품은 중세적 권위에 대한 비판 정신을 표현하였다고 볼 수 있다.

23. <답> ⑤

해월 거사는 현명한 임금과 충성스러운 신하의 죽음을 원통해하며 하늘을 원망하고 있다. 즉, 해월 거사는 하늘의 뜻이라면 착한 이에게 복을 주고 악한 이에게 재앙을 주어야 하는데, 임금과 신하는 착한데도 불구하고 재앙을 받았다고 생각하며 하늘을 원망한다. 따라서 세상사는 하늘의 이치를 따르는 것이라며 이를 근거로 부조리한 현실을 비판하였다는 ⑤는 적절하지 않다.

- ① 사회의 부조리를 ‘꿈’이라는 소설적 장치를 통해 간접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 ② 꿈속에서의 원자허의 행적을 언급한 것으로 적절한 감상이다.
- ③ 전지적인 서술자가 편집자적 논평을 통해 작중 상황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 ④ 운문을 통해 부정적인 현실에 애통해하는 무인(武人)의 애상감을 심화시키고 있다.

24. <답> ⑤

이 글과 <보기>는 모두 현실과 꿈의 이원적 이야기 구조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 글은 현실과 꿈이 연장선상에 존재하면서 주인공의 갈등이 해소되지 않은 채 종결되는 데 반해, <보기>는 천상계와 인간계라는 대립 구도를 통해 주인공의 갈등이 해소(종교에의 귀의)되는 과정을 담고 있다. 이 글의 주인공은 내적 갈등이 해소되지 않으므로 ⑤는 적절하지 않다.

- ① 이 글의 주인공은 책에 기대어 잠들었다가 벼락 치는 소리에 잠을 깬다. 이와 달리 <보기>의 주인공은 육관 대사의 명으로 인간 세계로 추방(입몽)되며, 한 호승에 의해 잠에서 깬다.
- ③ 이 글은 꿈꾸기 전후와 꿈속의 주인공이 동일한 의식으로 나타나지만, <보기>의 주인공은 꿈꾸기 전후는 ‘성진’의 의식을 갖고, 꿈속에서는 ‘양소유’의 의식을 갖는다.

25. <답> ①

<보기>는 1행에서 화자가 자연물과 정서적 일체감을 느끼는 감정이입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A]에서의 ‘하늘’은 인간과 세계를 주관하는 ‘초월적 존재’로서 설정되었기 때문에 화자의 감정이 이입된 자연물로 볼 수 없다.

- ② [A]는 현명한 임금과 충성스러운 신하를 떠올리는 부분에서,

<보기>는 ‘지난날 생각하니’라는 표현을 통해서 지난날에 대한 회고의 정을 확인할 수 있다.

- ③ [A]에서는 현명한 임금과 충성스러운 신하를 잃은 현실에 비통해하는 모습이 드러나며, <보기>의 화자는 새와 짐승들과 강산에 감정 이입을 하여 망해 버린 현실에 대한 비통함을 표현하고 있다.

- ④ [A]는 ‘지사(志士)의 한(恨)’을 통해서, <보기>는 ‘글 아는 사람 노릇, 어렵기도 하구나.’를 통해서 지식인의 고뇌를 확인할 수 있다.

- ⑤ [A]는 훌륭한 임금과 신하를 잃은 것에 대해, <보기>는 ‘무궁화 온 세상’, 즉 나라를 잃은 것에 대해 절망감을 표현하고 있다.

26. <답> ③

‘얼굴빛을 바로잡는다.’는 것은 복건을 쓴 이의 말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임금의 정서가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얼굴에 엄정한 빛을 나타냄.’의 뜻을 가진 ③이 가장 적절하다.

- ① 생색(生色) : 다른 사람 앞에 당당히 나설 수 있거나 자랑할 수 있는 체면.
- ② 반색 : 매우 반가워함, 또는 그런 기색.
- ④ 사색(死色) : 죽은 사람처럼 창백한 얼굴빛
- ⑤ 화색(和色) : 얼굴에 드러나는 온화하고 환한 빛.

[27~30] 문학-현대 소설

[지문 분석]

고갯길에 다다랐다.(공간적 배경 - 서사 구조상 갈등을 암시함)
 이 고개(성삼과 덕재의 우정의 공간)는 해방 전전 해 성삼이가 삼팔 이남 천태 부근으로 이사 가기까지 덕재와 더불어 늘 풀 베러 넘나들던 고개다.

성삼이는 와락 저도 모를 화가 치밀어 고함을 질렀다.
 “이 자식아, 그 동안 사람을 몇이나 죽였냐?”

그제야 덕재가 힐끗 이쪽을 바라다 보더니 다시 고개를 거둔다.
 “이 자식아, 사람 몇이나 죽였어?”

덕재가 다시 고개를 이리로 돌린다. 그러고는 성삼이를 쏘아본다. 그 눈이 점점 빛을 더해 가며 제법 수염발 잡힌 입 언저리가 실룩거리더니,(분노, 억울함의 심리)

“그래 너는 사람을 그렇게 죽여 봤니?”(사람을 죽이지 않았다는 의미)

이 자식이! 그러면서도 성삼이의 가슴 한복판이 환해짐을 느낀다.(덕재의 결백을 확인한 데서 오는 성삼의 안도감) 막혔던 무엇이 풀려 내리는 것만 같은.

그러나,
 ≤“농민동맹 부위원장쯤 지낸 놈이 왜 피하지 았구 있었어? 필시 무슨 사명을 띠구 잠복해 있는 거지?”

덕재는 말이 없다.

“바른 대루 말해라. 무슨 사명을 띠구 숨어 있었냐?” ≥ (덕재이 결백함을 확인하고자 하는 성삼의 의도적 질문)

그냥 덕재는 잠잠히 건기만 한다. 역시 이 자식 속이 풀리는 모양이구나. 이런 때 한번 낫짝을 봤으면 좋겠는데 외면한 채 다시는 고개를 돌리지 않는다.

성삼이는 허리에 찬 권총을 잡으며,
“변명은 소용없다. 영락없이 넌 총살감이니까. 그저 여기서 바른 대루 말이나 해봐라.”

덕재는 그냥 외면한 채,
“변명은 할려구두 않는다. 내가 제일 빈농의 자식인 데다가 근농꾼이라구 해서 농민동맹 부위원장 됐든 게 죽을죄라면 하는 수 없는 거구, 나는 예나 이제나 땅 파먹는 제주밖에 없는 사람이다.”(정치적 신념에 의해 농민 동맹 부위원장이 된 것이 아님, 덕재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농사밖에 모르는 순박한 인물임을 알 수 있음)

그리고 잠시 사이를 두어,
“지금 집에 아버지가 앉아 누웠다. 벌써 한 반년 된다.”

덕재 아버지는 홀아비로 덕재 하나만 데리고 늙어 오는 빈농꾼이었다. 칠 년 전에 벌써 허리가 굽고 검버섯이 돋은 얼굴이었다.
(중략)

그러나 이런 때 그런 일로 웃거나 농담을 할 처지가 아니라는 걸 깨달으며,

“하여튼 네가 피하지 않구 남아 있는 건 수상하지 않아?”
“나두 피하려구 했었어. 이번에 이남서 쳐들어오른 사내란 사넨 모주리 잡아 죽인다구 열일곱에서 마흔 살까지의 남자는 강제투복으로 이동하게 됐었어. 할 수 없이 나두 아버질 업구라두 피난 갈까 했지. 그랬드니 아버지가 안 된다는 거야. 농사꾼이 다 지어 놓은 농살 내버려두구 어딜 간단 말이나구.(농사꾼에게 농사가 제일 중요함, 덕재와 성삼이의 동질성) 그레 나만 밍구 농사일루 늙으신 아버지의 마지막 눈이나마 내 손으루 감겨 드러야겠구, 사실 우리같 이 땅이나 파먹는 것이 피난 간댕자 별수 있는 것두 아니구…….”(덕재가 피난 가지 않은 이유)

지난 유월달에는 성삼이 편에서 피난을 갔었다. 밤에 몰래 아버지더러 피난 갈 이야기를 했다. 그때 성삼이 아버지도 같은 말을 했다. 농사꾼이 농사일을 늘어놓구 어디루 피난 간단 말이나. 성삼이 혼자서 피난을 갔다. 남쪽 어느 낯설은 거리와 촌락을 헤매 다니면서 언제나 머리에서 떠나지 않는 건 늙은 부모와 어린 처자에게 맡기고 나온 농사일이었다. 다행히 그때나 이제나 자기네 식구들은 몸 성히들 있다.(자신의 일을 회상하는 성삼)

고갯마루를 넘었다.(성삼의 갈등이 어느 정도 해소됨을 암시) 어느새 이번에는 성삼이 편에서 외면을 하고 걷고 있었다.(덕재를 오해했던 자신에 대한 죄책감의 표현) 가을 햇볕이 자꾸 이마에 따가왔다.(성삼이의 심리 표현, 죄책감) 참 오늘 같은 날은 타작 하기에 꼭 알맞은 날씨라고 생각했다.

고개를 다 내려온 곳(갈등 해소의 공간)에서 성삼이는 주춤 발걸음을 멈추었다.

저쪽 별 한가운데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이 허리를 굽히고 섰는 것 같은 것은 틀림없는 학때(백의 민족인 우리 민족과 화합 자유의 상징)였다. 소위 삼팔선 완충 지대가 되었던 이곳.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은 그동안에도 이들 학들만은 전대로 살고 있는 것이었다.(민족의 대립을 극복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암시)

지난날 성삼이와 덕재가 아직 열두살 살쪼 났을 때 일이었다.(덕재와 학 사냥 하던 어린 시절을 회상함, 우정 회복의 가능성 암시) 어른들 몰래 들어서 울가미를 놓아 여기 학 한 마리를 잡은

일이 있었다. 단정학이었다. 새끼로 날개까지 엮어매 놓고는 매일 같이 들어서 나와 학의 목을 쓸어안는다, 등에 올라탄다, 야단을 했다. 그러한 어느 날이었다. 동네 어른들의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서울서 누가 학을 쏘러 왔다는 것이다.(우리 민족의 수난을 암시) 무슨 표본인가를 만들기 위해서 총독부(시대적 배경 - 일제 강점기임을 알 수 있음)의 허가까지 맡아 가지고 왔다는 것이다. 그 길로 둘이는 별로 내달렸다. 이제는 어른들한테 들켜 꾸지람 듣는 것 같은 건 문제가 아니었다. 그저 자기네의 학이 죽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뿐이었다.(생명의 소중함, 휴머니즘) 숨 돌릴 겨를도 없이 잡풀 새를 기어 학 발목의 울가미를 풀고 날개의 새끼를 끌었다.(일제에 대한 저항 의미, 학에게 자유를 줌) 그런데 학은 잘 걷지도 못하는 것이다. 그 동안 엮매여 시달린 탓이리라. 들어서 학을 마주 안아 공중에 투쳤다. 별안간 총소리가 들렸다.(대립과 긴장의 고조) 학이 두서너 번 날갯짓을 하다가 그대로 내려왔다. 맞았구나.(성삼과 덕재의 안타까움) 그러나 다음 순간, 바로 옆 풀숲에서 펄럭 단정학 한 마리가 날개를 펴자 땅에 내려앉았던 자기네 학도 긴 목을 뽑아 한번 울음을 울더니 그대로 공중에 날아올라, 두 소년의 머리 위에 둥그러미를 그리며 저쪽 멀리로 날아가 버리는 것이었다.(자유회복) 두 소년은 언제까지나 자기네 학이 사라진 푸른 하늘에서 눈을 땔 줄을 몰랐다……

“애, 우리 학 사냥(화해의 계기)이나 한번 하구 가자.” (덕재에게 도망가라는 뜻을 내비침, 이념을 넘어서는 우정의 따뜻함을 보여 줌)

성삼이가 불쑥 이런 말을 했다.
덕재는 무슨 영문인지 몰라 어리둥절해 있는데,
“내 이걸루 울가미 만들어 놀게 너 학을 몰아오너라.”
포승줄을 풀어 쥐더니, 어느새 성삼이는 잡풀 새로 기는 걸음을 쳤다.

대번 덕재의 얼굴에서 핏기가 걷혔다.(성삼이의 제안을 오해한 덕재의 불안한 심리) 줌 전에, 너는 총살감이라던 말이 퍼뜩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이제 성삼이가 기어가는 쪽 어디서 총알이 날아오리랴.(성삼이의 행동에 대한 덕재의 오해)

저만치서 성삼이가 핵 고개를 돌렸다.
“어이, 왜 명추같이 게 섰는 게야? 어서 학이나 몰아오너라!” (덕재에게 도망가라는 뜻을 암시함, ‘학’에 대한 회상을 통해 자유의 의지와 덕재와의 우정을 깨달음)

그제서야 덕재도 무엇(성삼이가 자신을 풀어 주려는 의도)을 깨달은 듯 잡풀 새를 기기 시작했다.

때마침 단정학 두세 마리가 높푸른 가을 하늘에 큰 날개를 펴고 유유히 날고 있었다.(학의 자유→덕재의 자유→이념을 초월하여 성삼이와 덕재가 우정을 회복함, 둘의 갈등이 해소되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 줌)

- 황순원, ‘학’

- 핵심 정리
- 갈래 : 단편 소설
- 배경
- * 시간적 → 1950년 전쟁 당시의 가을
- * 공간적 → 삼팔 접경의 북쪽 마을
- * 사상적 → 전후의식과 휴머니즘

고 3

■ 시점 : 3인칭 작가 관찰자 시점. (부분적으로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

■ 경향 : 휴머니즘

■ 표현

- * 암시와 상징을 통한 주제 유도
- * 짧은 문장(사건 속도 빨라짐)
- * 심리묘사에 있어 외양묘사와 대화 등의 보여주기 기법 사용
- * 중간 중간에 과거 회상을 함(회곡으로 본다면 O.L. 기법)
- * 공간 이동을 통한 갈등 암시(공간 이동하면서 갈등 해소됨)

■ 주제 : 사상과 이념을 초월한 인간애(人間愛)의 실현

■ 인물

- * 성삼 : 이데올로기에 영향을 받지 않은 농민. 덕재와 한 마을에서 자란 친구로 전쟁과 함께 치안 대원이 됨.
- * 덕재 : 전쟁 발발 후 본인의 이념적 동조 없이 단지 빈농(貧農)이라는 이유만으로 농민동맹 부위원장이 된 인물. 순박하고 선량한 마음씨를 지닌 농민.

■ 구성

- * 발단 : 배경과 인물 제시. 황폐해진 마을에 공포 분위기가 감돌.
- * 전개 : 성삼의 갈등. 자청해서 덕재를 호송하는 성삼.
- * 위기 : 성삼과 덕재의 갈등 고조. 자신의 이념적 결백을 주장하는 덕재와 우정을 되돌리려 애쓰는 성삼.
- * 절정 : 학 사냥을 하던 어린 시절의 아름다운 추억을 회상함.
- * 결말 : 갈등의 해소. 성삼이 학 사냥을 제의하며 덕재의 포승줄을 풀어 줌. 단정학의 비상(飛翔).

★ 작품의 제목인 '학'의 상징성

'학'은 백의민족(白衣民族)으로 비유되는 우리 민족을 상징. '학'은 전쟁이 일방적으로 부여한 이데올로기의 갈등 상황을 해소시켜주는 매개물로서, 덕재의 손에 묶여 있던 포승줄이 학을 잡는 올가미로서의 구실을 하게됨으로써 구속이 아닌 자유를 표상하는 반어적 이미지의 역할을 담당한다. 따라서 '학'을 놓아준다는 행위는 이념을 초월한 우정의 회복을 상징한다. 따라서 학은 우정 회복의 매체가 되어 손상된 우정을 치유하는 것이다. 결국 이 소설은, 고결함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별한 애착을 받는 길조인 '학'을 중심으로, 이념적 갈등이 빚은 인간성의 파괴와 상실을 사랑의 힘으로 회복하고자 하는 데 주제 의식을 두고 있다.

'학'을 통해 이념적 갈등이 빚은 인간성의 파괴와 상실을 사랑의 희망으로 극복하자는 주제 의식을 상징적으로 전달함.

▣ 줄거리

한 마을에서 단팍동무로 지냈던 성삼이와 덕재는 6·25가 나면서 이념을 달리하는 적대 관계로 만나게 된다. 치안 대원이 된 성삼이는 덕재가 체포되어 온 것을 보고는 청단까지의 호송을 자청하여 덕재를 데리고 나선다.

호송 도중, 성삼이는 유년 시절 때 호박잎 담배를 나눠 피우던 생각과 흑부리 할아버지네 밤을 서리하다가 들켜 혼이 난 추억들을 떠올리며 내적 갈등을 느낀다.

농민 동맹 부위원장까지 지낸 덕재에 대한 심한 적대감을 품기도 했으나, 대화를 하는 사이에 점차 적대감이 누그러지면서 덕재의 몰(沒)이념성을 알게 된다. 즉, 덕재는 스스로 공산주의 이념에 동조한 것이 아니라 빈농(貧農)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용당했을 뿐으로 사실은 땅밖에 모르는 순박한 농민이었던 것이다.

덕재는 아버지가 병석에 누워 있었고, 또 농사에 대한 고집스러운 애착으로 인해 피난하지 않고 마을에 남게 된 사실을 이야기한다. 성삼이는 자신이 피난 가던 때를 회상하면서 농사일에 대한 걱정 때문에 피난하기를 끝까지 거부하시던 아버지를 떠올리며 덕재의 처지를 어느 정도 이해하게 된다. 어느덧 덕재에 대한 증오심이 점차 우정으로 바뀌면서 '고갯마루'를 넘는다.

성삼이는 고갯길을 내려오면서 전처럼 살고 있는 학 떼를 발견하고는 옛일을 회상하게 된다. 어린 시절, 학을 잡아 얹어매 놓고 괴롭히다가 사냥꾼이 학을 잡으러 왔다는 소문을 듣고 놀라서 학 발목의 올가미를 풀어준 적이 있었다. 그때 처음에는 제대로 날지 못하다가 자유로워진 학이 푸른 하늘로 날아 갔던 일에 대한 추억이 그것이다.

성삼이는 덕재의 포승줄을 풀어 준다. 덕재는 처음에는 성삼이가 자기를 쏘아 죽이려고 이러나 보다고 멍뚱거렸으나, "어이, 왜 맹추같이 게 썩는 게야?" 하는 성삼이의 재촉에 무엇을 깨달은 듯 잡풀 사이로 도망친다. 때마침 단정학(丹頂鶴) 두세 마리가 가을 하늘을 날고 있었다.

27. <답> ④

이 작품의 시점은 작가가 각 인물의 심리 상태나 행동의 동기, 감정, 의욕 등을 분석하여 서술하는 이른바 전지적 작가 시점에 해당한다. '이 자식이! 그러면서도 성삼이의 가슴 한복판이 환해짐을 느낀다.'라는 부분에서 알 수 있듯이 성삼이의 내면 심리가 서술되는가 하면, '좀 전에, 너는 총살감이라던 말이 퍼뜩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이제 성삼이가 기어가는 쪽 어디서 총알이 날아오리라.'라는 부분에서는 덕재의 심리가 서술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덕재의 심리는 그 부분에서만 나타나고 작품의 전편에 걸쳐서는 주로 성삼이의 심리만 서술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한적인 전지적 시점에 가깝다.

- ① 서술자가 작품에 직접 등장하여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드러내는 부분은 찾을 수 없다.
- ② 극적 제시 방법은 대사와 행동으로만 사건을 전달하는 연극적인 방법을 뜻한다. 하지만 이 소설에서는 인물의 심리가 직접적으로 묘사되고 있다.
- ③ 외부적인 사실만 서술하는 것은 관찰자 시점을 뜻하므로 여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 ⑤ 부수적인 인물이 주요 인물에 대해 독자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1인칭 관찰자 시점에 해당한다.

28. <답> ④

어린 시절 성삼과 덕재는 학을 포획하여 올가미에 매어 두고 등에 올라타며 논다. 이렇게 학을 괴롭히던 가해자 성삼과 덕재를 피해자인 학과 동일시할 수는 없다. 또 학의 괴로움은 타인에 의해 자유를 억압당하여 발생하는 것이지만, 성삼과 덕재의 대립은 성삼이 친구인 덕재를 억압하면서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괴로운 처지에 놓인 학이 괴로운 상황에 처하게 될 성삼과 덕재의 운명을 상징한다고는 볼 수 없다.

- ① 삼팔선 완충 지대에 살고 있는 학은 전쟁을 겪은 사람들이 원하는 평화를 상징한다.
- ② 마지막 장면에 자유롭게 날고 있는 학은 자유를 찾은 덕재를 의미한다.
- ③ 학을 본 성삼은 어린 시절 덕재와 했던 학 사냥을 떠올리게 된

다.
 ⑤ 충격에도 살아난 ‘학’은 전쟁의 상처를 딛고 일어날 우리 민족을 상징한다.

29. <답> ⑤
 ‘성삼’이 ‘덕재’를 묶었던 포승줄을 풀고 ‘덕재’에게 학을 몰아오라고 한 것은, 어린 시절 놓쳤던 ‘학’을 다시 잡기 위한 의도가 아니다. ‘성삼’은 과거 회상을 통해 ‘덕재’와 나누었던 우정을 떠올리는 친구인 ‘덕재’에게 도망갈 기회를 주기 위해 ‘덕재’에게 학을 몰아오라고 한 것이다.

- ① 성삼은 어릴 적 친구였던 덕재가 적이 된 현실에 화를 내고 있다.
- ② 성삼은 덕재의 말을 듣고 답답한 마음이 풀리게 되었다.
- ③ 덕재는 앓아누운 아버지 때문에 도망가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다.
- ④ 처음에 덕재는 성삼의 의도를 알아채지 못하고 있다.

30. <답> ②
 이 작품에서 공간의 위치는 인물 간의 갈등 상황과 밀접한 연관을 지니고 있다. ‘마을’에서 성삼이 포승줄에 묶인 덕재를 보면서 인물 간의 갈등이 유발되고, ‘동구 밖’을 거쳐 고갯길을 오르는 사이에 두 인물의 갈등이 고조된다. 그리고 ‘고갯마루’를 넘을 때에는 성삼이 덕재의 처지를 이해하게 된다. 이런 점에서 ‘고갯마루’를 넘었다는 것은 앞으로 성삼과 덕재의 갈등이 해소될 것을 암시한다고 할 수 있다. 뒤에 두 인물이 걸던 ‘들판’에서는 인물 간의 갈등이 사라지게 된다.

[31~32] 문학-현대 소설, 평론

이윽고 술이 끝났다. 모가지 째까지 별경도록 취해서 나서는 간평원들! 금테 안경을 쓴 진수 아내가 사립 밖까지 나와서 배웅을 하자, 그들은 인도하는 진수의 뒤를 따라서 단장과 함께 비틀거렸다. 그러한 그들의 뒤에는, 얼굴이 노랑고 여원 조각인들이 마치 유형수(流刑囚)처럼 묵묵히 따랐다.(잔뜩 주눅 든 조각인들을 비유하는 것)

술 취한 양반들에게 옳은 간평이 될 리 없었다. 그저 작인들의 말은 마이동풍 격으로, 눈두렁에도 바투이 들어서 보는 법도 없이 다만 진수하고만 알아듣지도 못할 왜말을 주절거리면서, 그야말로 처삼촌 산소 별초하듯이 흐지부지 지나갈 뿐이었다.(실제의 작황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간평원들의 태도를 보여 주는 것) 그러면서도 짐짓 성실한 듯이 이따금 단장을 쳐들어 여기저기를 가리키기도 하고, 혹은 수첩에 무엇인가를 적어 넣으면서. 그렇게 허수아비처럼 흐느적거리며 들개의 눈 곁을 지날 때였다.

“왜 메밀을 갈았소?”
 시봉은 들개의 수인사 대답으로 이렇게 물었다.
 “헐 수 있어야죠. 마른 모포기 기다렸댔자 열음 앓을 게고…….”
 들개는 한 손에는 룡대, 한 손에는 낫을 든 채 열적게 대답했다.
 “메밀은 잘 됐구먼.”
 “필요, 이것도 늦게 뿌려서…….”(시봉의 다음 말을 두려워하는 태도로 답한 것)

들개는 시봉의 다음 말을 두려워하는 태도였다.

다른 사람들은 슬금슬금 앞 두렁으로 걸어갔다. 거기서는 아기를 등에 업은 들개의 아내와 누이동생이 바쁘게 두렁콩을 베고 있었다. 덕아는 열일곱의 처녀로서는 놀랄 만큼 어깻죽지가 벌어지고, 돌아앉은 뒷모습이 한결 탐스러웠다. 자기 뒤에 가까이 낫선 사내들이 와 선 것을 깨닫자, 폭 눌러 쓴 수건 밑으로 엿보이는 두 볼이 적이 붉어진 듯은 하나, 낫을 든 손은 여전히 쉼 새가 없었다.

“오빠! 왜 암말도 못 했소?”
 간평꾼들이 물러가자, 덕아는 시무룩해 가지고 돌아오는 들개를 안타까운 듯이 쳐다보았다.
 “말은 무슨 말을 해?”
 “세 좀 매지 말라구…….”
 “그놈들 제멋대로 매는 걸 어떻게.”
 “그럼 오빠는 이까짓 메밀 간 세도 바치려네?”
 덕아는 자못 서글퍼하는 말씨였다.
 “글쎄, 먹고 남으면 바치지!”

들개는 픽 웃었다. 그는 최근에 와서 갑자기 무던히 배짱이 커졌다.

덕아는 오빠의 말에 확실히 일종의 미더움을 느꼈다. 그러나 허리에 낫을 여전히 꽂은 채 담배만 뽀뽀 피우고 앉은 오빠의 마음속은 결코 그리 후련한 것은 아니었다. 그렇다고 해서 메밀밭 위를 바빠 나는 고추잡자리처럼 조급하지도 않았지만.(마음이 후련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조급하지도 않음을 고추잡자리에 비유하면서 구체화함)

이튿날 저녁, 동네 사람들은 진수의 집 사랑에 불러 가서, 진수의 입으로부터 제각기 조각료를 들어 알았다. 그리고 그 무서운 결정에 다들 놀랐다.

그러나 가장 현대적 마름인 소위 평의원 앞에서, 버릇없이 덤뻑 불평을 늘어놓다가는 어느 수작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형편이라,(진수가 조각인을 착취하는 계층임을 알 수 있음) 작인들은 내남없이,

“허 참! 툭툭 다 떨어 봐두 그렇게 될 등 말 등한데……?”
파위의 떡심 풀린 걱정 말이나 중얼거릴 뿐 모두 맥없이 돌아갔다.(터무니없는 조각료에 놀라고 걱정스럽기는 하지만 불평을 했다가는 어떤 불이익이 돌아올지 몰라 맥없이 중얼거리는 것 뿐임)

들개와 철한이들 — 이 동네 교풍 회장인 쇠다리 주사의 말을 빌리면 동네서 제일 콧등이 세고 어긋한 놈들은, 벌써 버릇이 되어서, 미리 의논이라도 한 듯이, 그날 밤에도 진수의 집에서 나오자 슬슬 야학당으로 모여들었다. 어느새 왔는지 꿈보 고 서방도 작은 방 한쪽 구석에 다른 때보다 한풀 더 힘 없이 쭈그리고 앉아 있었다. 이윽고 불강아지* 새끼 같은 야학생들을 죄 돌려보내고는, 까만 딱지 또쭳이가 큰 방으로부터 돌아왔다. 더펄더펄 자란 머리털 위에 분필 가루를 허영게 쓰고, —서른세 살로서는 엄청나게 늙어 보이는 얼굴이었다.

이렇게 소위 콧등이 센 놈들은 저녁마다 야학당에 모여서, 그날 그날의 피로를 잊어 가며 잡담도 하고 농담들도 하다가는, 또쭳이로부터 일본의 탄광 이야기도 듣고, 또 이곳저곳에서 일어나는 조각쟁의 얘기도 들었다.(또쭳이가 조각인들에게 현실의 모순에 대한 구체적인 사건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음) 더구나 조각쟁의에

고 3

관한 이야기는 마치 자기들의 일같이 눈을 깜빡거리며, 혹은 입을 다물고 들었다.

그날 밤에도 그들은 이속토록 거기 모여서 놀았다. 그러다가 마침내, 나올 곳 없는 그해 소작료를 어떻게 할까 하는 말이 누구의 입에선지 나오게 되었다.

- 김정환, '사하촌'

▣ 핵심 정리

- 갈래 : 단편소설, 사실적 수법의 농민소설
- 배경 : 1930년대 어느 여름, 보광사 절 밑의 성동리와 보광리
- 특징 : 작품 서두에서부터 곧바로 사건 전개와 현실적 배경이 제시됨
- 시점 : 전지적 작가 시점
- 의의 : 농민 다수를 주동 인물로 설정하여 농민 문제 해결책 암시
- 주제 : 부조리한 농촌 현실과 농민들의 저항 의지
- 인물 : 이 소설의 등장 인물은, 농촌 현실의 모순이 몇몇 영웅적 인물에 의해서가 아니라 고통받는 농민 전체에 의해서 해결될 수 있다는 작가 의식 때문에, 특별한 주인공의 삶보다는 보광리와 성동리 사람들 전체의 모습을 보여 주는 데 치중하고 있다.
 - 치삼노인 → 자손대대로 복받고 극락갈 것이라는 중의 꾀에 넘어가 절에 눈을 기부한 농부로, 그 눈을 소작을 하면서 중들과 마찰이 생기자 가슴 아파하는 인물이다.
 - 들개 → 치삼노인의 아들로, 가뭄이 들어 물싸움이 일어나자 자기 눈에 물을 대기 위해 노승과 싸움을 하며 중들의 횡포에 분연히 일어서는 동적인물임.
 - 고서방 → 붓목에 눈을 가지고도 물을 못 댈 만큼 천성이 착한 사람이다. 물꼬를 조금 터놓았다가 봉변을 당하며 얼토당토않게 남의 논두렁을 잘랐다는 죄목으로 끌려가 몇 달간 헛고생을 하다가 추석이 지난 뒤에 풀려난다. 풀려난 뒤에도 사방공사 품팔이를 다니나 눈에 입도 차압이 붙자 견디지 못하고 야간도주를 한다.
 - 이주사 → 악덕 지주로 쇠다리 주사댁이라는 별명을 지닌 인물
- 구성
 - 발단 : 흑심한 가뭄으로 인한 궁핍한 농촌의 삶 묘사
 - 전개 : 가뭄과 지주들의 횡포로 인한 농민과 농민, 지주와 소작인 간의 갈등
 - 위기·절정 : 간평원을 통한 지주의 횡포와 농민들의 불만 고조
 - 결말(대단원) : 농민들의 소작 쟁의(爭議)

▣ 줄거리

보광사의 눈을 부치고 사는 성동리에 흑심한 가뭄이 들었다. 3년 전 수도 저수지가 생긴 탓으로 냇물조차 한 방울 없다. 들개의 부친 치삼 노인은 복받는다라는 중의 꾀임에 물길 좋은 논 두마지기를 보광사에 시주하고, 찢어지게 가난한 살림에 심한 신경통으로 고생하며 아들에게 미안해하고 있다. 성동리 농민들이 밤낮으로 몰려가서 애원도하고, 수원지 안에까지 들어가서 물을 빼내려고 소동을 벌인 탓으로 마침내 저수지 물을 터놓게 되었다. 그러나 중들의 행패로 가난한 소작인들의 눈에는 물도 제대로 댈 수 없게 된다.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민 들개는 뒷일이야 어찌 되든 노승이 가로막는 물길을 힘으로 터놓는다. 붓목에 눈을 가지고도 절 사람

들 때문에 물을 대지 못하던 어진 농군 고 서방도 큰맘 먹고 물꼬를 터놓았다가 경찰관 앞잡이 이 시봉에게 얻어맞는다.

그 날 밤 들개와 철한이는 남몰래 보광리 중마을의 논둑을 동강을 내 버린다. 그리하여, 무고한 고 서방이 혐의를 받고 갇히게 된다. 주린 배를 졸라매며 성동리 농민들은 찌는 듯한 폭양 아래 쇠다리 이 주사네 눈을 매는데, 보광리의 젊은 남녀들은 해수욕 갔다 오느라고 먼지를 일으키며 차를 몰고 지나간다. 이 젊은이들은 밤에는 떡감는 동리 아낙네들 곁에 유성기를 들고 다니며 흥청거린다.

농민들의 간절한 기우제도 소용없이 하늘은 가물기만 하는데, 보광사에서는 기우 불공을 드린답시고 부녀자들의 돈푼만 거둬들인다. 괘불을 하면 가장 영험이 있다더니, 그것도 소용없이 가뭄은 계속된다.

눈에는 메밀이 뿌러졌고, 학교 다니던 아이들은 하나 둘 퇴학을 한다. 추석이 왔으나 먹을 것도 없고 웃음도 없다. 아낙네들은 산에서 버섯을 따다 팔고 남자들은 나무를 했다. 그러나, 그나마 마음대로 할 수 없다. 보광사 뒤 대사봉 중턱에서 나무하던 아이들이 절 산지기에 쫓겨 달아나다 상한이가 벼랑에서 떨어져 죽고 그의 할머니는 미쳐 버린다. 군청에서 주사가 나와서 실지 조사를 해 가더니 소식이 없고, 동네 안에는 주립과 불만만이 떠도는데, 마침내 보광사에서 김평을 나온다. 그들은 농사 조합의 평의원인 진주집에서 술만 마시고, 소작인들의 진정은 듣는 등 마는 등 눈들을 훑어보고 가더니, 예년과 별다른 없는 소작료를 매겨 놓는다.

이런 흉년 속에서도 들개의 누이 덕이는 탐스럽게 피어 철한이와 혼인을 맺게 된다. 들개, 고 서방, 또줄이, 구장 등이 보광사 농사 조합에 가서 세를 깎아 주고 연기해 달라고 애걸했으나 그들은 도리어 눈을 때려고 한다. 고 서방은 드디어 입도 차압을 당하고 야간 도주를 해 버린다. 농민들은 밤마다 야학당이 터지게 모여든다.

그리하여, 어느 날 아침 징 소리와 함께 성동리 농민들은 손에 손에 빈 짚단과 콩대 메밀대를 들고 모인다. 보광사 농사 조합에 차압 취소와 소작료 면세를 탄원하러 줄을 이어 떠난다. 그 줄 꿈무늬를 따르는 아이들은 절 태우러 간다고 떠들어댄다.

31. <답> ③

㉠은 메밀 농사가 잘 되었다는 시봉의 말에 대한 들개의 대답으로, 시봉의 다음 말을 두려워하는 태도로 답한 것이다. 간평원의 농사가 잘 되었다는 말은 메밀에도 세를 물리겠다는 말로 들릴 수밖에 없어 들개는 이에 대해 농사가 잘된 것이 아니라고 변명하고 있다. 따라서 간평원들에게 잘 보이려고 찢찢매는 모습이라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① '마치 유형수처럼'은 죄를 지어 유형을 가는 듯한 모습이라는 것으로, 잔뜩 주눅 든 소작인들을 비유하는 것이다.

② '치삼촌 산소 별초하듯이'는 무관심하게 대충 보아 넘기는 태도를 뜻하는 속담으로, 실제의 작황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간평원들의 태도를 보여 주는 것이다.

④ 메밀을 간 것에조차 세를 매기려 하는 상황에서 들개의 마음이 후련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조급하지도 않음을 메밀밭 위를 나는 고추잠자리에 비유하면서 구체화하고 있다.

⑤ 터무니없는 소작료에 놀라고 걱정스럽기는 하지만 불평을 했다가는 어떤 불이익이 돌아올지 몰라 맥없이 중얼거릴 뿐이라는 것이다.

32. <답> ③

시봉과 들깨의 대화나 시봉을 대하는 들깨의 태도로 볼 때, 시봉은 소작인의 수확을 점검하는 간평원의 입장에 서 있음을 알 수 있다.

① ‘그러나 가장 현대적 마음인 소위 평의원 앞에서, 버릇없이 덩백 불평을 늘어놓다가는 어느 수작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형편이라’를 통해 진수가 소작인을 착취하는 계층임을 알 수 있다.

② ‘오빠! 왜 암말도 못 했소?’를 통해 덕아는 메밀 간 것에조차 세를 매기려 드는 간평원의 말에 제대로 대꾸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 안타까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또쫄이로부터 일본의 탄광 이야기도 듣고, 또 이곳저곳에서 일어나는 소작 쟁의 얘기도 들었다.’를 통해 또쫄이가 소작인들에게 현실의 모순에 대한 구체적인 사건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가뭄이라는 자연재해로 인해 지주와 소작인 간의 갈등이 점점 고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보기>와 이 글의 마지막을 볼 때 소작인들이 지주 계급의 횡포에 저항하는 행동을 할 것임을 추측할 수 있다.

[33~37] 문학-갈래 복합

[가] [지문 분석]

前腔) 내 님물 그리스와 우니다니(내 님을 그리워하며 늘 울며 지내더니)

(中腔) **山(산) 접동새**(한과 고독의 이미지로 표상되고 있음) 난 이숫하요이다.(저 산 접동새와 난 비슷하다.)

(後腔) 아니시며 거츠르신 들 아으(참소의 말이 참이 아니며 거짓인 줄을)

(附葉) **殘月曉星(잔월효성)**(가장 정당하고 공평한 심판자의 표상)이 아르시리이다.(지새는 달과 새벽별은 아실 것입니다.)

(大葉) 녀시라도 님은 흐티 녀져라 아으(넋이라고 님과 함께 지내고 싶어라)

(附葉) 버기더시니 뉘러시니잇가.(우기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二葉) 過(과)도 허물도 千萬(천만) 업소이다.(과실도 허물도 전혀 없습니다.)

(三葉) 물히마리신더(못 사람의 참소하는 말입니다.)

(四葉) 슬웃븐더 아으(사라지고 싶구나)

(附葉) 니미 나를 흐마 니즈시니잇가.(임이 벌써 나를 잊으셨습니까?)

(五葉) 아소 님하, 도람 드르샤 피오쇼셔.(임시여, 마음을 돌려 들으시어 다시 사랑하소서.)

- 정서, ‘정과정’

■ 핵심 정리

■ 창작 동기 : <정과정>이 10구체 향가와 민요를 수용한 바탕 위에서 창작되었다고 본다. 또한 노랫말과 악곡의 양면에 걸쳐서 민요를 수용하고 아울러 선행 장르인 10구체 향가를 계승하였기 때문에 보다 쉽게 민중과 상층에 두루 전파 전승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임금(의종)에게 호소력 있게 전달되기를 바라는 절실한 의도가 강하다.

■ 형식 : 10구체 향가의 전통을 잇고 있는 3단 구성의 가요

※ 형태상의 특징

- 10구체 향가의 파격적 형태 (제 8행과 9행을 한 행으로 보면'4구+4구+2구 -끝구에 감탄 존재)의 10구체 향가 형식과 같다.

- 고려는 물론 조선시대까지 궁중 음악으로 불림.

■ 율격 : 이 노래에 일괄된 율격 의식은 내재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주도적인 것은 3보격이다.

■ 서정적 자아 : 다시 불러줄 임에 대한 한없는 기다림의 자세를 가지고, 임의 사랑이 하루 빨리 회복되기를 슬프게 호소하고 있음.

■ 특징

- 이 노래를 포함한 이른바 충신연주시사는 종래 주자학이 지배적이던 시대에는 처음부터 연시로 파악하려 들지 않았으나 오늘날의 분석에서는 '님'의 다의성과 상징체계를 인정해야 한다. 즉, 남녀의 관계는 군신의 관계로 이는 신과 인간의 관계로 연정과 충성, 믿음, 신앙으로 확대되어져 그 연관성이 높다.

- 이 시의 화자는 여성적 화자임을 작가와 구별해야 한다. 따라서 작품 속의 '나'는 시적화자이나 작가이냐를 밝혀야 한다.

- 이 노래의 표현 형식은 임에게 편지를 쓰듯이 대면하는 투로 호소하는 형식으로 화자가 임에게만 말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 주제 : 임금을 그리는 정

■ 의의

- 고려 가요 중 유일하게 작자를 알 수 있는 작품이다.

- 충신연주시사(忠臣戀主之詞)로서, 후세에 많이 지어진 연군가의 대종(大宗)이 된다.

- 형식상 10구체 향가와 관련되어 있고 종구의 여음을 향가로부터 계승하여 시조 가사에 이어준 3단 구성의 가요이며, 아울러 새로운 고려 가요로 등장하여 후대의 시가 장르들인 속요와 경기체가 등의 형성과 전승에 많은 영향을 끼침.

■ 별칭 : ‘삼진작’ ‘진작’은 곡조명이고 ‘一’이 가장 느린 소리이므로, ‘삼’은 빠른 소리에 해당되는 급한 곡조이다.

■ 구성

- 1 ~ 4행 : 임에 대한 그리움과 자신의 결백 주장

- 5 ~ 7행 : 원망과 하소연

- 8 ~ 11행 : 임이 다시 사랑해 줄 것을 애소(哀訴)함.

■ 이해와 감상

이 노래는 고려 의종 때, 정서가 유배지인 동래에서 임금의 소환 명령을 기다리다가 거문고를 어루만지며 불렀다는 노래로, 유배지에서 신하가 임금을 그리워하는 정을 절실하고 애달프게 노래하고 있어 '忠臣戀主之詞'의 표본이 되고 있다. 그러나 <정과정>의 작자는 자기의 처지를 하소연하면서 모함의 부당함을 말했을 뿐 충신으로서의 포부나 경륜을 내비치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조선시대의 연주시사에 비해 그럴 만한 이념적, 윤리적 사고가 결여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이 노래의 형식은 10구체 단연으로 되어 있는데 악조 구성을 나타내는 전강, 중강, 후엽 또는 부엽 등과 같은 말을 제외하고 유의미한 사실만으로 재배열시킬 때 총 열 줄로 이루어져 이전 시대의 사뇌가 형식과 비슷하다. 따라서 이 작품을 고려 예종이 지었다는 <도이장가>와 함께 향가의 잔존 형태로 보기도 한다. 그러나 '아소 님하'라는 감탄구가 사뇌가의 일반 형식과는 달리 제9구가 아닌 제10구의 첫머리에 위치하는 점으로 보아 <정과정>은 향가 또는 사뇌가가 해체되어 가는 과도기적 모습으로 볼 수 있다.

이 작품의 의의는 고려 가요 중 작자를 알 수 있는 유일한 작품

고 3

이라는 점, 형식 및 내용면에 있어서 후대 시가에 영향을 끼친 점 등을 들 수 있다. 형식면에서는 <정과정>은 전 시대의 10구체 향가를 계승하였으면서도 새로운 고려 속요로 등장하여 후대 시가 장르들의 형성과 전승에 영향을 끼쳤고, 내용면에서는 '충신연주시사'의 주제가 후대 시가에 영향을 주었다.

[나] [지문 분석]

나(화자, 희생의 이미지, 자아, 불도)는 나룻배(시적 화자의 비유적 표현)

당신(시적 대상, 구제의 대상, 한국사람 전체)은 행인.(중생)

당신은 흠발(번뇌)로 나를 짓밟습니다.(당신의 나에 대한 무심함)

나는 당신을 안고 물을 건너갑니다.(나의 당신에 대한 희생, 중생 제도)

나는 당신을 안으면(자비) 깊으나 얕으나 급한 여울(중생 제도를 위해 겪어야 하는 시련과 역경)이나 건너갑니다.

만일 당신이 아니 오시면 나는 바람(속세의 번뇌)을 쫓고 눈비(속세의 번뇌)를 맞으며 밤에서 낮까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인고의 자세, 시련이 오더라도 굴복하지 않고, 모든 중생들이 구제되기를 기다림)

당신은 물만 건너면 나를 돌아보지도 않고 가십니다그러.(중생은 흔히 불도의 은혜를 잊어버리기 쉬움, 중생들의 무심함)

그러나 당신이 언제든지 오실 줄만은 알아요.(당신에 대한 화자의 절대적 믿음, 거자필반)

나는 당신을 기다리면서 날마다 날마다 낡아 갑니다.(불교의 '인(忍)'의 경지)

나는 나룻배
당신은 행인.(1연의 반복, 수미상관식 구성)

- 한용운, '나룻배와 행인'

▣ 핵심 정리

- 갈래 : 자유시, 서정시
- 성격 : 명상적, 상징적
- 어조 : 여성적 어조
- 특징
 - ① 은유적 표현(나-나룻배, 당신-행인)
 - ② 수미상관식 구성
 - ③ 쉬운 우리말 표현과 경어체 속에 불교의 깊이를 담음.
- 구성 : 수미상관
 - ① 기 : 나와 당신의 관계(제1연)
 - ② 승 : 당신의 무심함과 나의 희생(제2연)
 - ③ 전 : 인고(忍苦)하며 기다리는 나(제3연)

④ 결 : 나와 당신의 관계(제4연)

- 제재 : 나룻배와 행인
- 주제 : 참된 사랑의 본질인 희생과 믿음의 실천 의지.
- 출전 : <님의 침묵> (1926)

★ '나룻배'의 상징적 의미

이 작품도 만해의 다른 시들처럼 '님'에 대한 절대적 의미를 부여한 노래이다. 시적 화자는 자신을 '나룻배'에 비유하고, 나룻배와 행인의 관계를 통해 인내와 희생, 그리고 사랑에 대한 숭고한 의지를 노래하고 있다. 행인인 '님'은 나를 흠발로 짓밟지만, 나룻배로 나타난 시적 화자는 기쁨과 사랑을 느낀다. 왜냐하면 흠발로 짓밟히는 그 순간만이 그가 '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당신, 곧 '님'을 맞기만 하면 시적 화자는 나룻배가 되어 깊으나 얕으나 급한 여울이 나를 막론하고 기쁨에 넘쳐 강을 건너게 된다. 바람과 눈비를 맞는 고통 속에서 '밤에서 낮까지' '님'을 기다리던 어느 날, 마침내 '님'은 나룻배를 타게 된다. 그러나 그뿐, 나룻배인 '나'에게는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그냥 사라져 버린다. 그러나 '나'는 '님'이 반드시 돌아올 것을 믿으며 또다시 '님'을 기다리며 날마다 외롭게 낡아 가고 있다. 따라서 '나룻배'는 '님'에 대한 시적 화자의 헌신적 태도를 형상화한 것이다.

[다] [지문 분석]

이른 새벽(시간적 배경: 재회에 대한 소망과 확신을 지니게 하는 시간)

강(공간적 배경: 재회에 대한 설렘과 기다림의 공간)으로 나가는 내 발걸음에는

아직도 달콤한 잠의 향기가 묻어 있습니다.

그럴 때면 나는
산자락을 타고 내려온 바람 중
눈빛 초롱하고 허리통 굽은 몇 울을 끌어다
눈에 생채기가 날만큼 부벼드립니다.

지난밤(이별의 시간, 기다림의 시간),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이별의 시간이 지속되고 있음을 의미)

내 낡은 나룻배(화자와 동일시되는 객관적 상관물)는 강둑에 매인 채 출렁이고(시적 상황: 새벽 강가의 구체적인 사물의 모습을 통해 지난 밤 바뀐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보여줌)

작은 물새 두 마리가 헤 뜨는 쪽을 향하여
힘차게 날아갑니다.(새벽 강가의 구체적인 모습을 역동적인 이미지로 드러냄)

사랑하는 이여

설령 당신이 이 나루터를
영원히 찾아오지 않는다 해도
내 기다림은 끝나지 않습니다.(대상에 대한 변치 않는 사랑의 태도를 고백)

설레이는 물살처럼 내 마음
설레이고 또 설레입니다.(이별의 상황에 대한 화자의 정서, 재회에 대한 확신이 설렘으로 드러남)

- 광재구, '기다림'

▣ 핵심 정리

■ 주제 : 임을 기다리는 설레임과 그 믿음

▣ 이해와 감상

임을 기다리며 설레는 마음을 잘 표현한 작품이다. 시인은 새벽 녘 잠이 덜 깬 상태를 묘사하면서 그 전 날 밤처럼 임을 기다리는 화자의 내면과 외적 상황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음을 고백하고 있다. 그러고는 영원히 나루터에서 임이 오기를 기다리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특히 2연은 행동의 주체와 대상이 서로 자리를 바꾸고 있는 표현이 나타나 있다. 바람이 불어 화자의 눈에 생채기가 생길 정도로 아프다는 표현을, 화자가 바람 멎 울을 끌어와 눈에 생채기가 생길 정도로 부빈다고 했다.

33. <답> ⑤

[가]의 화자는 자신을 불러 주지 않는 임에게 자신의 불우한 처지를 하소연하고 있고, [나]의 화자는 날마다 당신을 기다리겠다고 고백하고, [다]의 화자도 영원히 나루터에서 임이 오기를 기다리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이런 화자들의 태도는 자신과 임의 재회를 기대하고 이를 염두에 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화자들은 모두 임과의 재회라는 긍정적인 미래가 도래하기를 바란다고 할 수 있다.

- ① [가], [나]는 시간의 경과가 주요한 장치로 작용하지 않고 있고 시간이 흘러가더라도 화자의 마음은 변함이 없다고 한다.
- ② [가], [다]의 화자는 현재 재회할 기회가 없는 대상들을 그리워하고 있으므로 현재 상황에 만족한다고 볼 수 없다.
- ③ [가]~[다]의 화자는 임과 이별한 현재 상황이 부정적이라는 점을 알고 있지만 이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지는 않고 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더욱 임을 그리워하고 있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 ④ [나], [다]에는 기다린다는 자신의 내면 의지가 제시되어 있을 뿐이고, 화자는 상황을 긍정적으로 전환하려는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34. <답> ②

[가]의 대상은 군왕이고 [나]의 대상은 중생들이다. 그래서 시인은 경어체를 사용하여 대상들에 대한 경건하고 조심스러운 태도를 드러낸다. 동시에 간절히 재회하기를 기대하는 소중한 존재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점으로 보아, 두 작품 모두 경어체 독백조로 대상에 대한 정서를 심화한다고 할 수 있다.

① 의인화를 사용한 것은 [나]에서 나룻배를 화자라고 비유한 표현뿐이다.

- ③ [가]에서 과거에 대한 표현을 찾을 수 있지만 현재와 나란히 제시한 것도 아니다.
- ④ 수미상응이 이루어지는 것은 [나]에만 해당되는 설명이다.
- ⑤ [가], [나] 모두 특정한 소재를 세밀하게 묘사한 부분을 찾을 수 없다.

35. <답> ①

<보기>에서는 감정이입의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즉 대상에 화자의 감정을 주입시킴으로써 화자 자신의 정서를 대상의 정서로 전이시키는 것이다. ㉠에는 화자가 슬피 울다가 자신이 그와 비슷하다고 함으로써 감정이입의 방법이 적용되고 있다.

36. <답> ⑤

- 마지막 행은 자신을 다시 사랑해 달라는 화자의 애원에 해당된다.
- ① <보기>의 자료에 의하면 다시 부르겠다고 약속한 군왕은 의종이다. 따라서 [가]에서 '님'은 의종이라고 할 수 있다.
 - ② 거문고에 실어 노래 불렀다는 <보기>의 진술을 참고하면, [가]에서 노래 가사 부분을 제외한 왼쪽의 한자어들은 노래의 곡조를 표시한 것이라 추리할 수 있다.
 - ③ 3~4행은 자신이 죄가 있다는 말이 사실이 아니며 그것이 거짓인 줄을 천지신명이 안다는 내용이므로, 자신의 결백을 토로하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 ④ 5행에서 영혼이라도 임과 함께 하고 싶다는 것은 임에 대한 사랑을 절실하게 표현한 부분이다.

37. <답> ①

㉠은 행인에 해당되는 당신을 실어 나르고 기다리는 화자를 비유하고 있고, ㉡은 변함없이 사랑하는 임을 기다리는 화자의 모습을 비유하고 있다. 한편, ㉢이 ㉠에 비해 대상과 긴밀한 연계성을 지니고 있는지는 확인하기 어렵다. 그리고 ㉠과 ㉡은 모두 현실의 구속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따라서 ㉠과 ㉡은 적절한 설명이지만 ㉢과 ㉣은 적절한 설명이 아니다.

[38~41] 독서-사회
[지문 분석]

대부분의 사람들은 근로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한다. 직장은 개인에게 소득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해 주기 때문에, 직장을 잃으면 삶의 질이 저하될 수밖에 없다. 이는 실업 문제가 매우 중요한 사회 문제임을 나타낸다. 실업은 경제학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일할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상태(경제학에서 실업을 어떻게 정의하는지 설명함)**를 말한다. 그리고 실업률은 흔히 어떤 시점에서 경제 활동 인구 중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1문단: 실업의 사회적 중요성과 경제학적 개념

실업 중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는 것은 '**구조적 실업**(실업의 원인에 따른 분류①)과 '**경기적 실업**(실업의 원인에 따른 분류②)이다. 구조적 실업은 노동 시장에 공급되는 일자리의 수가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의 수에 비해 부족하여 나타나며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경우가 많다. 구조적 실업은 어떤 이유로 임금이 노동의 수요와 공급이 같아지는 균형 임금보다 높아 취업을 하지 못하는 것과 과거의 기술을 가진 사람이 다시 취직하려 하지만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지 못해 취업을 하지 못하는 것을 일컫는다. 경기적 실업은 경기의 순환 과정에서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수요의 부족으로 노동 수요가 감소되어 나타나는 실업이다. 구조적 실업이나 경기적 실업에 반해, 사람들이 한 직장을 떠나 자신의 적성, 기술, 자질 등에 적합한 새로운 직장을 찾기까지의 실업인 '마찰적 실업'(실업의 원인에 따른 분류③)은 주로 단기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이들 실업 외에 계절에 따라 나타나는 '계절적 실업'(실업의 원인에 따른 분류④)도 있다.

2문단: 발생 원인에 따른 실업의 여러 유형

실업은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사람이 일을 하지 못하는 상태이므로 경제적으로 실업이 증가한다는 것은 그 경제 사회가 생산할 수 있는 재화와 용역의 양이 생산되지 못함을 의미한다. 즉 생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생산하지 못하는 재화와 용역의 양이 바로 실업의 경제적 손실이다. 다시 말해 노동의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루는 완전 고용 상태에서의 국내 총생산을 '완전 고용 GDP'라 하고 실제의 고용 수준 아래서의 GDP를 '실제 GDP'라고 하면, 실제 GDP와 완전 고용 GDP의 차이가 바로 실업의 경제적 비용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완전 고용은 흔히 마찰적 실업만 있고, 구조적 실업이나 경기적 실업이 거의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대체로 실업률이 2%~5% 정도면 완전 고용이라고 본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1%의 실업 증가가 약 3%의 실질 GDP의 감소를 가져온다고 한다.(실업의 증가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3문단: 실업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실업을 줄이기 위해서 정부는 공공 취로 사업을 늘리고, 고용을 늘리는 기업에는 세금을 감면해 주거나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의 제도를 시행(실업을 줄이기 위한 방안)한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정책은 국가 전체적인 실업 대책이라기보다는 특정 집단이나 산업 또는 계층과 관련 있는 미시적인 구제 대책이라 할 수 있다. 이들 대책 외에 정부는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거시 정책을 수단을 사용해 실업을 감축시키려는 노력(실업을 줄이기 위한 방안)도 기울여야 한다. 가령 어떤 요인에 의해 실질 임금이 올라 노동의 초과 공급, 즉 실업이 발생했다고 하자. 이때 임금은 내려가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시장의 힘만으로는 실업을 해소할 수 없다. 이 경우 정부는 물가가 지나치게 상승하지 않도록 인플레이션(실업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재정 확대 정책이나 금융 정책을 무리하게 사용하면 인플레이션이 나타날 수 있음)에 유의하면서 확대 재정 정책이나 금융 정책을 실시해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켜야 한다. 그러면 물가가 상승해 실질 임금이 하락하면서 노동에 대한 수요가 증가해 노동의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루는 상태를 회복할 수 있다.

4문단: 실업 해소를 위한 미시적 정책과 거시적 정책

- 주제: 실업의 원인과 폐해 및 해결 방안
- 해제: 실업의 경제학적 의미를 제시하고 발생 원인에 따른 유형을 살피고 있으며 아울러 그 폐해를 진단하고 해결 방안 또한 제시하고 있는 글이다. 실업은 단순히 경제학적으로 사람들이 일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실업은 일할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상태까지를 의미한다.

이러한 실업은 '구조적 실업', '경기적 실업', '마찰적 실업', '계절적 실업'등의 유형으로 구분되며, 이 중 '구조적 실업'과 '경기적 실업'은 사회적으로 여러 폐해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미시적인 정책과 거시적인 정책을 통해 실업 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지문 확인]

1문단

- *실업 문제가 중요한 사회 문제인 이유: 직장은 개인에게 소득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해 주기 때문에 직장을 잃으면 삶의 질이 저하됨
- *경제학적으로 실업이 의미하는 개념: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일할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상태
- *실업률: 어떤 시점에서 경제 활동 인구 중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

2문단

- *실업의 원인에 따른 실업의 분류: 구조적 실업, 경기적 실업, 마찰적 실업, 계절적 실업
- *구조적 실업
 - 노동 시장에 공급되는 일자리의 수가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의 수에 비해 부족하여 나타남
 - 어떤 이유로 임금이 노동의 수요와 공급이 같아지는 균형 임금보다 높아 취업을 하지 못하는 것과 과거의 기술을 가진 사람이 다시 취직하려 하지만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지 못해 취업을 하지 못하는 것
- *경기적 실업: 경기의 순환 과정에서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수요의 부족으로 노동 수요가 감소되어 나타나는 실업
- *마찰적 실업: 사람들이 한 직장을 떠나 자신의 적성, 기술, 자질 등에 적합한 새로운 직장을 찾기까지의 실업
- *계절적 실업: 계절에 따라 나타나는 실업

3문단

- *실업이 증가한다는 것은 그 경제 사회가 생산할 수 있는 재화와 용역의 양이 생산되지 못함을 의미함
- *완전 고용 GDP: 노동의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루는 완전 고용 상태에서의 국내 총생산
- *실제 GDP: 실제의 고용 수준 아래서의 GDP
- *실제 GDP와 완전 고용 GDP의 차이가 실업의 경제적 비용임
- *완전 고용은 마찰적 실업만 있고, 구조적 실업이나 경기적 실업이 거의 없는 상태를 의미함
- *1%의 실업 증가→3%의 실질 GDP 감소

4문단

- *실업을 줄이기 위해 정부는 공공 취로 사업을 늘리고, 고용을 늘리는 기업에는 세금을 감면해 주거나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의 제도를 시행하지만 이는 미시적인 구제 대책임
-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거시 정책 수단을 사용해 실업을 감축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여야함
- *실업의 증가가 인플레이션을 일으킬 수 있음

38. <답> ⑤

마지막 문단에 인플레이션과 실업의 관계가 나타나 있다. 실업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재정 확대 정책이나 금융 정책을 무리하게 사용하면 인플레이션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실업의 증가가 인플레이션을 일으킬 수 있음을 의미하며 인플레이션과 실업의 관계를 보여 준다. 그러나 그 관계가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는 서술되어 있지 않다.

- ① 3문단에서 알 수 있다.
- ② 1문단에서 경제학에서 실업을 어떻게 정의하는지 설명하고 있다.
- ③ 2문단을 보면 실업이 원인에 따라 '구조적 실업', '경기적 실업', '마찰적 실업', '계절적 실업' 등으로 나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④ 관련 내용이 마지막 문단에 제시되어 있다.

39. <답> ⑤

물가가 상승하면 명목 임금을 물가 지수로 나눈 실질 임금, 즉 실질적으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실질 임금은 감소하게 된다. 실질 임금이 감소하면 노동 시장에서 기업의 노동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고 근로자들의 노동 공급은 감소하게 된다. 이는 <보기>의 그래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임금이 W_e 아래로 떨어지면 노동 공급량이 감소하고 노동 수요량은 증가하게 된다.

- ① 노동 공급량이 L_e 에서 L_s 로 증가하고 노동 수요량을 L_e 에서 L_d 로 감소하여 실업이 확대됨을 알 수 있다.
- ② 경기가 안 좋아져 재화나 서비스의 수요가 줄어들면 그에 따라 일자리 수가 감소하게 되어 실업자가 증가하게 된다.
- ③ 노동의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루는 지점에서는 '구조적 실업'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처럼 '구조적 실업'이 없는 상태를 완전 고용 상태라고 정의하고 있다.
- ④ 노동이 초과 공급될 때 정부가 인플레이션에 유의하면서 재정 확대 정책이나 금융 정책을 사용하면 재화나 서비스의 소비를 증가시켜 실업률을 낮출 수 있다.

40. <답> ③

<보기>에서는 경제 활동 인구나 실업자를 통계 내는 것이 쉽지 않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다. 경제 활동 인구에 포함되지 않았다가 새로이 포함되는 사람들의 수가 많으며, 포함되지 않는 사람들 중에 일을 하고자 하는 의사를 가진 사람들도 많다는 것이다. 그리고 엄밀하게 말하면 일을 하려는 의사가 없어 실업 상태에 있다고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이 실업자 수에 포함된다는 사실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실업률을 계산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나타낸다.

- ① 실업이 필연적으로 질병의 발생 비율을 높인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 ② <보기>의 마지막 부분에 경제 활동 인구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 중에는 일하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고, 열심히 구직 활동을 하다가 포기한 사람도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경제 활동 인구는 경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 ④ <보기>의 내용을 통해 '구조적 실업'이나 '경기적 실업'이 '마찰적 실업'이나 '계절적 실업'보다 더 많이 나타나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 ⑤ 기업들이 다시 직장을 찾고 있는 사람들을 되도록 많이 고용해 새로운 기술을 배울 기회를 제공하도록 정부가 조치한다면 실업률

은 감소할 것이다.

41. <답> ④

㉠은 문맥적으로 '구조적 실업'이 '생기다'라는 의미를 뜻하고 있다. 이와 같이 '생기다'라는 의미를 나타낼 수 있는 말은 '발생(發生)'이다. '발생'은 '어떤 일이나 사물이 생겨남.'을 의미하는 말이다.

- ① '발달(發達)'은 '성장하거나 성숙함.'을 의미하는데, ㉠은 '구조적 실업'이 생기게 됨을 의미하고 있어 적절하지 않다.
- ② '발동(發動)'은 '움직이기 시작함.'을 의미하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③ '발산(發散)'은 '(냄새, 빛, 열 따위가) 사방으로 퍼져 나감.'을 뜻한다.
- ⑤ '발현(發現)'은 '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타남.'을 뜻한다.

[42~45] 독서-과학

[지문 분석]

고체, 액체, 기체 상태의 여러 물질은 물이나 다른 액체에 녹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렇게 물질이 액체에 녹는 현상(용해의 개념)을 용해라 하고, 어떤 액체에 물질을 녹여서 용액을 만들 때 그 액체(용매의 개념)를 용매, 용액에 녹아 있는 물질(용질의 개념)을 용질이라 한다. 용액은 용질이 녹아 있는 정도(용액의 구분 기준)에 따라 포화 용액, 불포화 용액, 과포화 용액(용액의 종류 세 가지)으로 구분할 수 있다.

1문단: 용해의 개념과 용액의 종류

포화 용액은 일정량의 용매에 용질이 최대량 녹아 있는 용액(포화 용액의 개념)을 말하고, 불포화 용액은 포화 상태보다 용질이 더 적게 녹아 있는 용액(불포화 용액의 개념)을, 과포화 용액은 포화 상태보다 용질이 더 많이 녹아 있는 용액(과포화 용액의 개념)을 말한다. 용액 속에 녹아 있던 용질이 결정화되어 침전되는 현상(석출의 개념)을 석출이라고 하는데, 포화 용액은 용해의 속도와 석출의 속도가 같은 동적 평형 상태에 있게 된다. 하지만 불포화 용액에서는 용해의 속도가 석출의 속도보다 빠르고, 과포화 용액에서는 이와 반대가 된다. (포화 용액: 용해의 속도=석출의 속도 / 불포화 용액: 용해의 속도>석출의 속도 / 과포화 용액: 용해의 속도<석출의 속도) 바닷물을 염전에 가두면 물이 증발하면서 소금이 생기게 되는데, 이는 물의 증발로 바닷물이 지속적으로 과포화 용액이 되면서 소금이 석출되는 것이다.

2문단: 용액의 종류에 따른 용해의 속도와 석출의 속도

용해는 용질 입자 간의 인력보다 용질 입자와 용매 입자 간의 인력이 크기 때문(용해의 발생 원인)에 발생하고, 용해가 되더라도 질량을 결정하는 용매와 용질의 입자 수에는 변함이 없다. 즉 용해되기 전과 용해된 후의 용질과 용매의 총질량은 변하지 않는다. 그리고 일정한 온도에서 일정량의 용매에 녹는 용질의 양에는 한도가 있다. 용질이 용매에 용해되는 한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용해도라는 개념을 사용하는데, 이는 100g의 용매에 용해되는 물질의 최대량을 g으로 표시한 것(용해도의 개념)이다. 예를 들어 소금은 20℃의 물 100g에 최대 35.82g이 녹을 수 있으므로 20℃에서 물에 대한 소금의 용해도는 35.82가 된다. 용해될 때 흡열 반

고 3

응을 보이는 용질은 용매의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용해도가 증가하고, 반대로 발열 반응을 보이는 용질은 용매의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용해도가 감소하는데, 이러한 용해도의 변화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을 용해도 곡선이라고 한다.

3문단: 용해도와 용해도 곡선의 개념

일반적으로 고체의 용해도는 압력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고, 용매의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증가한다. 예를 들어 어떤 고체 A의 용해도가 10℃에서 2, 20℃에서 5, 30℃에서 7이라고 생각해 보자. 20℃의 포화 용액 105g을 온도를 높여 30℃에 이르게 하면 A를 2g 더 녹일 수 있는 불포화 용액이 된다(고체가 용해된 포화 용액의 온도를 높이면 불포화 용액이 됨). 반대로 10℃로 온도를 낮추게 되면 과포화 용액이 되어 3g의 A가 석출된다.

4문단: 압력과 온도가 고체의 용해도에 미치는 영향

고체와 달리 기체의 용해도는 일정한 온도에서 압력에 비례하고, 일정한 압력에서 용매의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감소한다. 예를 들어 0℃의 물 100g에 녹는 산소의 용해도는 1기압에서 6.8×10^{-3} , 2기압에서 $2 \times 6.8 \times 10^{-3}$ 이고, 1기압에서 물 100g에 녹는 이산화탄소의 용해도는 0℃에서 3.6, 20℃에서 1.7이 된다. 물이 끓기 시작하기 직전에 냄비의 벽면에 작은 기포가 생기게 되는데 이는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물에 녹아 있던 기체가 용해되기 전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압력과 온도에 따른 기체의 용해도 변화는 물속에 녹아 있는 산소량인 용존 산소량을 비교해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기압이 낮은 고지대에 있는 물보다 기압이 높은 저지대에 있는 물의 용존 산소량이 많고, 같은 지역 내의 바닷물이라도 한류보다 난류의 용존 산소량이 적다.(압력이 동일한 상황일 때 한류는 난류보다 산소의 용해도가 높음)

5문단: 압력과 온도가 기체의 용해도에 미치는 영향

- 주제: 용액의 종류 및 고체와 기체의 용해도
- 해제: 용액의 종류 및 압력과 온도에 따른 고체와 기체의 용해도 변화를 설명하고 있는 글이다. 용액은 용질이 녹아 있는 정도에 따라 포화 용액, 불포화 용액, 과포화 용액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포화 용액에서는 용해의 속도와 석출의 속도가 같고, 불포화 용액에서는 용해의 속도가 석출의 속도보다 빠르며, 과포화 용액에서는 석출의 속도가 용해의 속도보다 빠른 특징을 보인다. 용질이 용매에 용해되는 한도를 용해도라 하고, 용해도의 변화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을 용해도 곡선이라고 한다. 고체의 용해도는 압력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고, 용매의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증가하는 특징을 보인다. 고체와 달리 기체의 용해도는 일정한 온도에서 압력에 비례하고, 일정한 압력에서 용매의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감소하는 특징을 보인다.

[지문 확인]

1문단

- *용해: 물질이 액체에 녹는 현상
- *용매: 어떤 액체에 물질을 녹여서 용액을 만들 때 그 액체
- *용질: 용액에 녹아 있는 물질
- *용액의 구분 기준: 용질이 녹아 있는 정도
- *용액의 구분: 포화 용액, 불포화 용액, 과포화 용액

2문단

- *포화 용액: 일정량의 용매에 용질이 최대로 녹아 있는 용액
- *불포화 용액: 포화 상태보다 용질이 더 적게 녹아 있는 용액
- *과포화 용액: 포화 상태보다 용질이 더 많이 녹아 있는 용액
- *석출: 용액 속에 녹아 있던 용질이 결정화되어 침전되는 현상
- *포화 용액: 용해의 속도=석출의 속도
- 불포화 용액: 용해의 속도>석출의 속도
- 과포화 용액: 용해의 속도<석출의 속도

3문단

- *용해 발생 원인: 용질 입자 간의 인력보다 용질 입자와 용매 입자 간의 인력이 크기 때문
- *용해가 되더라도 질량을 결정하는 용매와 용질의 입자 수에는 변함이 없음(용질과 용매의 총질량은 변하지 않음)
- *일정한 온도에서 일정량의 용매에 녹는 용질의 양에는 한도가 있음
- *용해도: 100g의 용매에 용해되는 물질의 최대량을 g으로 표시한 것
- *고체의 용해도는 압력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음, 용매의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증가함

4문단

- *기체의 용해도는 일정한 온도에서 압력에 비례하고, 일정한 압력에서 용매의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감소함
- *기압이 낮은 고지대에 있는 물보다 기압이 높은 저지대에 있는 물의 용존 산소량이 더 많고, 같은 지역 내의 바닷물이라도 한류보다 난류의 용존 산소량이 더 적음

42. <답> ③

4문단에서 일반적으로 고체의 용해도는 압력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압력의 변화가 고체의 용해도에 미치는 영향력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 ① 3문단에서 용해가 되더라도 질량을 결정하는 용매와 용질 입자의 수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용질과 용매의 총질량은 변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다.
- ② 2문단에서 포화 용액에서는 용해의 속도와 석출의 속도가 같은 동적 평형 상태가 이루어진다고 설명하고 있다.
- ④ 4문단에서 고체의 용해도는 용매의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증가하고 그에 따라 용액의 종류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 ⑤ 마지막 문단에서 일정한 압력에서 용매의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기체의 용해도는 감소하기 때문에 같은 지역 내의 바닷물이라도 한류보다 난류의 용존 산소량이 적다고 설명하고 있다.

43. <답> ④

[A]에서 기체의 용해도는 압력에 비례하고,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감소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산화탄소를 녹여 만든 청량음료의 병마개를 열었을 때 탄산의 특 쏘는 맛이 사라지는 것은 이산화탄소의 용해도가 그만큼 떨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산화탄소의 용해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온도와 압력인데, 탄산이 사라지기 위해서는 압력이 낮아지거나 온도가 올라가야 한다. 따라서 병

마개를 여는 것이 압력을 감소시켰거나 온도를 상승시켰으리라는 추론을 할 수 있다. 이를 고려할 때, 정답이 될 수 있는 선지는 ‘압력이 낮아지면서 용해도가 감소한 만큼 이산화탄소가 날아갔다.’라거나 ‘온도가 상승하면서 용해도가 감소한 만큼 이산화탄소가 날아갔다.’로 진술되어 있어야 하는데, ④가 전자에 해당한다.

- ① 기체의 용해도는 용매의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감소하므로 병 안의 온도가 높아지면 용해도가 감소하게 된다.
- ② 기체의 용해도는 용매의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감소하므로 병 안의 온도가 낮아지면 용해도가 증가하게 된다.
- ③ 기체의 용해도는 일정한 온도에서 압력에 비례하므로 병 안의 압력이 높아지면 용해도가 증가하는 것은 맞지만, 병마개를 한 번 열게 되면 탄산의 특 쏘는 맛이 점차 사라지게 되므로 이산화탄소가 음료 안으로 녹아드는 것이 아니라 음료 밖으로 날아가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 ⑤ 기체의 용해도는 압력에 비례하고 용액의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감소하므로, 병 안의 압력이 낮아지면 용해도가 감소하는 것은 맞지만, 병 안의 온도가 낮아지면 용해도는 증가하므로 적절하지 않다.

44. <답> ④

0°C의 물 100g에서 물질 A의 용해도는 10, B의 용해도는 30이다. 석출은 용해도가 초과되는 만큼 이루어진다는 것을 고려할 때, 60°C의 물 100g에 물질 A, B를 20g씩 녹인 후, 물의 온도를 0°C로 낮추면, B는 용해도를 초과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석출이 일어나지 않고, A는 용해도를 초과한 상태이므로 10g이 석출된다고 할 수 있다.

- ① 용해도는 100g의 용매에 용해되는 물질의 최대량을 g으로 표시한 것이므로 용해도 곡선은 포화 용액 상태의 점들을 나타낸 것이다.
- ② 20°C에서 물질 A, B의 용해도가 같으므로, 20°C의 온도에서 물 100g에 녹을 수 있는 A, B의 양은 똑같다.
- ③ 3문단의 내용을 통해 흡열 반응을 보이는 물질은 용매의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용해도가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는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용해도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물질 A, B는 모두 흡열 반응을 보이는 용질이라고 할 수 있다.
- ⑤ 일반적으로 고체는 용매의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용해도가 증가하고, 기체는 용매의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용해도가 감소한다. 따라서 ㉠, ㉡는 고체의 용해도 곡선이라고 할 수 있다.

45. <답> ③

‘즉’은 ‘다시 말하여’,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의 의미로 앞의 내용을 강조할 때 사용하는 부사이다. ③은 ‘즉’을 인과 관계를 나타내는 부사로 이해하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① ‘구분’은 일정한 기준에 따라 대상을 몇 갈래로 나누는 것이므로 적절한 독서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 ② ‘하지만’은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상반되는 사실을 나타내는 두 문장을 이어 줄 때 쓰는 접속 부사이므로 적절한 독서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 ④ ‘예를 들어’는 본보기가 될 만한 사물이나 현상을 사례로 제시할 때 쓰는 말이므로 적절한 독서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 ⑤ ‘이는’은 바로 앞에서 언급한 대상을 가리킬 때 쓰는 말이므로 적절한 독서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